주체91(2002년)

6.15주간

6.15Weekly

제28호 (12월 28일~1월3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2002년, 새로운 비약!

노작 -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 대표들과 한 담화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주체 90년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선전투쟁 총화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28호 (12.28~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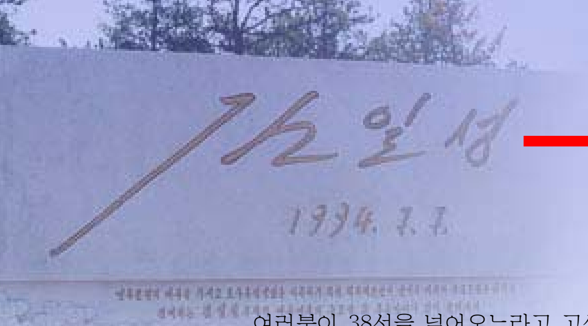

주체91(2002)년
새해를 축하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 소리》 편집인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 대표들과 한 담화

1948년 4월 20일



여러분이 38선을 넘어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앓는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구국의 일념을 안고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평양에 온 것은 참으로 의로운 거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 대표 여러분들을 만나니 매우 기쁩니다.

나는 이미 김창준 위원장선생을 비롯한 남조선의 애국적 기독교인들이 반동들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생들이 조직한 기독교민주동맹은 창립된 첫날부터 통일적 민주주의 임시정부수립을 지지하여 여러 차례 성명도 발표하고 기독교인들을 조직 동원하여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교인들이 반동들을 반대하여 싸운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위원장선생을 비롯한 남조선기독교인들의 애국투쟁을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은 미제국주의자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으로 인하여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엄중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식민지예속화정책을 실시하여온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문제를 비법적으로 유엔에 상정시키고 ≪유엔임시조선위원단≫을 조작하였으며 그의 감시 하에 남조선에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괴뢰정부를 조작하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조선인민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남조선에 단독정부가 서게 되면 우리 민족은 분열되고 남조선은 미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되게 될 것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며 한 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민족이 분열되고 절반 땅이 외래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목전의 현실은 전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나라와 민족의 영구분열의 위기를 막기 위한 구국투쟁에 떨쳐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구국투쟁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교인들도 민족의 분열을 막고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교인들이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는 미제의 책동은 세상사람들이 평화롭고 화목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독교의 정신과 양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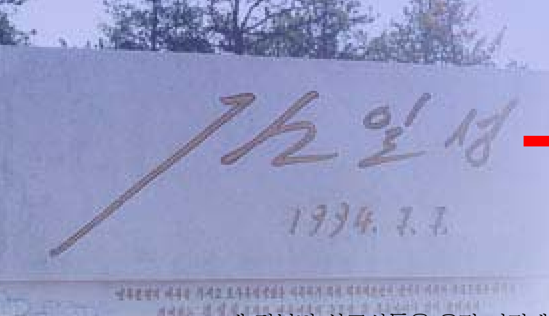
과거 우리 나라의 교인들 속에는 조국광복을 위한 성업에 한 생을 바친 훌륭한 애국지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선생도 3.1운동 때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33인의 한사람으로서 일제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박해를 다 받았지만 반일애국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할 때에도 많은 애국적 종교인들이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 하에 우리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였습니다. 외래침략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남조선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성업에 적극 기여하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남조선에서 일부 기독교인들이 장로교요, 감리교요 하면서 서로 교파싸움을 하다보니 단합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먼저 생각하여야 하며 서로 장벽을 쌓고 교파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미제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민주주의적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굳게 뭉쳐야 합니다. 더욱이 미제와 남조선반동파들이 민주역량의 분열을 획책하고 있는 조건에서 교인들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들 속에서 단합을 방해하고 분열와해책동을 감행하는 불순분자들을 적발하는데도 깊은 주목을 돌려야 합니다.

교인들 속에서 숭미사상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남조선의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숭미사상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이 조선에 독립국가를 세워줄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기독교인들이 숭미사상을 가지고 미국을 환상적으로 대하게 된 데는 일정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 기독교는 주로 미국선교사들에 의하여 전파되었습니다. 미국은 오



래 전부터 선교사들을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의 척후병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과거 조선에 와있던 미국선교사들은 도처에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독교 교리를 전파하면서 미국에 대한 선전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슨 학교요, 병원이요 하는 것을 차려놓고 조선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독교신자들 속에서 미국사람을 ≪하느님≫의 사도로, ≪벗≫으로 여기고 미국을 ≪천국≫처럼 숭배하는 사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선생은 미국에서 생활해 보았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데 대하여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선생이 미국은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그 시체 위에 선 나라이고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일삼아온 제국주의 국가라고 하였는데 옳은 말입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를 민주주의 독립국가로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해방 후에도 미제는 종교를 악용하여 남조선인민들에게 반공사상과 남북대립감정을 고취하여 왔습니다. 최근에 미제는 남조선기독교민주동맹이 북조선의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느니, 북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당도 다 없애버렸다느니, 교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세불 양립이라느니 하면서 온갖 악선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남조선의 일부 기독교인들 속에서는 북조선에 대하여 그릇되게 인식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조선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며 어떠한 종교에 대하여서도 탄압하거나 그 활동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시책은 이미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내놓은 조국광복회10대 강령에도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북연석회의에 온 기회에 북조선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북조선기독교인들은 1946년에 북조선기독교도연맹을 조직하고 종교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아무러한 차별도 받지 않고 공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완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민위원회선거에도 다른 사람들과 꼭 같은 권리를 가지고 참가하고 있으며 많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이 인민위원으로 선거되어 나라의 정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북조선의 이러한 민주주의적 종교시책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잘 인식시키는 동시에 종교를 악용하여 반공사상과 남북대립감정을 고취하는 미제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교인들의 운명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떼여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없이는 신앙의 자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 집 개만도 못하다고 과거 일제식민지통치 하에서 종교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오늘 남조선에서 애국적 종교인들이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것도 바로 미군정통치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로 되어야 남조선의 신자들도 신앙의 자유를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은 기도를 하여도 우리 나라의 자주독립과 우리 민족의 융성번영을 위하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북연석회의사업에 적극 참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번 회의는 통일적인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된 다음 남북조선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국사를 의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제의 침략책동으로 인하여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위험이 닥쳐오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남북연석회의를 하는 것은 남북조선의 모든 애국역량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독립국가를 건설하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내외에 과시하는 역사적 사변으로 됩니다.

우리는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회의가 미제의 ≪단선단정≫조작책동을 분쇄하고 통일적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기대에 맞게 성과적으로 결속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선생들이 남북연석회의에 참가하여 구국대책에 대한 좋은 의견을 내놓으며 회의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적극 기여하리라고 믿습니다.

4. 녕안땅에 모인 하모니카소리

≪세기와 더불어≫ 3권 제9장 제1차 북만원정



…

수수천 년을 헤아리는 우리의 유구한 민족사에서 인민이 나빠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한평생 인민을 좋은 인민과 나쁜 인민으로 구별해본 적이 없었다.

역사의 오점을 남겼거나 그 역사를 우롱한 것은 한 줌도 못되는 통치배들이였지 인민이 아니였다. 물론 개별적 인간들 가운데는 역적도 있고 수전노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협잡배나 야심가나 패덕한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쌀에 뉘만큼도 안 되는 소수자였다.

이 세상 전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인민이라는 거대한 집체는 항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진두에서 성실하게 굴려왔다.

그 역사에 거북선이 필요하면 거북선을 만들었고 피라미드가 필요하면 피라미드를 만들었다. 시대가 피를 요구할 때 인민은 육탄이 되어 서슴없이 화구 앞으로 죽음을 맞받아나갔다.

문제는 녕안사람들의 심장부로 통하는 지름길을 발견해내지 못한 데 있었다.

왕대흥이 인솔한 정치공작조도 분명 격동적이 호소적인 반일선전을 하였을 것이다.

녕안사람들이 그런 연설을 적게 들었겠는가. 귀가 아프게 들었을 것이다. 독립군도 구국군도 비적들도 그런 연설을 다 한다. 그러니 왕대흥의 정치공작이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잘못은 그들이 무작정 인민을 가르치려 한 데 있다. 언제부터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여겼고 인민을 자기의 학생들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던가. 인민을 무지에서 광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사명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우리가 자신들을 인민의 선생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주제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인민의 심장 속 깊이에로 침투하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이 받아들이는 통행증은 단 한가지밖에 없으니 그것이 바로 진심이다. 진심만이 우리의 피와 인민의 피를 하나의 동맥 속에 융합시킬 수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인민의 아들이 되고 손자가 되고 형제가 되어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녕안 땅에서 영영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왕청아동유희대가 녕안에 와서 공연을 할 때에는 매번 공연장소에 군중이 초만원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아동유희대도 혁명을 호소하고 유격대도 혁명을 부르짖었는데 왜 인민이 아동유희대는 환영하고 유격대는 외면하였겠는가.

나는 김백룡에게 물었다.

≪우리 아동유희대가 이 고장에 왔을 때 동무들도 공연을 구경했소?≫

≪했지요. 그 애들의 공연이 굉장했습니다.≫

김백룡은 왕청아동유희대가 그때 녕안 땅을 들었다 놓았다고 하였다.

≪유희대가 가는 곳마다 초만원이었다는데 공산당선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녕안사람들로서야 천지개벽이 아니겠소. 군중이 많이 모일 수 있는 비결이 어데 있는 것 같소?≫

≪그 아이들이 이 고장 사람들한테 귀엽게 굴었지요. 유희대공연으로 녕안사람들의 혼을 쭉 뽑아놓고는 공산명월처럼 방글방글 웃으면서 그들을 감화시켰답니다. 애들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한테 정을 주듯이 정을 주는데 아무리 목석 같은 녕안사람들인들 왜 녹아나지 않겠습니까.≫

≪그 재간둥이들이 왕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다오.≫

≪유희대공연도 공연이지만 아이들이 민심을 얻었지요. 그 아이들의 품성에는 나도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팔도하자 마을 청결은 이 아이들이 다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는 온 동네를 다듬이돌처럼 반반하게 정돈해 놓지요. 낮이면 밭에 가서 어른들 일손도 돕구요.≫

김백룡이 유희대원들을 연방 칭찬하는 바람에 나는 흐뭇한 생각이 들었다.

≪그 애들이 나이는 어리지만 셈은 다 들었지.≫

≪아이들이 또 사람은 얼마나 따르는지…. 어른들만 보면 십리 밖에서부터 아동단경례를 붙이구 ≪할아버지≫, ≪아버님≫, ≪아재≫, ≪누나≫, ≪언니≫하면서 찰찰 감겨돌아가는데 …하여튼 평이 대단했습니다.≫

아동유희대가 북만사람들의 민심을 틀어잡은 것은 바로 그들이 사람들에게 정을 준 데 있었다. 우리가 두만강 얼음구멍 속에 도끼를 빠뜨렸을 때 그것을 찾으려고 반나절 동안이나 극성스럽게 애쓴 것도 인민에게 바치는 진정의 표시, 사랑의 표시 아니었던가. 우리가 진정을 바칠 대 인민이 그 진정을 거절하거나 우리를 배척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왕대흥 정치공작조의 실책은 바로 인민에게 그런 진정을 바치지 않았다는 데 있는 것이다. 그들은 북만사람들을 혁명화해야겠다는 실무적인 목적만 생각하였지 인민들에게 정을 주고 친숙해지려는 궁리는 하지 않았다. 북만인민이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도 아니었다.

우선 북만사람들과의 접촉을 연설로부터 시작한 것이 잘못이었다. 사람들에게 정을 먼저 주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그 정을 더욱 두터이 한 왕청아동유희대의 활동은 얼마나 교훈적인가.

나는 정치공작의 형식부터 바꾸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지휘관들과 함께 그 방도를 토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중대 정치지도원들에게 하모니카를 잘 부는 사람들을 전부 불러오도록 하고 그들이 지휘처에 다 모이자 한명 한명 차례로 불어보게 하였다.

연길중대에서 온 홍범이라는 대원은 청중들이 흥이 나서 어깨를 으쓱으쓱할 정도로 하모니카를 재치있게 불렀다. 때로는 하모니카로 손풍금 합주 비슷한 소리까지 냈다. 왕청 5중대 동무도 하모니카를 잘 분다고 하였는데 그에 비하면 떨어졌다.

홍범은 소학교 시절부터 하모니카를 불었다. 어떤 단골손님이 집에 놀러왔다가 두고간 하모니카였는데 주인이 다시 나타나지 않아 자연히 그의 애용품이 되었다고 한다. 여러 해를 거듭하여 부는 사이에 재간은 놀랄 정도로 늘어났지만 하모니카는 도금칠이 다 벗겨진 중고품이 되고 말았다. 다행히도 청만은 옛 그대로였다.

나는 뒤틀라즈에서 원정준비를 할 때 그 하모니카를 보고 새것을 하나 마련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기회가 생기지 않아 북만으로 떠날때까지 그 결심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간도지방 유격대원들과 인민들 중에는 홍범의 경력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보통대원에 지나지 않는 그의 경력이 사람들의 관심을 자아내는 화제거리가 되어 동만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남다른 하모니카연주술 때문이었다.

하모니카 연주가들은 어디서나 전우들의 사랑을 받았다.

홍범의 고향은 함경북도 종성이었다. 부모를 따라 어려서 간도지방에 건너온 그는 일찍부터 혁명운동에 참가하였다. 한때는 적위대에 입대하여 돈도선철도공사를 파탄시키기 위한 대중투쟁에 참여한 일도 있었다. 해란구유격구역이 해산된 후 그는 하모니카가 들어있는 배낭을 메고 왕우구로 옮겨와 거기서 유격대에 참군 하였다.

나는 왕대흥에게 과업을 주어 전날 정치공작조가 침을 뱉고 돌아선 그 마을에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가서 인민들의 심장을 다시 한 번 흔들어보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김백룡에게 지하조직을 발동시켜서 하모니카를 있는 대로 사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이날 인민들에게 배포할 선전문을 마련하려고 녕안현 당비서처를 찾았다.

우리가 비서처 동무들과 담화를 하고 있을 때 하모니카중주단을 데리고 마을에 나갔던 왕대흥이 희색이 만면해서 내 앞으로 뛰어들었다.

≪대장동지, 성공입니다. 그 장승같이 무뚝뚝하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심장을 열어놓았습니다.≫

왕대흥은 결과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공작경위를 조리 있게 말하는 지휘관이었다.

혁명군에 심장을 열어주지 않고 무정하게 외면하는 목석 같다던 사람들을 돌려세웠다는 하모니카

중주단의 활동경험은 교훈적인 것이였다.

중주단의 활동은 마을 한복판에 있는 어떤 집 마당의 눈을 치는 작업으로 시작되였다. 너렁청한 그 마당에 보초를 세우고 맨 선참으로 펼쳐 놓은 것은 바로 홍범 외 1명이 출연하는 하모니카 2중주였다. 중주단의 나머지 성원들은 그 2중주에 맞추어 춤을 추었다. 그러자 가까운 골목에서 팽이를 돌리던 두세 명의 조무래기들이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울바자 앞으로 달음박질해왔다. 다른 골목에서도 아이들이 바지괴춤을 춰올리며 오락장으로 뛰여왔다.

2중주는 ≪총동원가≫로부터 ≪아동가≫와 ≪어데까지 왔니≫로 얼른 곡목을 바꾸었다. 홍범의 하모니카에서 경쾌한 음향에 홀딱 반해버린 아이들은 박수를 치며 노래를 따라 불렀다. 어떤 아이들은 동네방네로 뛰여다니며 간도에서 온 ≪고려홍군≫이 댄스를 한다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 광고를 들은 어른들이 먼 발치엣 팔짱을 지르고 혁명군의 오락회를 구경하였다. 어떤 어른들은 오락장 가까이에까지 바싹 다가와 ≪고려홍군≫의 ≪풍각쟁이≫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구경꾼들의 수효가 40~50명쯤 되자 하모니카중주단은 ≪아리랑≫을 연주하였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 온 동네를 다 불러내고야 말았다. 관객의 수는 100명, 200명으로 불어났다가 다시 300명 계선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때에 고보배가 나서서 ≪평안도수심가≫를 불렀다. 그 청승맞은 노랫가락에 흥취가 오른 수백명의 마을 사람들은 오락장을 가락지 모양으로 완전히 에워싸고 ≪고려홍군≫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에 귀를 귀울였다.

고보배는 노래는 마지막까지 다 부르지 않고 중도에서 툭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좀 신파끼가 있는 억양으로 연설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러분네들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상북도라구요. 함경남도, 강원도, 네네, 물론 평안남도 출신도 있겠지요. 제 고향은 구태여 묻지 말아주십시오. 거 뭐 제가 재세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전 고향이 어딘지 모르고 살아온 놈이웨다. 조선은 조선인데 그저 해변가라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조선에서 살다가 부모 등에 업혀 강을 건넜는데 두만강인지, 압록강이였던지 그것두 알 턱이 없지요. 네네, 난 원래부터 그런 반편입니다.…≫

사람들은 고보배의 입담에 심취되어 키득키득 웃기도 하고 수군수군 소감도 나누었다. 고보배는 간도에 들어와서 가랑잎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자라던 경위와 유격대원이 되어 왜놈들을 요정내던 몇 가지 장면들을 고사처럼 구수하게 엮어대다가 축음기 소리판을 뒤집어 끼우듯이 슬쩍 혁명에 대한 계몽으로 넘어갔다.

≪여러분, 우리의 한결같은 소망이 뭘까요. 그건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자니 왜놈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그놈의 오랑캐들을 가만 내버려두어야 하겠습니까? 난 참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잡구 유격대원이 된 거지요. 왜놈의 씨종자를 없애려고 넝안에두 왔구요. 북만에서 돌아치는 일본군대 더 건방지다지 않겠나요.≫

연설이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고보배의 머리에는 난데없이 일본군대의 군모가 척 놓였다. 괴춤에 찔러가지고 간 것을 순식간에 머리 위로 날렸던 것이다.

고보배는 이런 희극적인 차림으로 기지개와 하품을 한바탕 늘어지게 한 다음 뒷짐을 뒤고 턱을 잔뜩 쳐들고 얼굴을 우습게 씰룩거리면서 오락장을 두어 바퀴 돌았다. 그것은 방금 잠에서 깨어나 병영마당에 나서서 산책을 하는 일본장교의 기분상태를 아주 그럴 듯하게 연상시켰다.

구경꾼들은 처음에 작은 소리로 키득키득 웃어대다가 나중에는 내놓고 포복절도하였다.

고보배는 그 폭소가 가라앉기 바쁘게 구경꾼들 앞을 한 고패 빙 돌아가며 할머니 앞에 가서는 노파의 웃음소리, 할아버지 앞에 가서는 영감의 웃음소리, 젊은 연인들 앞에 가서는 새각시의 웃음소리를 내는 식으로 성별과 연령에 따르는 각종 웃음소리를 흉내냄으로써 구경꾼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어대다 못해 눈물까지 흘리게 하였다.

하모니카중주단은 이렇게 마을을 흐물흐물하게 해놓은 다음 다시 한 번 항일선전을 하고 혁명군 원호를 호소하였다.

하루 전에 정치공작조가 들어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마을에 가서 하모니카중주단이 이처럼 놀라운 실적을 올릴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진행한 선전공작의 통속성과 진실성에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경험에 토대하여 군중들속에 더 깊이 들어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녕안현의 수십개 마을을 점차적으로 혁명화하였다. 동만에서 온 ≪고려홍군≫과 녕안인민들을 갈라놓고 있던 철의 장벽은 마침내 제거되었다. ≪고려홍군≫이 지나간 고장들에서는 당대열이 늘어나고 공청과 부녀회, 아동단을 비롯한 혁명조직들이 급속히 확대되였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자기의 심장을 활짝 열어제낀 인민들은 혁명군을 지지하고 원호하는 데서 최대의 보람을 느꼈다.

그 인민의 군상속에는 천교령목재소의 김노인, 다왜즈의 조택주노인, 옥량하의 중국할머니 맹성복, 남호두의 이 노인 등 잊을 수 없는 얼굴들이 수없이 많다.

맹 할머니는 4촌동생과 함께 일본경찰에 붙잡혀 온갖 곤욕을 다 당하면서도 적의 동태를 반영한 귀중한 정보자료들을 원정대에 무시로 제공해주었다.

남호두의 이 노인은 적들의 항시적인 감시 속에 있는 요시찰인이였다. 적들은 그가 유격대를 원호한다고 8칸짜리 집에 불을 질렀다. 언제인가는 헌병대에 끌어나가 수십 개나 되는 곤장을 먹었다. 그런 졸경을 당하면서도 이 노인은 우리에게 필요한 식량과 신발을 지고 혁명군의 숙영지로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

≪노인님 무섭지 않습니까.≫

한 번은 내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다.

≪무섭지요. 내가 혁명군에 물건을 가져다주는 것이 탄로나는 날이면 내 아들 셋은 물론이고 우리

일가가 멸족당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지요. 혁명군 어른들이 나라를 찾아주겠다고 변변히 자지두 못하고 자시지두 못하면서 고생하는데 우리가 일신의 안전만 생각하면서 팔짱을 지르구 있을 수야 없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이였다.

조국을 사랑하고 정의를 옹호하는 불씨는 북만 인민들의 가슴속에도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다.

불씨의 열도는 동만인민들이 지니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다만 다른 것은 그것을 에워싸고 있는 껍질이 갑절 두터웠을 뿐이며 그 껍질을 통과하는 문턱이 한결 높았을 뿐이다.

인민은 자기를 동정하고 이해해줄 줄 아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가 누구든지 서슴없이 마음의 대문을 열어제낀다. 그리고 불타는 열정으로써 그들을 품어안는다. 하지만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토양이 인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배은망덕자들, 인민에게는 자기를 섬겨줄 의무가 있게 자기에게는 그 시중을 받을 권리만 있다고 여기는 건방진 인간들, 인민을 아무렇게나 다스려도 된다고 간주하는 관료배들, 인민을 아무 때나 짜도 우유를 내는 젖소처럼 여기는 착취자들, 인민을 사랑한다고 말끝마다 떠들어대면서도 인민이 고통스러워할 때에는 눈을 가리며 슬쩍 지나가는 말공부쟁이들과 위선자들, 건달꾼들, 협잡배들 앞에서는 사정없이 빗장을 지른다.

지금은 우리 곁에 1차 북만원정을 회상할 전우들이 한 명도 없다. 170여 명이나 되는 원정대원들 중 광복된 조국에 돌아온 사람은 얼마되지 않았다. 왕청중대에서도 아마 오준옥, 연희수가 돌아왔다고 생각된다.

우리가 녕안땅에 갔을 때 강건은 아동단원이었다. 나이로 보아서는 지금까지고 살아서 혁명을 해야할 사람이다. 그러나 그도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발발되었던 그해 초가을에 최전선에서 전사하였다. 당시 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였다.

고보배는 훗날 주보중이 지휘한 5군에서 연대정치위원으로 복무하였다.

그가 전장에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쏘련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끝없는 우스개와 익살로 온 간도를 노상 웃음의 선풍 속에 몰아놓던 재능 있는 낙천가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를 접했을 때 나는 그 소식 자체를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낙천가가 가버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고보배와 함께 북만원정대의 통로를 선두에서 개척한 하모니카중주단의 과반수는 주보중의 요청으로 북만으로 떨어졌거나 귀환 도중의 격전들에서 전사하였다. 나머지 반수의 그후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그것을 고증할 방법이 없다. 이제는 그들의 이름조차 삭막하다.

제1차 북만원정이 있은 때로부터 근 반세기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원정 참가자 한 명이 평양에서 살고 있다는 반가운 통보를 받았다. 해당부서 일군들이 올려보낸 사진을 보니 하모니카중주단의 1번수 홍범이였다.

그 눈언저리에는 우리를 위협하던 북만의 사나운 설한풍과 그 설한풍속에서 걸음걸음 힘겹게 뚫아가던 유례없는 고초의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있었다. 세월의 심술궂은 변덕으로 얼굴모습은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왜가리목처럼 쑥 뽑힌 그 유다른 목의 형태만은 반갑게도 옛모습 그대로였다.

이 사람이 정녕 간도사람들의 총애를 받던 그 유명한 하모니카명수 홍범이란 말인가. 1차 북만원정의 직접적인 참가자이고 증견자인 이 보배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내 가까이에 건재해 있으면서 인제와 자기 존재를 알린단 말인가.

나는 해당 부서 일군들에게 사연을 알아보라고 부탁하였다.

홍범이 그때까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은 것은 지나친 순박성과 겸손성 때문이었다.

≪나는 항일혁명에 참가하였지만 자랑할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자랑거리가 있다면 수령님을 모시고 북만에 원정을 갔다온 것뿐입니다. 그나마 북만에서 돌아온 다음에는 삼도만 막바지에서 열병을 앓느라고 유격구가 해산된 것도 모르고 지내다가 대오를 찾지 못하여 고향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항일전쟁 참가자라고 하면 당에서 금이야 옥이야 하고 보살펴주겠는데 나는 그런 부담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생 말년에 이른 항일의 노투사 홍범이 한 말이다.

그때 70고령이였던 그는 전승분주소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었다. 집도 소박한 단칸방이였다. 1950년대와 60년대에 태어난 새 세대의 연주가들이 3칸, 4칸 되는 새 집으로 이사갈 때에도 항일장정의 풍랑속에서 온갖 고생을 다한 유격대 하모니카수는 그 단칸집에서 사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홍범은 그 이상의 특대나 특전을 바라지 않았다.

우리의 항일전쟁참가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다.

홍범은 내가 녕안에서 사준 하모니카를 일평생 간직해왔다고 한다. 우리 사적 일군들이 취재를 위해 집에 찾아갔을 때 홍범은 그 하모니카로 북만원정 때 불던 혁명가요원곡을 연주하였다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더라고 한다.

그는 당에서 배려해준 광복거리의 새 아파트에서 세상을 떠났다.

북만원정이나 고난의 행군과 같이 참담한 시련을 겪어온 투사들은 해방된 조국에 와서도 우리와 함께 오만가지 고난을 다 이겨냈다.

초년 고생은 금을 주고도 사지 못한다고 한 우리 조상들의 명언은 얼마나 심오하고도 박력있는 생활의 진리를 귀띔해주고 있는가. 고난과 시련은 만복의 어머니이다.

평화의 장군

군사전문가 퇴역장성 현광혁 / 구국전선 제464호, 주체91(2002)년 1월 1일



장군이란 흔히 전쟁과 결부되어 불리워진다.

인류전쟁사에는 수많은 장군이 출몰했다.

장군들은 전쟁에서 무훈을 떨치고 전장에서 무공을 세웠다. 싸움판에서 승전가를 부르고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것이 장군이었다.

그런데 오늘 세계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전쟁을 막고 평화수호로 명성을 떨치시는 사상초유의 장군을 보고 있다.

군사전문가로 백발이 된 나는 선군정치로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지켜주시는 **김정일**장군의 걸출한 위인상을 접할 때마다 충격과 감동을 금하지 못하곤 한다.

장군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주년을 맞으며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붓을 든다.

승리로 수호되는 평화

한반도는 세계적인 열점지역이다. 불과 불이 오가지 않고 총포성이 계속되지 않을 뿐 유혈전보다 더 심각한 무혈전쟁이 벌어지는 대결장이다. 행성에서 미국과 직접 대적하여 근 60년간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곳은 한반도뿐이다.

미국은 6.25북침전쟁 이후에만도 끊임없는 대북도발을 자행하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려왔다.

한반도전체를 병탄하지 못하면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할 수 없다고 간주하고 있는 미국이다. 그래서 전쟁의 시한탄을 묻어놓고 ≪제2의 6.25≫를 끈질기게 추구해 왔다.

미국의 반북정책으로 한반도에 전운이 감돈 적은 한두번이 아니었다.

68년 미국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이북영해에 침범하였다가 나포됐을 때에도, 미국의 ≪EC-121≫고공정찰기가 이북영공을 침입하였다가 격추됐을 때에도 한반도에는 일촉즉발의 전쟁위험이 조성되었었다.

그러나 ≪보복≫과 ≪응징≫을 떠들던 미국은 ≪보복에는 보복으로≫라는 북의 강경대응앞에 저절로 주저앉고 말았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김일성**주석의 무비의 담력과 지략을 그대로 체현하신 **김정일**장군의 담대한 배짱과 멸적의 기상이 안아온 승전이었다.

김정일장군은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장군이시지만 결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으신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로 다스려야 하며 침략의 무리는 총대로 징벌해야 한다는 멸적의 의지를 지니신 장군이시다.

미국은 장군의 그 의지와 기상, 배짱과 담력을 무서워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20세기 마지막년대에 미국이 있지도 않은 ≪핵의혹≫을 걸고 감행한 대북도발을 단호한 반격으로 제압하신 장군의 탁월한 영도력을 잊을 수 없다.

93년 3월의 북미대결, 그것은 단순한 한반도의 운명만을 결정한 싸움이 아니었다. 아시아와 세계평화가 걸린 결전이었다. 제3차대전의 전주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은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하고 항공모함전단 등 방대한



무력을 한반도수역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이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했다. 미국의 모습은 마치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늑대를 방불케 했다

그때 전쟁은 피할 수 없다고 간주했었다. 세계가 불안과 우려 속에 한반도상황을 주시했다.

바로 그러한 때 북에서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관한 **김정일**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발표되었다.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한다는 이북정부의 폭탄선언이 울려퍼졌다.

그것은 그대로 서방을 전율케 한 메가톤급 충격이었다. 대북침공의 총포를 쓸모없는 무쇳덩어리로 만들어버린 뇌성벽력이었다.

이 땅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조국의 촌토 0.001미리라도 침범한다면 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 앞에 미국은 흰기를 들고 말았다.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력의 불사용과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보장, 평화통일지지의 공식문서에 서명했다. 북의 자주권을 인정하는 미국대통령의 담보서한까지 평양에 보내졌다.

김정일장군의 천재적 군사전략의 승리였다. 천만대적도 눈아래로 굽어보시는 장군의 천출명장상이 펼쳐진 통쾌한 광경이었다.

김정일장군의 영도를 받는 북의 승전은 20세기 말에도 이어졌다.

김일성주석 서거후 한반도에는 전쟁의 불구름이 연이어 밀려 들었다.

서방연합의 끈질긴 봉쇄와 질식고사작전, 연이은 자연재해는 북의 고난을 가증시켰다.

이를 호기로 삼아 미국은 대북압살에 총공세를 가했다. 제2차세계대전의 치열한 격전지였던 레닌그라드에 대한 파쇼독일의 공세와도 비교할 수 없을 최대의 공세였다.

미국은 걸프전과 발칸전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 이북도 단숨에 삼켜버리려고 군사력을 총동원했다.

이북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익측도 후방도 없는 단독고전을 벌여야 할 북이 미국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북이 미국의 강권을 격파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평화는 누가 지킬 것이며 세계의 안정은 누가 유지할 것인가.

세계의 눈길은 또다시 북으로 쏠렸다.

그러나 세인들의 우려는 공연한 것이었다.

이북은 미국의 고립압살전략에도 끄떡없었고 군사적 도발에도 흔들림없었다.

미군헬기의 휴전선이북상공침입시에는 단방에 격추해 버리고 미국의 사죄를 받아냈다. ≪지하핵시설≫의혹을 떠들며 강제사찰을 추구할 때에는 신묘한 외교술로 텅빈 굴간에 수십만톤의 양곡을 채워넣게 했다.

≪평양점령≫까지 노린 ≪5027-98작전계획≫은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 발표하여 휴지로 만들어 버리었다.

미국은 이북과의 관계개선을 확약하는 공동코뮈니케에 도장을 찍었고 미국사상 처음으로 국무장관을 수교도 없는 평양에 보내어 대통령의 방북까지 추진하게 했다.

참으로 20세기 말의 북미대결은 유혈전보다 더 치열한 무혈전이었다.

김정일장군께서 계셔 북은 유일초대국을 상대로 벌인 그 무혈전에서 쾌승을 이룩했다.

새 세기를 맞은 지금 한반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21세기를 미국의 세기로 만들 것을 꿈꾸는 부시행정부는 이북을 힘으로 제압할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다.

북을 걸고 ≪미사일방어≫체제수립을 떠들고 9.11대습격사건을 기화로 이북에 ≪테러지원국≫,≪생화학무기개발국≫의 감투까지 씌우며 선임자들이 이루지 못한 이북압살의 야망을 실현해보려 발악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패권전략도 파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에는 위협도, 봉쇄도 통하지 않는다.

북과의 대결에서는 언제나 패전만이 있다는 것은 북미대결 50여년사가 남긴 교훈이다. 미국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상초유의 평화의 장군

평화는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다.

그러나 평화는 바란다고 하여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평화시기보다 전쟁기간이 더 길었다는 하나의 사실에서도 역사가 인류의 염원대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화는 수호해야 한다. 구걸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 평화이다. 지켜야 하며 승전으로 쟁취해야 한다.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적인 공적은 누구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애국자만이 이룰 수 있다. 투철한 평화경륜과 의지를 지니고 백승을 이룩하는 장군만이 성취할 수 있다.

위대한 사상과 탁월한 영도력을 지니신 **김정일**장군은 평화의 의지와 경륜, 평화를 수호한 공적으로 만민의 찬탄을 받고 계시는 인류가 처음보는 평화의 장군이시다.

김정일장군은 독창적인 총대철학을 지니신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시다.

장군께서는 일찌이 항일의 총포성 울리는 백두전장에서 총대만이 망국의 운명을 가시고 지배와 예속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안아올 수 있다는 철리를 새기셨다. 6.25전쟁의 불구름이 타래치던 그 준엄한 나날 **김일성**주석의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제국주의침략을 분쇄하고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방략은 총대를 굳건히 잡는 것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굳히신 장군이시다.

그래서 장군께서는 총대를 사랑하셨다. 총대를 앞세워 조국과 민족을 지키시었고 평화를 마련해 주셨다.

총대는 자고로 전쟁을 수반했다. 총대가 닿는 곳마다 전운이 휩싸였고 살육의 피가 흘렀다. 화승총이 전장에 처음으로 나타난 15세기 말이래 총대는 항상 전쟁의 대명사였고 수단이었다.

오늘도 패권주의자들의 손에 쥐어진 총대는 세계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들고 있다.

김정일장군의 총대철학은 피로 얼룩진 역사를 새롭게 정화시키고 있다.

장군의 총대철학은 총대위에 평화가 있다는 독창적인 철학이다. 총대가 약하면 침략자들의 노예가 되며 전란의 고통과 불행을 면할 수 없다는 심원한 평화경륜이다.

그분의 이 총대철학의 당위성은 역사에 의해 검증된 위대한 진리이다.

총대가 약해 제나라강토를 청일, 러일의 전쟁터로 내맡기고 종당에는 나라마저 빼앗겨야 했던 지난 세기의 민족사가 그를 실증해 준다. 총대가 무력하여 나라의 주권이 무용지물로 되고 외세가 나라안방을 메주밟듯 시찰하며 이전의 대통령까지 법정에 세워도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는 오늘의 국제정치현실이 그것을 증명해 준다.

김정일장군의 총대철학은 위대한 선군정치, 선군영도에 의해 보석처럼 빛나고 있다.

선군정치는 장군께서 창조하신 특유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이며 선군영도는 그분께서 실천으로 보여주시는 비범한 영도예술이다.

선군정치라는 말은 군사술어에도 없고 정치사전에도 없다. 오직 평화의 수호자이신 장군께서만이 내놓으신 고유어이다.

선군영도는 장군의 군시찰에 의해 더욱 그 위상이 떨쳐지고 있다. 선군정치의 개막도 군부대시찰로 시작됐고 선군영도의 첫 자국도 전선시찰의 노정에 아로새겨졌다.

알려진데 따르면 최근 수년간 장군께서 진행하신 군현지시찰은 2백75차에 걸쳐 5백70개 단위에 14만 5천 8백여리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 나라 3천리를 근 50여회 왕복한 것과 같은 기나긴 노정이다.

지난해 5월 한달동안에만도 그분께서는 무려 9일동안이나 군시찰의 길에 계시었다.

장군도 인간이시다. 그러니 쉼없는 선군길을 이어가시느라 얼마나 힘겨우시랴.

그러나 장군께서는 민족의 운명을 두 어깨에 짊어지셨기에, 자신의 선군원정길에 민족의 안녕과 평화가 있기에 휴식날, 명절날 가림없이 숭고한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시고 계신다.

장군께서는 선군영도의 길에서 민족존엄의 수호와 평화의 전략을 구상하시며 승리의 화살표를 그으신다.

최전선을 찾으시어 천만대적을 굽어보시는 장군의 근엄하신 눈빛은 북침을 노리는 침략자들에게 내리는 철추가 되고 있다.

장군의 군시찰로 이북의 군력은 철통같이 다져지고 국력은 백방으로 강화되고 있다. 군민모두가 필승의 강자로 자라고 이북은 영해와 영공, 영토 모두가 난공불락의 요새로 되고 있다.

하기에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세계의 그 어느 지역에서건 강권을 휘두르고 마구 불질을 해대는 미국도 감히 북침전쟁의 도화선에는 불을 달지 못했다.

북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양키들이 이 땅에서 침략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코 그들의 본심이 변했거나 한국민의 생명재산을 우려해서가 아니다.

김정일장군께서 선군영도로 민족의 안녕과 나라의 평화를 지켜주시기에 우리 이남국민도 안전한 것이다. 무적의 강토 이북이 평화수호의 총검을 굳건히 거머쥐고 있고 이북민중이 핵탄보다 더 위력한 일심단결로 뭉쳐있기에 미국이 감히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군의 선군영도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 주고 있다.

김정일장군이시야말로 민족의 보호자이시고 고마운 은인이시다. 그러니 이북민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온 겨레가 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

위대한 선군영도자, 천출명장을 모신 이북은 영원한 평화의 상징이다.

우리 이남국민은 이북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겨야 한다.

그 길이 민족이 살고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 * *

사상초유의 평화장군을 모신 우리 민족은 참으로 행운의 민족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께서 계셔 우리 민족은 전쟁이 없는 21세기 통일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을 민족군의 최고수위에 모실 날이 머지 않아 오리라고 확신한다.

지금 나의 눈 앞에는 통일된 열병광장의 단상에서 민족군을 사열하시는 민족의 영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의 거룩하신 모습이 금시 보이는 것만 같다.

김정일최고사령관께 마음 속으로부터 다시한번 열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린다.

민족의 안녕과 행성의 평화를 위해 **김정일**장군께서 영원히 청춘에 계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오늘 우리는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와 전 민족적환희속에 희망찬 새해 주체91(2002)년을 뜻 깊게 맞이한다.

지나온 력사가 영광스럽고 계승이 위대하며 전도가 양양한것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새 시대 진군길은 더욱 보람찬것으로 되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20세기 혁명의 년대들처럼 오늘도 무한대한 열정과 투지로 우리 혁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김정일**동지의 령도에서 강성대국의 휘황한 앞날을 내다 보며 새해의 총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갈 굳은 결의에 넘쳐 있다.

지난해 주체90(2001)년은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진격로가 열린 력사의 해이다.

우리는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불굴의 기세로 새 세기 첫해 전투를 빛나게 장식하였다. 사회주의붉은기를 고수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조선혁명은 새로운 앙양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20세기의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를 헤치며 꿋꿋이 이어 져 온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전통, 우리의 위업이 변함없이 계승되여 나가고 있는것은 더 없는 긍지이다. 지난해의 투쟁은 21세기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전면적으로 꽃펴나는 영광의 세기로 빛날것이라는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조국의 존엄이 온 세계에 높이 떨쳐 진 긍지 높은 해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지난해에 벌리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은 우리 혁명위업을 힘차게 전진시키고 21세기 국제관계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준 력사적사변이였다. **김정일**동지의 독특한 혁명활동방식과 천재적인 령도실력은 세계를 격동시켰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존심을 백배로 높여 주었다.

지난해는 우리의 혼연일체의 대풍모가 활짝 꽃 펴난 긍지 높은 단결의 해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선군혁명 천만리길을 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절절히 그리며 어려운 시련을 과감히 헤쳐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언제나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시고 인민들은 **김정일**동지를 자나깨나 우러르며 고도의 자각성과 정치적열성을 발휘하였다. 세계의 면전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치사상적풍모의 순결성과 우리 정치체제의 확고부동성이 힘 있게 과시되게 된것은 사회주의붉은기진군에서 이룩된 가장 큰 승리이다.

지난해는 21세기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타오른 장엄한 진격의 해였다.

여러해째 어려운 난관을 겪던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맞이하게 되였다. 전반적경제분야에서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기 시작하였으며 도처에 현대적기술에 기초한 생산기지들이 일떠섰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였다는것을 긍지 높이 말할수 있다.

새 세기 진격로를 열어 나가기 위한 거창한 투쟁속에서 라남의 봉화가 타오르게 되였다. 21세기 첫해에 새로운 비약과 혁신의 북소리가 높이 울리게 된것은 부강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주고 있다.

지난해는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사회주의보루를 굳건히 다진 투쟁의 해였다.

새 세기에 들어 서면서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은 전례없이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답하며 적들의 기도를 걸음마다 짓부셔 버리였다. 세계도처에서 전횡과 강권행위를 일 삼는 제국주의자들도 우리 나라에 대하여서는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격변하는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자기의 곧바른 길로 확신성 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식 사회주의는 진보와 평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인민들에게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다.

새 세기 첫해에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우리 시대의 걸출한 사회주의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위대성의 과시이며 우리 당의 선군혁명로선의 결실이다.

오늘 세계정치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은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여 나가고 있다. 예측할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김정일**동지의 판단과 분석은 언제나 명철하였고 **김정일**동지께서 제시하신 방략은 백발백중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에도 선군혁명로선을 확고히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시였다. 최전선에서 공장으로, 공장에서 농촌으로 끊임 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온 나라에 선군시대의 새 기상이 약동하게 되고 군민이 힘을 합쳐 기적을 창조하는 자랑스러운 현실이 펼쳐 지게 되였다. 선군의 기치 따라 사회주의위업이 완성되는 21세기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 놓으신것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세계사적공헌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새 세기 첫해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붉은기를 더 높이, 더 자랑스럽게 휘날린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로운 진군길에 떨쳐 나서고 있다.

새해 주체91(200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 돌격의 해,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 하늘아래 이 땅우에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여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한결 같은 열망입니다. ≫

올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 영웅적조선인민군창건 70돐이 되는 매우 뜻 깊은 해이다. 주체사회주의의 시조이시며 건군의 어버이이신 수령님의 생전의 뜻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받들고 백두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 나가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2002년을 대를 이어 수령복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개를 떨치는 영광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우리 혁명은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면적으로 꽃 피우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 섰다. 준엄한 시련속에서 다져 진 우리의 힘을 천백배로 높이 발양시켜 전면적개화기를 마련하고 우리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덕을 보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결심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새해 전투를 힘 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올해의 혁명적대진군은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빛내이기 위한 투쟁이다. 수령이 탁월하고 사상이 위대하며 군대가 위력하고 제도가 우월하기에 우리 식 사회주의위업은 반드시 승리한다. 4대제일주의는 주체의 숨결로 약동하는 사회주의조선의 기상이며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영원한 구호이다.

우리 수령제일주의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

수령은 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수령의 위대성에 민족의 번영이 있고 찬란한 미래가 있다. 우리 수령제일주의는 조선민족의 재생과 륭성을 가져다 준 생명수이며 우리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과 강의성, 높은 창조적위력의 근본원천이다. 우리는 자기 수령, 자기 령도자가 제일이며 수령의 존함으로 빛나는 태양민족이 제일이라는 순결한 마음이 자자손손 우리 인민의 넋으로 영원히 이어 지게 하여야 한다. 엎어 놓아도 매달아 놓아도 수령만세를 부르고 절해고도에서도 수령에 대한 의리와 절개를 지키는 2000년대의 ≪ㅌ.ㄷ≫열혈투사가 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절세의 위인이시며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은 21세기 강성대국건설의 만년초석이다. 우리는 수령님 탄생 90돐을 계기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전 인민적사상감정이 온 사회에 꽉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수령님의 유훈을 일관성 있게 틀어 쥐고 철저히 관철해 나가야 한다.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옹호하고 계승하는 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심화시켜야 한다.

김정일동지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오랜 정치경력, 비상히 풍부한 경험을 지니신 특출한 정치실력가이시며 끝 없는 열정으로 혁명과 건설전반을 이끌어 나가시는 희세의 정력가이시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는 **김정일**동지와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순결의 인간, 순결의 동지가 되여야 한다. 말로써가 아니라 사생결단의 각오와 높은 실적으로 **김정일**동지를 받드는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2, 제3의 ≪고난의 행군≫을 한다고 해도 **김정일**동지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는 우리의 의지는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조선혁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력사의 풍파를 뚫고 승리하여 온 혁명이다. 우리 사상제일주의는 주체사상의 불패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을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싸워 나가려는 드팀 없는 의지이다. 세기가 바뀌고 력사가 멀리 전진했다고 해도 조선혁명은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가리키는 길에서 순간의 탈선도 있을수 없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야 한다. 주체사상을 뿌리로 하여 선군정치가 나오고 주체사상을 구현하는 투쟁속에서 일심단결도, 우월한 사회주의도 생겨 났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혁명이 계속되는 한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한순간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기 위한 원리교양과 주체사상이 구현된 우리 혁명실천을 통한 교양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준엄한 ≪고난의 행군≫시기처럼 제 정신을 가지고 제 힘으로 일떠서며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추호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 언어와 풍습, 생활양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족성을 철저히 살리고 우리의것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자기 민족의 리익을 견결히 옹호하며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지니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떨치는 열렬한 애국자, 진정한 민족주의자가 되여야 한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총대는 곧 국력이며 민족적자주권이다. 우리 군대제일주의는 총대로 승리하여 온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이며 불패의 군력에 의하여 전진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영원한 표대이다.

총대를 중시하고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정치체제는 굳건하며 우리 나라는 끄떡 없다.

건군 70돐을 맞는 올해를 백두령장의 손길아래서 자라난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는 승리자의 열병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선군정치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의 모든 면에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고 인민의 거울이 되며 혁명대오의 기수가 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인민군대를 혁명의 수뇌부옹위의 제1선대오로, 혁명화, 사회주의애국주의화 되고 정예화된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만들어야 한다.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한결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급적원쑤들과 비타협적으로 싸우는 사랑과 증오의 심장을 지녀야 한다.

제국주의침략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립장은 단호하며 우리의 총대는 무자비하다.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불질을 한다면 덤벼 드는 침략자들은 무주고혼이 될것이며 적들의 침략적아성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사치 못할것이다. 인민군대에서는 일당백구호를 높이 들고 전투정치훈련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내 나라, 내 조국, 내 고향을 목숨 바쳐 지켜야 한다.

우리 인민은 오랜 실생활을 통하여 인민군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새긴 인민이다. 전체 인민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군대로 빛을 뿌리고 있고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주력군으로 자랑 떨치고 있는 우리 군대에 대한 한 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시대에 사는 인민답게 인민군대가 높이 발휘하는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생활화, 체질화해 나가야 한다. 인민들은 우리 군대제일주의구호를 들고 군대를 친혈육처럼 사랑하고 인민군대는 우리 인민제일주의구호를 들고 인민에게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혈연적군민관계를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뜻 깊은 올해를 옹군애민사상 만세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는 군민대행진의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활짝 꽃 피워 나가야 한다.

우리 식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장구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이다. 우리 제도제일주의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생이 어려 있는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려는 애국의 열정이 높뛰고 있다. 우리 사상, 우리 군대제일주의를 하자는것도 결국은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더 높이 발양시키자는데 있다.

현 시기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이다.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민족최대의 명절을 빛내이자≫는 구호를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일으켜 나가야 한다.

우리의 자립경제의 현실적요구와 전망에 맞게 채취공업발전에 계속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경제건설의 주공전선으로 틀어 쥐고 이 부문에서부터 경제적앙양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야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우리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한다. 황해남도의 토지정리와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질적으로 끝내야 한다.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은 인민생활에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인민적인것, 대중적인것을 우선시하고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올해 우리는 새로 꾸려 진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의 위력을 적극 발양시켜 인민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여야 한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 나가야 한다.

변화된 환경과 우리 혁명실천은 경제관리를 혁명적으로 개선완성하는것을 절박한 요구로 제기하고 있다.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게 하는것, 이것이 우리 당이 내세우고 있는 사회주의경제관리완성의 기본방향이다. 주체적인 계획경제관리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를 확고히 보장하면서 아래단위의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옳게 구현하며 사회적시책을 바로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자면 과학기술과 교육사업발전에 전 국가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

나라의 륭성번영은 과학기술과 인재에 의하여 안받침된다. 우리는 공업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부터 하나씩 착실하게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을 전반적으로 빨리 발전시키면서 특히 정보기술과 정보산업발전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인재중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실력 있는 첨단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 내야 한다.

올해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자면 온 사회를 혁명적분위기로 들끓게 하기 위한 일대 정치사상공세를 벌리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전환적계기마다 비상히 앙양된 정치적열의를 안고 한결같이 일떠서는것은 우리 인민의 전통적

기질이다. 1950년대에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뚫고 불 타는 강도 건느던 그 불굴의 정신, 재더미를 헤치고 천리마대고조를 일으키던 그 혁명적기백이 온 나라에 맥박치게 하여야 한다.

격동하는 오늘의 현실은 라남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번질것을 요구한다. 창조와 혁신으로 약동하는 사회주의건설장마다에는 더 높이, 더 빨리 내달리려는 라남의 대담한 공격정신과 백번 천번 다시 일어 나 기어이 목표를 점령해 나가는 라남의 혁명적인 일본새가 차넘쳐야 한다. 누구나 다 낡은 틀, 고정격식화된 재래식방법에서 벗어 나 모든 문제를 혁신적안목에서 보고 통이 크게 일판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 지도일군들은 강한 장악력, 통제력, 집행력을 지닌 손탁이 센 일군, ≪우리≫라는 고귀한 칭호와 함께 불리우는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여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의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위훈과 기적을 창조함으로써 최고사령관의 가장 활력 있는 전투부대, 별동대로서의 영예를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오늘의 대진군은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계승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빛나는 계승속에 혁신이 있고 미래가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오래동안 조선혁명을 령도하시면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고 혁명과 건설을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 혁명전사들의 심장속에는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당사업과 문학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당의 기초를 축성하던 그때의 순결한 혁명정신이 맥박쳐야 한다. **김정일**동지께서 이미전에 내놓으신 종자론과 속도전의 방침을 비롯한 독창적인 사상리론들을 일관성 있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의 전투적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강성대국건설의 총 진군을 힘 있게 다그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이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의 인덕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전체 인민들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 세우고 우리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튼튼히 꾸려 나가야 한다. 당사상사업의 모든 화력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일성**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도록 하는데로 집중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경제사업에서 3위1체를 확고히 보장하여 새로운 생산적앙양이 일어 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진격명령은 내렸다. 당과 수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고난의 행군≫속에서 억세여 진 **김정일**장군의 혁명전사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칠 때는 왔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를 활화산처럼 분출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영웅적위훈을 창조함으로써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일대 비약의 해,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의의 깊은 해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는 민족자주의 기치밑에 조국통일의 결정적국면을 열어 나가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은 오늘도 래일도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다. 강렬한 통일열망을 안고 투쟁하여 온 지난해의 교훈은 북남공동선언리행에 민족자주통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것을 보여 주고 있다.

민족자주통일의 지름길은 6. 15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옳게 구현해 나가는데 있다. 북남공동선언의 기본정신은 조국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북과 남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것이다. 온 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자주통일의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모든것을 민족공동의 리익에 복종시키며 사대와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할것을 노린 ≪주적≫론을 철회하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외세에 민족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반역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단호히 배격하여야 한다. 6. 15북남공동선언을 옹호고수하는 사람은 애국자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거세하는 사람은 민족반역자이다. 우리 민족은 공동선언을 말살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북남관계가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나아가도록 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평화를 보장하고 민족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하고 전쟁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 ≪반테로≫의 명목밑에 감행되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의 반공화국, 반통일책동으로 말미암아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긴장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새 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 가고 있는 정세하에서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해 생각할수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호전세력들의 침략과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떨쳐 나서야 할것이다. 제국주의호전계층들은 우리 민족의 드팀 없는 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대조선고립압살기도를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조국통일의 전진도상에는 난관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에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절대로 가로 막을수 없다. 온 세계가 우러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모시고 있고 옳바른 민족통일강령이 있는 한 조국통일위업은 반드시 성취될것이다.

백두의 혈통을 이어 나가는 조선혁명의 미래는 끝없이 창창하다.

백두산3대장군이 추켜 든 혁명의 붉은기가 우리 혁명대오의 진두에 휘날리고 있고 백두의 혁명정신이 우리를 막을수 없는 힘으로 떠밀어 주고 있다. 영광스러운 백승의 력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장군별, 백두광명성을 우러르며 헤쳐 온 혁명의 천만리길을 꿋꿋이 이어 나갈것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온다 하여도 우리의 사상, 우리의 제도, 우리의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해 나갈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대국의 희망찬 미래를 내다보며 사회주의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자.

21세기의 태양이신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서 솟아오른 장쾌한 해돋이가 제주도 끝까지 온 삼천리강토를 밝히며 불러오는 희망찬 새해의 이 아침,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운명이시며 자주시대의 위대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와 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진감하며 격동속에 저물어 간 2001년은 위대한 선군혁명영도의 찬연한 빛발아래 연속 경이적인 사변들이 일어나 전 인류가 끝없는 환희와 감격으로 설레인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해였으며 조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붉은 기 진군으로 세기적인 기적과 위훈을 높이 떨친 주체조선의 해였습니다.

지난해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화국에 대한 20여일간에 걸치는 5만여리의 대장정으로 민족의 융성번영과 인류의 자주화위업에 만고불멸의 공헌을 하시어 만민의 폭풍같은 경모의 열기와 아낌없는 찬사를 불러일으킨 세계사적 대사변으로 아로새겨져 더욱 빛나는 해였습니다.

위대한 정치가이시며 영도의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지난해 몸소 사회주의 붉은 기 진군의 진두에 서시어 탁월한 영도로 조국북반부에서 21세기의 첫 해를 강성대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자랑찬 진격의 해, 거창한 전변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는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지난 해 정초부터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사업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낮과 밤을 이어가시며 온 나라에 라남의 봉화를 지펴주시어 선군시대에 혁명적 대고조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주심으로써 자주로 존엄높고 단결로 승리하며 애국애족으로 번영하는 **김일성**민족의 불굴의 기상과 주체조선의 위용을 힘있게 떨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반테러전쟁의 구실밑에 덤벼드는 제국주의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었으며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주체조선을 사회주의 맛이 나게 새롭게 일신시키는 천지개벽의 새 역사를 창조하시어 민중생활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거창한 전변의 세기, 창조의 세기를 펼쳐주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희세의 선군영도가 있기에 지난해 이북민중은 제국주의의 도전을 물리치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황해남도 토지정리사업과 개천-태성호물길공사를 비롯한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일심단결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현대적 공장들과 대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연이어 일떠세워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위대한 승리자로 되었습니다.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심으로하여 오늘 조국북반부의 군민은 총폭탄 영웅, 자폭용사로 우리 힘 당할 자, 이 세상에 없다는 든든한 배심과 불변의 의지로 강성대국건설의 영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로 승승장구하는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지난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건립하시어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를 어버이수령님의 통일유훈관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는 불멸의 공적을 쌓으셨습니다.

애국애족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우리 남녘민중에게 주실수 있는 그 모든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으며 내외분열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조국통일운동이 전민족적 운동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역사적 전환기를 열어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출위인상에 끝없이 매혹된 우리 남녘민중은 장군님에 대한 전례없는 숭배열기를 드높여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짓부수고 분단사상 처음으로 이북동포들과 손잡고 남북노동자통일대회와 농민통일대회,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을 대성황리에 진행하여 지난해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였습니다.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들에 명쾌한 해답을 주시고 평화와 안정을 지켜주시며 새 세기 진보적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의 길로 나가는 것은 오늘 세계적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러 칭송하는 만민의 충성의 송가는 우주에 차넘치고 평양을 찾아가는 동서방의 행렬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체조선은 세계정치발전을 주도하는 정치강국으로, 자주위업의 사령탑으로 되였습니다.

21세기의 첫 해를 세인을 경탄시키는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게 장식한 그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특출한 선군영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입니다.

참말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겨레와 인류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빛내어주시는 세계정치원로이시고 걸출한 수령이시며 21세기의 태양이십니다.

새 세기의 앞날을 낙관하는 격동적인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특출한 정치실력과 정력적인 활동으로 쌓으신 영세불후의 업적은 우리 민중에게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불퇴전의 용맹을 백배해주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모시어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며 우리 민족의 전도는 양양합니다. 새해는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영광 빛나는 새 세기의 두번째 해이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며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 조선인민군창건 70돌을 맞는 뜻깊은 역사적 해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유훈관철을 위한 투쟁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올해 태양절을 자주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대경사로, 온 민족과 인류공동의 최대의 축제로 빛내이며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새해에 우리들은 백전백승의 주체의 기치를 더높이 치켜들고 한민전과 변혁운동대오의 주체사상화와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굳게 믿고 따르는 각계 민중의 숭배열기가 온 남녘땅에 대하로 굽이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운명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경주하여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거센 열풍으로 올해를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겠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건강과 행복은 조국통일과 주체의 위업완성의 결정적 담보이며 민족과 인류의 한결같은 염원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원히 젊음에 넘쳐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1월 1일
서울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주체위업의 계승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하여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만고절세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것은 우리 겨레가 받아안은 민족적 대경사였으며 주체위업완성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 영장의 슬기와 풍모를 천품으로 타고나신 천출명장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백두광명성으로 탄생하시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동지의 품속에서 일제 격멸의 총성을 들으시며 주체위업완성의 큰뜻을 키우셨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이자 위대한 공산주의 혁명투사 김정숙동지의 탄생 84돌을 맞는 우리들은 경모하는 어머님의 한생을 감회깊이 되새겨봅니다.

항일의 여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의 혁명생애는 어버이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시어 역사에 기리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충신,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어머니의 영광찬란한 한생입니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일찌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정숙동지께서는 항일혈전의 장구한 나날 백두의 여장군으로 명성을 떨치시며 수령님의 신변을 한몸바쳐 보위하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노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며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전통을 창조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는 광복후에도 어버이수령님의 가장 충실한 동지, 방조자가 되시어 주체적인 건당, 건국, 건군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셨습니다. 더욱이 위대한 김정숙동지께서 주체위업의 찬란한 미래를 안아 키우시어 **김일성**민족의 가슴마다에 영원한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행운을 안겨주시고 **김일성**조선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도아래 승승장구하는 주체의 새 시대를 확고히 마련해주신 것은 영원무궁토록 기리 빛날 특기할 대공적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뜻을 이으시어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며 주체의 군건설역사에 만고불멸할 고귀한 업적을 높이 쌓아올리신 노숙하고 세련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십니다.

정치와 군사의 영재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총대로 개척하신 주체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시고 선군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어 조선인민군을 일당백의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발전시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가 있으므로 하여 조선인민군은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최고사령관을 결사옹위해 나가는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위용 떨치게 되였습니다.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극도에 이른 엄혹한 정세속에서 조국과 민족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견결히 수호하시며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승리적으로 단행하여 강성부흥조국건설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민족사적 대공적입니다.

더욱이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인류사에 있어본 적 없는 특유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를 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부대들을 쉼없이 현지시찰하시며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군대와 민중을 새 세기의 기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는 거룩한 혁명실록을 수놓아 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독창적인 선군혁명영도가 있으므로 하여 인민군대는 조국과 민족의 수호자, 민중의 행복의 창조자,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주력부대로 로동당시대의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들을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주체의 조국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라남의 봉화≫따라 인민군대에서 창조된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혁명적 군인정신, 영웅적 기상이 나래치며 온 나라가 패기와 낭만에 넘쳐 약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대와 같이 사상정신적으로 위력하고 군사기술적으로 막강하며 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군대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참으로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님은 주체적인 군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강성민족의 대화원을 펼치시며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영수의 불후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명장중의 명장이시며 만민이 세계평화와 안전의 수호자로 우러러 칭송하는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이십니다.

지금 한민전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의 애국민중은 대승의 지략과 강철의 담력, 주체의 전법과 만능의 영군술로 천하대적을 발밑에 굽어보시며 쥐락펴락하시는 희세의 명장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수호의 최정상에 높이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조국통일도 이룩되고 강성민족으로 복락할 그날도 멀지 않았음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 남녘민중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영도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마련하시어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주시고 온 겨레를 현명하게 이끄시기에 조국통일은 확정적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은 곧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이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실현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21세기를 조국통일의 세기, 장군님의 세기로 빛나게 장식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행복은 남녘민중의 간절한 소원이며 통일부강조국건설의 확고한 담보입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층 민중의 일치한 소망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 계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0 (2001)년 12월 24일
서울

2001년 10대뉴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9일～30일

≪구국의 소리≫방송 편집국은 2001년 10대 뉴스를 다음과 같이 선정했습니다. 올해 10대 뉴스는 남북관계와 국내에서 있었던 특기할 일들 가운데서 선정했습니다.

1.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고 정주영씨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오셨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3월 24일 정주영 전 현대그룹명예회장의 사망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 고인의 영전에 화환을 보내오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오신 화환을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송호경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의대표단이 고인의 영전에 진정했습니다.

대표단단장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정주영씨의 사망과 관련해 하신 위로의 말씀을 유가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유족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조전을 보내주시고 조의대표단까지 파견해주신데 대해 감동을 금치 못하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표단 단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주영씨에게 베푸신 친어버이의 사랑은 전체기업인들을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통일의 길에 적극 나서게 하는 커다란 추동력으로 됐으며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통일의 태양이시라는 것을 절감하게 했습니다.

2.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연자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4월 11일 함남 함흥시에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초청된 가수 김연자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공연이 끝난뒤 꽃바구니를 전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날 김연자일행을 접견하시고 만찬을 함께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김연자씨에게 평양으로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라고 큰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연자씨에게 베푸신 극진한 사랑과 배려는 한국 연예인들을 비롯한 각계민중들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그들속에서 장군님에 대한 경모심을 더욱 높이게 했습니다.

3. 남북노동자대회와 남북농민대회진행

5월 1일 금강산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대회에는 남측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표단,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대표단 등 1천여명이 참가해 6.15공동선언을 실천할 의지를 다졌습니다.



금강산에서는 또 7월 18일과 7월 19일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도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금강산에서 통일대회들을 진행한 것은 분단이후 처음 있은 민족사적 쾌거로써 조국통일운동에 노동자, 농민들이 주력군으로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 민족통일대토론회 진행

6월 15일 금강산에서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돐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분단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해외의 정당, 단체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따라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민족통일대토론회는 조국통일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려는 온 겨레의 의지와 통일열망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5. 평양에서 8.15민족통일대축전 거행

새 세기의 첫 광복절을 맞으며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는 남과 북, 해외의 광범위한 정당단체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이 거행됐습니다.

민족통일대축전에는 남측에서만도 220여개 정당단체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축전참가자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더 힘있게 벌여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것을 일치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이 만경대방명록 등을 문제삼아 일부 인사들을 구속하는 등 민족의 드높은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어 온 겨레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8.15민족통일대축전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고 우리 겨레의 굳센 통일의지를 전세계에 과시한 대회였으며 역사에 기록될 민족적 대회합이였습니다.

6.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



제3차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동안 진행됐습니다.

남과 북의 이산가족들은 서울과 평양에서 가족친척들과 감격적으로 상봉하고 50여년 세월 쌓이고 쌓인 회포를 나누었습니다.

이남에 있는 가족친척들은 월북한 사람들이 간부, 과학자, 작가 등으로 자라난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또 평양에 가서 가족친척들을 만난 월남자들은 북에 있는 가족친척들이 아무런 차별을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감동을 금치 못해 했습니다.

방문단성원들과 가족친척들은 만남의 기회를 또다시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군님의 광폭정치를 높이 찬양했습니다.

7.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성사와 6차회담 결렬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키고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남측이 외국에서의 테러사건을 구실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고 정세를 격화시키는 등 6.15공동선언정신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행위를 해서 이산가족방문단 등 5차 회담합의사항이행이 중단됐습니다.

5차 회담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6차 회담이 11월 9일부터 금강산에서 열렸으나 남측이 실무자급에서 합의한 문안들을 뒤집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6차 회담은 결렬됐습니다. 이로인해 남북대화는 중단상태에 빠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추종하는 당국의 반북책동으로 정세는 극도로 긴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누가 화해와 협력, 단합과 통일을 원하고 누가 이를 반대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8. 대규모 전국민중대회

12월 2일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대의 주최로 쌀수입개방반대, 신자유주의구조조정저지, 민중생존권쟁취, 반전평화, 미국반대 전국민중대회가 거행됐습니다.

대회에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영호남지역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학생대표 등 3만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참가자들은 반민중, 반민주세력에 의해 고통받는 민중들이 단결해야만 생존권도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도 쟁취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민중의 불행과 고통의 근본주범은 미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 땅에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반민족, 반통일세력들을 제거함으로써 민주민권과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앞당겨 이룩하려는 국민의 굳은 의지를 다시한번 확인한 대회였습니다.

9.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반대투쟁

지난 4월 9일 전국연합과 민주노총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이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반대와 요격미사일시험규탄, 미국무장관방한반대, 미군기지반환, 미군주둔비증액과 아프가니스탄파병반대 등을 주장하며 용산 미군기지앞 등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시위를 완강하게 벌여왔습니다.

특히 공대위 관계자 400여명은 7월 27일 미국무장관 파월의 방한을 규탄하는 대회를 갖고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전국연합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행하는 세계 제일의 깡패국가 미국무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거부했습니다.

올들어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반미투쟁은 부시정권의 대북강경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일대 타격으로 됩니다.



10. 일본총리 고이즈미방한반대투쟁

10월 15일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한국행각을 반대하는 투쟁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강력히 진행됐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민주노동당 등 정당단체들은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맞추어 전국 곳곳에서 반일집회를 열고 일장기를 불태우며 고이즈미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한뒤 가두시위를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고이즈미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군국주의부활 등을 규탄하며 과거의 식민지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전국민의 강력한 반일투쟁에 질겁한 고이즈미는 국회방문일정을 취소하고 본국으로 뺑소니쳤습니다.

고이즈미는 우리 국민의 반일감정을 무마하고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려고 날아들었다가 오히려 큰 타격을 받고 쫓겨가는 망신을 당했습니다.

2001년 노동운동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7일~28일



우리 나라 24절기중에 마지막으로 되는 동지가 지났는데요. 결국 이 해의 마지막 언덕에 서게 된거죠. 지금 세말의 언덕에 선 우리 노동대중의 가슴은 이 해도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주력군으로 힘차게 싸워왔다는 남다른 자긍심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낸 노동운동을 돌이켜보려고 하는데요. 윤정원씨 모셨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우리 노동대중이 굳센 투쟁결의를 다지면서 새 세기 첫해의 걸음을 힘차게 내디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말의 언덕에서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 보게 되는군요. 그럼 이 시간에는 올해 노동운동에서 어떤 결실들이 이루어졌고 또 그 과정에 체득한 경험과 교훈은 어떤 것들이였는지에 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윤정원 : 올해 노동운동에서는 새 세기 첫해에 걸맞게 알찬 열매들이 이루어진 긍지높은 한해였다고 말할수 있겠죠.
사회자 : 올해 노동운동을 살펴보면 그 어느해보다 운동이 활성화돼서 투쟁과 투쟁이 연속된 자랑찬 한해였다고 하겠죠. 총적으로 한걸음 크게 내디딘 올해 노동운동을 보면 그 특징이랄까 그 주목되는 점을 어떻게 찾아볼수 있겠는지 좀 말씀해주시죠.
윤정원 : 먼저 올해 노동운동을 보면 우리 민중의 전반적 대중운동에서 기본 주류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게 된다고봅니다. 아시다시피 해를 넘기며 벌어진 대우차, 한국통신, **산업, 과학기술노동조합들의 생존권쟁취투쟁은 악덕업체들의 일방적인 대량해고**로 올해 노동운동의 ***로 됐죠. 이들의 투쟁이 경향각지의 사업장들에 1차, 2차 연대총파업으로 이어져 급속히 파급이 됐고 공안당국의 유혈적인 노동탄압 행위가 무분별해지는 가운데 전국적 범위의 대중적인 투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사회자 : 지난 5월 1일 금강산에서 남북노동자통일대축제로 남북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통일운동의 포문을 연 우리 노동자들은 6.15공동선언발표1돌기념 민족대토론회와 그 뒤를 이은 8.15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통해서 올해 통일운동의 주도세력으로써의 위상을 뚜렷이 실증해주었다고 봅니다.
윤정원 : 그렇습니다. 이밖에도 국가보안법과 이회창과 같은 극우익반통일분자들, 반통일매문지인 조선일보매장투쟁들에서 노동대중이 주력을 이루었기에 올해 노동운동이 보다 활성화됐다고 봅니다. 이런 사례들은 지난 시기의 대중운동이 주로 청년학생들에 의해 선각되고 주도됐다면 올해 전반적 대중운동은 노동대중이 주력이 되어 이끌어왔다는 것 이걸 들 수 있잖아요. 올해 우리 노동대중이 노동자가 나서야 민중생존권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도,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고 투쟁에 진출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 거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리고 올해 노동운동을 돌이켜볼 때 눈에 띄게 질적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이 올해 노동운동에서 찾아보게 되는 또 하나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민중생존권쟁취투쟁만 보더라도 올해 노동운동에서는 한 계단 질적인 도약을 가져왔잖아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6월과 7월에 있은 연대파업투쟁과 10월 10일 전국적인 동시다발집회, 2001년 전국노동자대회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올해 우리 노동대중은 지난 시기의 근시안적인 생존권쟁취에서 벗어나서 그 근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의 민주화실현투쟁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왔습니다. 올해 우리 노동대중은 대한항공에 이어 아시아나 항공조종사노조의 합법화를 쟁취했고 전국철도민주노조를 새롭게 내왔죠. 그리고 무노조신화로 유명했던 삼성그룹에 그룹차원의 노조를 처음으로 결성을 했고 전국공무원노조결성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 우리 노동운동의 노동자의 권리쟁취와 사회의 민주화투쟁에서 이룩한 자랑할만한 성과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사회자 : 이같은 사실들은 올해 노동운동이 새 세기 새로운 역사적 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민주화운동방향에 정확히 들어섰다는걸 의미하잖아요. 지난 시기에 투쟁과정을 통해서 올해 우리 노동대중이 민주화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는 여기에 민중생존권을 비롯한 민중의 **을 쟁취하고 노동해방의 그 날을 앞당겨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노동운동에서 질적인 발전을 이루어졌다는 건 노동운동에서의 반미투쟁이 종전의 선언적 투쟁에서 실천투쟁으로 발전하고 또 노동자생존권투쟁이 반미자주화투쟁으로 지향된 것이라고 봅니다.
윤정원 : 지난 시기 노동운동권의 일부 선각자위주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했던 반미투쟁이 올해는 모든 노동자들에 자기 삶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문제로 인식되면서 노동대중이 실천투쟁에 나섰거든요. 연초부터 노동대중은 서울, 대구,



제주 등 경향 각지에서 신자유주의구조조정분쇄, 미국반대투쟁결의대회를 연이어 개최한데 이어서 지난 6월 대구에 있는 미군기지앞에서 주한미군철거 등 반미구호를 외치며 성조기화형식을 단행했거든요. 이런 투쟁들은 예년에는 찾아보기 드물었던 것 아닙니까.

사회자 : 그렇죠. 올해 노동대중은 우리 민중의 삶을 파탄시키는 근원을 바로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정치적 예속 그리고 경제적 약탈로 이어지는 식민지지배에서 찾고 이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근로민중의 삶이 조금도 달라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죠. 결국 위에서 언급한 것들을 음미해본다면 올해 노동대중의 반미의식구조에서도 질적 변화가 일어났고 반미투쟁이 노동운동의 실천투쟁으로 전면화되면서 질적인 발전을 이룩했다는 거군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질적 발전을 이루면서 한걸음 크게 내디딘 노동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노동대중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도 응당 평가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노동대중은 노동자계급이 시대의 선두자, 조국통일의 기관차가 될 것을 각계에 요구하는 새 세기 민족자주통일시대의 요구에 걸맞게 자기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노동대중은 올해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어느 운동단체들보다 앞서 민족의 명산 금강산에서 남북의 노동단체들간의 통일대토론회와 5.1절 통일대축제를 진행했죠.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와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들에서도 노동자계급은 민족자주통일의 주역으로 나선 자기의 당당한 모습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지난 시기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는 있었지만 올해처럼 노동자계급이 직접 통일한마당을 개최하고 남북노동자가 서로 어울려서 함께 통일축제를 가진 적은 없었어요. 이것만 봐도 올해 노동운동에서는 큰 질적 발전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는거죠.

사회자 : 정말 옳은 말씀이세요. 이 모든 성과들은 올해 우리 노동대중이 통일문제를 ***만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실천투쟁에서 주역이라는 자각을 비상히 높였기 때문에 이룩된 것이라고 하겠죠. 정말 이 해는 노동대중이 주인되는 민주의 새 사회, 자주의 새 세상, 통일의 새 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줄기찬 투쟁으로 날과 달을 이어온 한해였습니다. 우리 노동운동사에 빛날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한 한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한해는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1300만 노동자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앞에서 다 언급이 됐습다만 올해 노동운동에서 이룩된 질, 양적인 성장발전으로해서 노동대중이 우리 민중의 전반적 대중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보는데요. 이건 *****가 공동투쟁과 합법적인 투쟁공간을 잘 활용해서 투쟁방향과 구호를 제시하고 올바른 지도를 뒷받침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노동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자고 해도 그렇고 또 자기 성찰의 견지에서 볼때 올해 노동운동에서는 아쉽게 생각되는 점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윤정원 : 제 생각에는 많은 성과를 이룩한 올해 노동운동을 돌이켜볼때 옥의 티라고 할까 그냥 스쳐버릴수 없는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봐져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특징에 관해서 얘기를 할때 단결력과 투쟁력 그리고 한번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보고야마는 지구력과 결단성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노동운동에서는 이런 노동자의 기질을 충분히 발현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민주민권쟁취에 나선 노동자대중의 투쟁을 얼마나 유혈적으로 탄압했어요. 이런 무분별적인 탄압공세에 노동대중은 주동적인 투쟁공세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차와 전국건설운동 노동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행위와 공안당국이 잔여형기와 추가기소는 없다고 당초 약속을 뒤집고 민주노총 단위원장을 재수감했을 때도 노동대중이 공안당국의 노동탄압행위에 맞서 완강한 투쟁공세를 펴나가야 했으나 일반적인 항의나 간헐적인 투쟁에 머무르고마는 피동적인 자세******.

사회자 :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노동운동이 확고한 의지속에서 대중적인 투쟁을 벌여나가지 못한 것과 여러 투쟁들이 도중에 흐지부지되는 *****. 1차, 2차 연대파업********대단했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이룰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벌일 대신에 당면한 성과에 도취돼서 도중에 중도반단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민중생존권쟁취나 노동운동탄압중단, 사회의 민주화실현투쟁들에서도 끝을 보지 못하는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게 된건 아쉬웠던 점의 하나라고 봅니다.

윤정원 :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노동운동에 대한 공동연대연합투쟁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대연합을 *******있었다고 봐요. 올해 노동운동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노총의 공동투쟁을 노동대중********* 투쟁들이 하나의 박자에 맞춰 ***벌여나가지 못하고 단결된 힘으로 자본과 공권력의 탄압에 **해 나가는데서도 어려움을 겪지 *******.

사회자 : 노동자대중은 올해 노동운동을 결산하면서 이같이 귀중한 경험과 교훈들을 ****. 새해 민중생존권쟁취를 비롯한 사회의 민주화와 반미자주화, 조국통일실현투쟁에서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중임을 다해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올해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낸 노동운동을 돌이켜봤습니다.

2001년 청년학생운동

조연택 / 구국전선 제463호 주체90(2001)년 12월 21일

자주, 민주,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21세기 첫해인 올해 정의에 과감하고 애국애족에 투철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결연히 분기하여 학생운동을 힘차게 전진시켜 왔다.

올해 청년학생들은 유례없는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는 속에서도 합법적 공간을 통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공안당국은 학생운동을 근원적으로 말살하기 위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매도하면서 탄압과 폭압의 도수를 높여 왔다.

그러나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총칼탄압과 회유기만에도 한총련을 고수하고 그 조직력과 단결력, 전투력을 일층 강화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정초부터 몰아친 공안당국의 학생운동말살한파는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렸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탈퇴를 종용하는 통보문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인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파쇼탄압과 회유기만책동이 끊기지 않고 자행됐다.

그런 탄압 속에서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규씨, 남총련 제10기 의장 최종은씨 등 수많은 한총련대의원들과 애국학생들이 철창 속으로 끌려 갔다.

그러나 그 어떤 탄압책동도 학생운동의 합법화를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는 꺾지 못했다.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한총련의 위상과 기개를 과시하기 위한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다.

지난 2월1일부터 진행된 남총련소속 청년학생들의 단식농성과 5월2일에 발표된 한총련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중 그 어디서나 울려 나왔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정초부터 합법적 공간을 이용하여 희세의 반통일, 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왔다.

이와 함께 ≪집시법≫개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록금인상반대, 민주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중지, 양심수석방 등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반민주적 행위와 제도적 장치들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을 벌였다.

민주화투쟁의 선봉대로서 불굴의 기개를 떨치며





청년학생들은 공안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지난 4월6일에는 9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6월3일에는 9기 한총련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것은 한총련을 고수하고 학생운동을 자주, 민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려는 청년학생들의 불굴의 애국적 의지와 결심을 남김없이 발휘한 애국적 장거라 하겠다.

올해는 청년학생들이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을 앞장에서 이끌어온 투쟁과 전진의 나날이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의 기치 드높이 자주로운 새 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 1월10일 반미투쟁선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새 세기 장엄한 투쟁의 첫 자국을 내디뎠다.

이어 3월18일과 5월3일 한총련이 반미투쟁호소문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미투쟁의 불길은 쉬임없이 타올랐다.

특히 4월18일부터 5월18일까지 전개된 반미구국단식단투쟁과 8월6일부터 20일까지 백악관 앞에서 벌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반미의지를 과시한 일대 시위였다.

참으로 우리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각계민중을 반미항전에 궐기시키고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분쇄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2001년은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 통일운동의 선봉장의 중임을 다해온 투쟁과 헌신의 나날이기도 했다.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할 의지를 안고 반미성전에 과감히 분기하는 한편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과의 일대 전면전을 벌여 왔다.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지향은 더없이 숭고하고 깨끗한 것이었다.

그 지향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안아 왔다.

그 지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고려대학교 구내에 주체사상탑을 본따 만든 모형탑을 세우고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에 인공기를 게양하여 기념했다.

그리고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평양에서 열린 2001년민족통일대축전에도 참가해 한총련의 위상을 과시했다.

지난 1월26일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복한 국방부의 반민족적인 공격용 헬기구입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서총련의 성명은 분열주의, 반통일세력을 끝까지 징벌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그 의지는 2월19일 ≪국가보안법≫폐지를 요구하여 한총련 중앙위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도 담겨져 있었고 ≪30일 반미구국단식단≫이 치켜들었던 투쟁구호들에도 비껴 있었다.

그 의지에 받들려 9월7일에는 통일의 원수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이 열렸고 수구반통일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대학가와 경향각지를 휩쓸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 운동단체들과의 단합을 강화하고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벌인 것은 올해 학생운동이 승리를 이룩할 수 있은 중요한 비결의 하나이다.

올해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단합의 표대는 6.15공동선언이였다.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단체와는 언제나 손잡고 나갈 것이다.≫이같은 지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3월15일 3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일연대≫결성식에도 참여했고 6월3일 40여개 학생, 시민단체들과 ≪6.15공동선언실천 범국민대회≫도 가졌다.

그리고 8.15에는 민화협, 통일연대 온 겨레손잡기운동본부 등 재야 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뿐이 아니라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6월과 7월에 벌어진 민주노총의 1차, 2차 연대파업, ≪신자유주의 개방농정반대≫ 등 민주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대오에는 언제나 청년학생들이 함께 서있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농운동을 비롯한 당국의 민주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각계민중의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한총련에 각계민중은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3백1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한총련 합법화 및 한총련 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뭇고 9기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한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을 보는 각계민중의 시각을 잘알 수 있다.

참으로 올해 청년학생운동이 거둔 성과는 자못 크며 괄목할만한 것이다.

이 해를 빛나게 장식한 우리 청년학생들은 민족의 자주적 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 새겨질 희망찬 새해 2002년에 조국과 민중의 아들딸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여야 할 것이다.

2001년 학생운동을 점검해본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7일～28일

이 시간에는 ≪2001년 학생운동을 점검해본다≫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민주통일운동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질 희망찬 새해 2002년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지금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은 지난 1년간의 투쟁경로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마음의 **매를 더욱 단단히 조여매고 있습니다.

올해 청년학생운동을 두고 일부에서는 대중의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움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역시 청년학생들이 대중투쟁의 선봉장으로써 열혈의 심장을 터치며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학생들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로 마련된 합법적 공간을 이용해서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올해 정초부터 희세의 파쇼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을 줄기차게 전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시법개정과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철회, 등록금인상반대, 학생운동탄압반대 등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온갖 반민주적 폭거와 제도적 장치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완강히 벌였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정초부터 몰아친 당국의 학생운동말살한파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그 한파속에 건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배민균씨, 남총련 10기 의장 최종은씨 등 수많은 애국학생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5월 교육인적자원부가 각 대학에 한총련탈퇴를 종용하는 통고문을 보내고 검찰과 경찰이 한총련지도부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을 벌인 것과 같은 구시대적인 물리적 탄압과 함께 회유기만책동도 끊기지 않고 자행됐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으로써도 청년학생들의 투쟁의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당국의 학생운동탄압책동에 반격을 가하고 한총련의 위상과 기개를 과시하기 위한 열풍이 힘있게 몰아쳤습니다. 2월 1일부터 진행된 남총련소속 청년학생들의 단식농성입장과 5월 2일에 발표에 발표된 한총련의 기자회견문을 비롯해서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그 어디서나 울려나왔습니다. 당국이 애국학생들을 연행했을 때에는 국가보안법철폐와 구속학우석방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한총련의 존엄을 지켜온 청년학생들이였습니다. 그 불굴의 기개로 청년학생들은 당국의 탄압을 박차고 4월 6일에는 9기 한총련대의원대회를, 5월 3일에는 9기 한총련출범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청년학생들은 꺽이면 꺽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불굴의 기개와 용맹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했습니다.

2001년은 청년학생들이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자주통일운동의 선봉장의 중임을 다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온 나날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지향은 더없이 숭고하고 깨끗한 것이였습니다. 그 지향은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기 위한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결의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안아왔습니다.

우리의 미덥고 장한 청년학생들은 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고려대학교 구내에 주체사상탑을 본따 만든 모형탑을 세우고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들에 인공기를 게양하여 휘날렸습니다. 또한 금강산에서 열린 민족통일대토론회와 평양에서 열린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도 참가하여 남북청년학생들의 연대연합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대단결흐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할 의지에 충만된 청년학생들은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반통일세력과의 일대 전면전을 벌여왔습니다.

지난 1월 26일 미국의 무기강매압력에 굴복한 국방부의 반민족적인 공격용헬기구입책동을 규탄하여 발표한 서총련의 성명은 분열주의세력을 끝까지 징벌하려는 청년학생들의 의지를 선언한 것이였습니다. 그 의지는 올해 2월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여 한총련 중앙위원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도 비껴 있었고 이회창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남총련의 결의대회에서도 울려나왔습니다. 그 의지에 받들려 5월 7일에는 민족자주통일을 한사코 반대해 나서는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의 포문이 열렸고 수구반통일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구독거부운동이 대학가와 경향각지를 휩쓸었습니다.

≪한총련이 조국과 민족의 부름앞에 주저없이 나설수 있는 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맞으며 한총련이 발표한 성명의 한 구절입니다. 21세기 통일이정표인 6.15공동선언발표 1돌이 되는 올해에 기필코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마련해야겠기에 청년학생들은 그 어느때에 비할바 없는 투쟁의 불길을 거세게 지펴온 것입니다.

올해 청년학생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투쟁을 반미투쟁과 밀착시켜 힘차게 벌여나갔습니다. 청년학생들은 ≪반미자주의 기치 드높이 자주로운 새 세기의 진격로를 개척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지난 1월 10일 반미투쟁선포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새 세기 첫해 반미투쟁의 첫자국을 내디뎠습니다. 이어 3월 18일과 5월 3일 한총련이 반미투쟁 호소문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을 비롯해서 청년학생들이 지펴올린 반미투쟁의 불길은 쉼없이 타올랐습니다. 특히 4월 18일부터 5월 18일까지 전개된 반미구국단식단투쟁과 8월 6일부터 20일까지 백악관앞에서 벌인 한총련과 범청학련 남측본부 대표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청년학생들의 반미의지를 과시한 일대시위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미국의 강도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철회와 용산미군기지내 아파트건설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정초부터 연말까지 가열차게 벌어진 청년학생들의 반미투쟁은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정책과 반통일책동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각계민중을 반미투쟁에로 힘있게 선도했습니다.

올해 청년학생운동을 돌이켜볼때 학생운동이 각계운동단체들과의 단합을 강화하고 연대공동투쟁을 적극 벌인 것은 크게 평가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올해 청년학생들에게 있어서 단합의 표대는 6.15공동선언이였습니다. ≪6.15공동선언에 동의하는 단체와는 언제나 손잡고 나갈 것이다≫ 이같은 주장을 안고 청년학생들은 3월 15일 30여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일연대결성식에도 참여했고 또 6월 3일 40여개 학생시민단체들과 6.15공동선언실천범국민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8.15에는 민화협, 통일연대,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 등 재야시민단체들과 공동으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을 성대히 진행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구조조정반대, 대우자동차해외매각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6월과 7월에 벌어진 민주노총의 1차, 2차 연대파업, 신자유주의개방농정반대 등 민주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자, 농민들의 투쟁대오에는 언제나 우리 청년학생들이 함께 서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 청년학생들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당국의 민중운동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는 각계민중의 투쟁에 적극 지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총련에 각계민중은 지지와 연대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3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총련합법화 및 한총련출범식 안정적 성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뭇고 9기 한총련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보장을 촉구한 사실만으로도 학생운동을 보는 각계민중의 시각을 잘알수 있습니다.

학생운동조직이 옳은 투쟁방법과 전술을 구사하고 학생대중을 적극 불러일으킨 것 역시 올해 학생운동에서 평가할만한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올해와 같이 호소문, 성명과 같은 문서들이 수많이 발표된 적도 일찍이 없었습니다. 6.15공동선언을 방해하는 미국과 분열주의자들의 책동을 사사건건 폭로하는 문서들뿐만 아니라 노근리대학살만행의 진상을 왜곡발표한 미국의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과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화책동을 규탄하는 글 등 수많은 문서들은 불의에 타협없고 정의에 과감한 청년학생들의 정신과 기개를 남기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주통일 싹 자르는 미국놈들 막아내자≫, ≪외세공조 파괴하고 민족공조 구축하여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등 현실의 절박한 요청과 학생대중의 지향과 요구, 감정과 정서를 충분히 반영한 투쟁구호들을 제시하여 그들을 투쟁에 궐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이처럼 올해 학생운동이 거둔 성과는 자못 크며 괄목할만한 것입니다.

물론 한총련의 활동에는 반드시 극복해야할 사항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학생운동에서는 일단 시작한 투쟁을 끝장을 볼때까지 지속적으로 끈기있게 벌여나가지 못하고 있는 편향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한 반이회창투쟁이나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철회투쟁만 봐도 끝장을 볼때까지 더욱 확산 고조시켜 나가지 못하고 많은 경우 일회적 투쟁에 머물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운동의 대중화도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학생대중의 의식화와 조직화가 보다 높은 수준에서 끈기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운동의 대중화가 잘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쟁방법과 전술에서도 주어진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학생대중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돌출적인 투쟁방법들이 의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 반미자주화투쟁에서 선봉대로써의 숭고한 의무를 다해야할 우리 청년학생들이기에 자기 검토에 대해 주저하지 않으며 냉철한 자기성찰과정을 통해 결함들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랑으로 더욱 우뚝 솟을 것입니다.

대망의 해, 새해 2002년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새로운 투쟁과 위훈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백만 청년학생들은 올해에 이룩한 고귀한 투쟁경험과 교훈을 디딤돌 삼아 투쟁의지를 더욱 높여 승리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2001년 학생운동을 점검해 봤는데요.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시각 우리 청년학생들은 올해 학생운동을 자랑스럽게 결산하며 새로운 결의에 차넘쳐있어요. 우리 백만청년학생들은 새해에도 이 땅의 민주화와 민족자주통일, 반미자주화실현을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합니다.

2001 대중운동 무엇을 보여주었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6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절세위인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충정과 조국통일의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이 해 200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해의 영마루에서 우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지나온 나날들에서 가슴 벅찬 자긍심과 함께 경험과 교훈을 찾아봅니다.

올해는 자주민주통일운동에서 참으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한 해 였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대중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김현규씨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민중민족운동사에서 특기할 21세기 첫해를 돌이켜보면 참으로 올해는 대중운동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커다란 진전을 이룩한 자랑찬 한해였다고 긍지높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올해 대중운동에서 주목되는 문제점을 고찰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는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김현규 : 한마디로 말해서 올해는 민족분열 50여년만에 일찍이 있어보지 못한 겨레의 통일열망이 더욱 높아지고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을 위한 투쟁 그리고 반미투쟁이 보다 새로운 양상을 띠고 줄기차게 벌여져온 투쟁의 한해였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 대중운동에서 특기할 주목되는 점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속에서 줄기차게 전개되고 이 과정을 통해 통일운동이 그 어느때보다 광범위하게 벌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올해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로 빛내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주년과 6.15~8.15민족통일촉진운동기간을 통해서 정초부터 공동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각계층 민중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례없이 높아졌고 이와 동시에 통일연대, 실천연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등 수많은 통일운동단체들이 결성되어 통일운동의 대중화도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 옳은 말씀이십니다. 금강산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와 6.15공동선언발표 1돌기념 민족통일대토론회, 남북농민통일대회와 8.15민족통일대축전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보겠는데요. 이 과정에 이 땅의 각계민중은 북의 형제들과 만나 이해와 신뢰를 두터이했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실천적 방도를 찾고 겨레의 대단결을 이룩하는데서 커다란 진전을 거두었다고 봅니다.



김현규 : 그렇죠. 올해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조직전개하는 현장에서 통일의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열마든지 6.15공동선언을 실천할수 있고 가까운 시일내에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할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사회자 : 올해 대중운동단체들은 통일운동을 통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왔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습니다. 부시미행정부의 6.15공동선언실천방해책동과 이회창을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극우보수세력과 분열주의세력의 악랄한 반통일책동을 반대해서 대중운동단체들과 각계층민중은 격렬한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투쟁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대중운동이 보다 강화발전되고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자주통일지향이 막을수 없는 하나의 거세찬 흐름으로 돼왔던 겁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올해의 대중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이 더욱 힘차게 벌어져 온 것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요.

김현규 : 네, 그렇죠. 올해 정초부터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은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철폐와 통일애국단체들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구속자석방과 수배해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 쌀값폭락과 쌀수입개방반대 등을 촉구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왔습니다. 특히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 대중운동단체들 상호간에 밀접히 결합되어 진행되고 여기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이 참가하여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공동투쟁을 힘차게 벌여온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였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전농 등 35개 노동농민운동단체가 하나의 조직으로 뭉친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전국민중연

대를 결성하고 민중연대개최 지역 민중운동강화, 실업문제해결 등을 요구하는 것 *****전국농민대회 등 각종 대회와 집회를 열고 국보법철폐와 민중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온 것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래요. 정초부터 전개돼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 노동자의 기본권보장 등 노동자들의 생존권쟁취를 위한 노동운동에 농민들과 청년학생들 각계층 민중이 참가하고 쌀값폭락과 쌀수입개방반대를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노동자, 학생들이 참가해서 연대투쟁을 벌이고 국보법철폐와 이적단체규정철회 등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에 노동자, 농민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해서 연대공동투쟁을 벌여온 건 올해 대중운동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강화발전돼 왔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규 : 그렇죠. 앞에서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대중운동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등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과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이 밀접히 결합돼서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 각계층 민중의 연대와 단합이 강화된 것은 참으로 대중운동에서 괄목할 만한 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회자 : 네, 그렇죠. 그밖에도 구속자석방, 수배해제, ******각계층 민중속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전개된 사실도 주목해야할 점이죠. 그리고 말이죠. 올해에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이에서 힘차게 조직전개된 것 역시 대중운동에서 찾아봐야 할 주목되는 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김현규 : 네, 그렇죠. 우선 반미투쟁이 정초부터 전국각지에서 각계층 민중의 참가하에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부시미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과 반북강경책동이 더욱 악랄해지는 것으로 해서 한반도정세가 긴장되고 6.15남북공동선언이행과 남북관계개선 등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난관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이에 분격한 민주노총, 한총련, 통일연대, 전국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각계층 민중은 미국이 북에 있지도 않는 미사일위협을 빌미로 삼아 대북적대시정책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고 평화와 통일의 앞길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은 것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반대하는 집회와 **********미군이 저지른 온갖 만행을 규탄하며 미군기지철폐와 주한미군주둔,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해서 반미집회와 범국민대회, 시위를 벌이고 성명, 결의문을 발표하는 등 각종 형태의 반미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왔던 겁니다.

사회자 : 올해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라섰다고 하는 건 반미투쟁이 연중 지속적으로, 대중적으로 벌어졌다는데도 있고 그와 함께 범국민적인 반미투쟁단체들을 결성하고 그의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반미 목소리를 높인데서 찾아볼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 등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 등 30여개 단체가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등 수많은 범국민적인 반미투쟁단체들을 결성하고 여기에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반미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온 것은 매우 주목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사회자 : 그밖에도 녹색연합을 비롯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사건을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한 것이나 백악관앞에서 1인시위와 단식농성을 벌인 것 등은 다양한 요구를 내걸고 여러 가지 형식의 반미투쟁을 벌인 것은 이전에는 찾아볼수 없었던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된 것을 종합해보면 올해 대중운동이 질적으로 크게 도약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중운동의 발전적 견지에서 보면 투쟁의 대중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완강하게 투쟁을 벌이지 못한 점 등에서 교훈을 찾아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올해 대중운동에서 발로된 부족점들에서 교훈을 찾고 새해에는 대중운동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할겁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층 민중은 올해 대중운동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들과 성과들에 토대해서 대중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자주민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하루빨리 열어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 : ≪2001 대중운동 무엇을 보여주었나≫ 올해 대중운동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교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민족자주통일의 궤도를 힘차게 달려온 통일운동

김세찬 / 구국전선 제463호 주체90(2001)년 12월 21일



21세기의 첫해인 2001년은 민족의 태양이시며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 한돌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올해 각계민중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을 벌여 커다란 진전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 각계민중은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자주통일열기를 비상히 앙양시켰다.

지난 5월 남북 노동자대표 1천여명의 참가하에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 노동자 5.1절대회≫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에 참가한 대표들은 남북노동자가 앞장에 서서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힘있게 호소했다.

한편 7월에는 농민대표들과 ≪6.15남북공동선언 실천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를 비롯한 여러 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여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남북농민통일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남북농민들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굳게 뭉쳐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여나갈 굳은 결의를 다졌다.

금강산에서 열린 ≪남북노동자통일대회≫와 ≪남북농민통일대회≫는 외세에 의해 조국이 분열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통일대회로서 남북 노농대중이 6.15공동선언실천투쟁의 주역으로 당당히 등장하였음을 선언하고 굳센 민족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획기적인 회합이었다.

또한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6.15공동선언발표 1주년을 계기로 지난 6월15일 남과 북, 해외의 각 단체대표들과 각계인사들이 금강산에 모여 ≪6.15공동선언과 민족의 과제≫라는 주제로 민족통일대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들은 민족자주통일열망을 격조높이 터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조국통일문제는 주인인 남과 북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걸맞게 통일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 드높은 결의들을 표명했다.

각계민중의 민족자주통일열기는 조국광복 56주년을 맞으며 통일의 성도 평양에서 대성황리에 진행된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참가를 계기로 비상히 높아졌다.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분열의 장벽을 허물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염원을 안고 모인 수백개의 남북,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마련해 주신 조국통일3대헌장이 자주통일의 근본원칙과 방도를 밝힌 민족의 통일대강이라고 지적하면서 6.15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자주통일의 대행진을 힘차게 벌여나갈 불같은 결의들을 피력했다. ≪통일연대≫의 한 대표는 ≪이번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해보니 통일이 눈 앞에 보이는듯 싶다. 안팎의 분열주의세력이 제아무리 발악해도 7천만 겨레의 통일의지는 절대로 꺾지 못한다≫고 흥분된 심정을 말했다. 실로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대히 거행된 8.15광복 대축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과시하고 겨레의 통일의지를 더욱 굳게 해준 민족통일 대회합이였다.

다음으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



과가 이룩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새로 출범한 미국 부시정권은 ≪대북강경정책≫을 선언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에로 향하던 남북관계를 긴장격화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획책했다. 이에 맞서 각계민중들 속에서는 미국의 반통일책동을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들이 힘있게 전개되었다.

대표적인 몇가지 투쟁들만 봐도 ≪민주노총≫, ≪참여연대≫,≪전국연합≫ 등 40여개 단체들이 ≪미사일방어≫체제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벌인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저지파탄투쟁과 주한미군기지철폐투쟁,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벌인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의한 6.15공동선언이행 반대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 전국연합이 연중 가열차게 벌인 반미투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6.15선언 방해하는 대북 적대정책으로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을 반대한다≫,≪부시정권은 대북적대정책 포기하고 북미합의 이행하라≫,≪주한미군 물러가라≫고 하면서 강도높은 반미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6.15공동선언의 암적 존재인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기 위한 투쟁도 연중 계속 가열차게 벌어졌다.

몇가지 사례만 봐도 ≪전국연합≫소속 재야인사, 대학생 등이 국회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구속인사석방과 ≪보안법≫철폐, 정보원해체를 주장한 것과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9개 카톨릭교 관련단체들이 서울 명동카톨릭회관에서 ≪국보법≫폐지를 요구해 나선 사실, 전국의 2백7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실종, 민생파탄, 민주역행의 현상황을 우려하는 민주사회단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국보법≫철폐투쟁을 벌인 것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와 ≪국보법≫폐지 국민연대는 ≪국보법≫폐지와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를 주장하여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12월1일부터 10일까지를 인권주간으로 선포했으며 그 기간에 ≪보안법≫폐지와 범민련, ≪한총련≫의 ≪이적≫규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여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었다.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가로막아 나서는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각계민중이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이며 반통일역적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나간 것이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외세에 추종하여 6.15공동선언을 무효화시키고 그 이행을 가로막아 남북관계를 과거로 되돌려세워보려고 발악하고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와 같은 매문지까지 동원해 사회여론을 오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여 각 민주사회단체들은 반이회창투쟁과 ≪조선일보≫안보기운동을 밀접히 결부시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반이회창투쟁을 줄기차게 벌였다.

참으로 올해 민족자주통일운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외세와 그와 야합한 이회창과 같은 반통일세력들의 방해책동을 짓부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자국을 남긴 한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위한 계층과 여러 단체들사이의 조직적 결집강화, 연대연합을 위한 노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3월 ≪전국연합≫, ≪한통련≫ 등 30여개 재야 및 학생단체들로 구성된 통일연대가 결성되고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간 것이 주목을 끌었다.

대망의 새해 2002년은 우리 민족사에서 매우 뜻깊은 해이다. 각계층 민중은 총분기하여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통일대행진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 2002년을 조국통일을 이룩하는 데서 결정적 전환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것이다.



반미로 점철된 자랑찬 한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29일~30일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절세위인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충정과 조국통일의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이 해 200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해의 영마루에서 우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지나온 나날들에서 가슴벅찬 자긍심과 함께 경험과 교훈을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 민중은 미군기지반환 및 미군기지환경문제, 미군만행과 주한미군철수 등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제기하고 연중 줄기차게 반미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참으로 올해는 반미투쟁의 열풍이 경향땅을 뜨겁게 달군 해였다 할겁니다.

윤정원씨, 김현규씨 두분 자리함께 했습니다.

사회자 : 안녕들 하십니까.
윤정원 : 안녕하세요.
김현규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세월이 유수같다고 하더니 흥분된 마음으로 2001년 새해를 맞은게 엊그제 같은데 이 해가 저물어 어느덧 세말의 이르렀습니다. 정초에는 한 해 일을 설계하고 연말에는 그 해 일을 결산한다는데 그래서 이 해에 전개된 우리 민중의 반미운동에 관해 돌이켜봤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해에 각계민중들속에서 벌어진 반미투쟁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투쟁들부터 살펴보고 얘기를 진전시켰으면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지난해 6.15남북공동선언발표를 계기로 거세게 일기 시작한 반미투쟁의 열풍은 각계민중속에 확산되면서 올해 들어와 연초부터 시작해서 연말까지 전국 각지를 휩쓸었습니다. 올해에 벌어진 몇 가지 대표적인 투쟁들만 꼽아봐도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책동 그리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주한미군의 독극물방류행위를 규탄하는 투쟁, 노근리를 비롯한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미군이 감행한 양민학살진상규명과 사죄, 보상을 요구하는 투쟁, 매향리, 용산, 부평, 춘천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주한미군기지반환운동 그리고 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을 반대하는 투쟁,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인상요구를 반대하는 투쟁, 또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을 반대하는 투쟁 등을 들수 있겠다고 봅니다.
사회자 : 물론 그밖에도 많은 예를 들수 있겠죠. 미국의 한국강점이래 올해처럼 반미투쟁이 연중 가열차게 전개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이렇게 평해도 지나친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말그대로 반미로 점철된 투쟁의 한 해였다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말이죠. 올해에 벌어진 각계민중의 반미투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몇가지 주목되는 점을 찾아볼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김현규 : 그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될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반미투쟁이 전례없이 넓은 폭과 심도를 갖고 연중 지속적으로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반미투쟁을 보면 대체로 그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나 계기시에 그리고 한시적인 경우가 많았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반미투쟁은 내용면에서 매우 넓은 폭과 심도를 가지고 전개됐습니다. 말하자면 국민생활환경파괴와 관련한 문제로부터 정치, 경제, 군사분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화책동에 항거하고 그를 전면 반대하는 것으로 일관됐습니다.
윤정원 : 그리고 반미투쟁이 선언적인 것에 그친게 아니라 그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으로 구체화됐다고 봐져요. 다시 말해서 각계민중들속에서 이제는 반미투쟁을 호소나 한두번의 집회와 시위나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끝장을 볼때까지 행동으로 구체화해야한다는 인식이 확고해졌거든요. 그래서 각계민중이 반미투쟁조직들을 결성하고 그의 주도하에 투쟁을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는 미국의 책동에 분격해서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연합을 비롯한 40여개 단체들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북강경정책철회, 미사일방어체제구축중지를 요구해서 각종 형태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이 라든가 전국 6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미군의 양민학살진상규명과 사죄보상을 요구해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들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주한미군기지반환운동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 와서 반미가 얼마나 행동으로 구체화되고 있는가 하는 건 미8군 용산기지에서 기름오염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환경단체가 직접 미군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추진한 것을 봐도 잘알수 있겠죠. 이밖에도 많은 얘기가 있을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반미투쟁이 넓은 폭과 심도를 가지고 그리고 실제적인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구체화되다 보



니까 시공간적으로봐도 연중 지속적될수 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민들속에서는 반미가 일상적이고 생활적인 것으로 인식될 정도였는데 이건 정말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말이죠. 올해 반미운동에서 주목되는 점은 또한 반미투쟁이 범국민적 범위로 확산된 것이라고 할수 있지 않을까요.
김현규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까지는 반미가 대체로 청년학생들의 급진적인 구호로 인식돼왔죠. 그렇지만 오늘 노동자, 농민, 도시영세민 그리고 지식인, 종교인,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반미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대규모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생존의 위협이 미국의 신자유주의경제정책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고 반미를 노동운동의 핵심과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농업파탄 그리고 농가파산의 책임이 수입개방을 강요한 미국에 있다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해 투쟁을 조직하고 있습니다.
윤정원 : 각계민중들속에서 미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보상,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패권주의적인 엠디정책의 철회를 요구해서 투쟁의 함성을 높여왔어요. 그리고 매향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미군기지앞에서는 각계민중이 환경오염반대와 생존권사수를 외치면서 연일 반미집회와 시위들을 벌이고 심지어 시민들이 미군의 탱크앞에 드러누워 항거하고 그랬잖아요. 또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 자리잡은 용산미군기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를 날을 따라 더욱 높여왔습니다. 이처럼 반미는 어느 특정계층에 국한된 게 아니라 각계각층 심지어 일부 국회의원들에서까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반미는 각계민중속에 확실하게 자리잡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자연스럽게 외치는 구호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 투쟁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전개된 것 역시 올해 반미투쟁에서 주목되는 점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김현규 : 네, 옳은 말씀입니다. 지난 시기의 투쟁을 보면 반미집회와 시위, 문건발표와 **였죠. 그렇지만 올해 반미투쟁에서는 조성된 환경과 주어진 조건 그리고 대중의 심리에 걸맞게 또 합법적 공간을 잘 이용하는 것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하면 양민학살현장에 대한 답사와 목격자증언청취, 미군기지정문앞에서의 반미집회와 시위, 미군폭격훈련을 직접 목격하게 하는 그런 방법 등은 대중의 반미감정을 폭발시키고 반미의식을 갖게 하는데서 중요한 투쟁으로 됐다고 봅니다.
윤정원 : 침략과 학살의 원흉인 미제침략자들의 본거지인 미국에서 코리아국제전범재판과 단식농성을 벌여 세계앞에 미군의 양민학살만행을 고발하고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철회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함으로써 세계의 양심을 불러일으킨 것도 그 경험중의 하나죠. 그리고 미군의 폭격훈련장으로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매향리와 ****** 주민들이 미군폭격훈련장폐쇄를 요구해서 서로 연대하며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점 그리고 또 국제적인 지지성원과 연대를 이룩하는 견지에서 볼때 주목할만 하죠.
사회자 : 이처럼 각계민중들속에서 반미감정이 급증하고 반미투쟁이 거세게 전개되자 미국은 미군범죄자들에 대한 신병을 인도하겠다느니 한반도의 평화가 보장되면 미지상군을 철수할수 있다느니 하는 미끼를 던졌는가 하면 주한미군부대들에 한국민의 감정을 거슬리지 않게 조심하라, 외출을 자제하라 하고 명령을 내렸는데 이건 우리 민중들속에서 반미운동이 행동으로 구체화된데서 미국이 느낀 불안과 공포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이처럼 각계민중들속에서 반미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게 된 요인이라고 할까요. 그에 관해서 좀더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그건 우리 민중의 대미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난 것과 관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각계민중은 지금까지 벌어진 투쟁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존의 위협을 두고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것이 미국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반미의식에서의 발전을 이루게 됐죠.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은 우리 민중의 반미의식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한 결정적인 계기, 촉진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물결이 일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하기 위한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되자 그동안 분단체제의 뒤에서 자기 존재를 숨겨온 미국의 정체가 갑자기 전면에 부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계민중이 민족분열의 장본인이고 조국통일의 암적 존재인 미국의 정체를 바로 알고 반미투쟁에 범국민적으로 분기해 나선 거라고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이제 민중들속에서 반미자주의식은 확고히 자리잡혔고 따라서 반미운동은 자기 궤도를 따라서 힘있게 전진하게 됐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자기 성찰의 견지에서 볼 때 올해 투쟁을 펼치며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았다고 봐지는데요.
김현규 : 제 생각에는 각계민중의 반미투쟁을 하나의 흐름으로 모아 운동을 조직하는데서 아쉬운이 컸다고 보겠는데요. 이 해 전개된 반미투쟁을 보면 크게는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는 미국의 책동을 단죄규탄하는 투쟁, 양민학살에 대한 미국의 사죄와 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투쟁 그리고 주한미군기지반환과 미군기지철수투쟁,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파괴하는 미국의 경제침탈을 반대하는 투쟁 등으로 볼수 있죠. 그런데 우리 민중은 미사일방어체제구축저지를 위한 공대위라든가 민간인학살공대위를 비롯해서 사안별로 되는 투쟁조직들은 내왔지만 이것을 총괄하고 투쟁을 조직적으로 주도해나가는 조직은 없었습니다.
윤정원 : 말하자면 강력한 조직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할까요. 각계민중들속에서 벌어지는 반미투쟁을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운동핵심들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각계운동단체들마다 자기들앞에 놓여있는 사안이 우선이라는 그러한 태도를 내세우면서 고립분산적인 또는 사안적 투쟁에 집착했었죠. 그리고 각계운동단체들에서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투쟁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측면에서도 대중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봐져요.
사회자 : 어떤 투쟁이든지 조직이 있어야 위력한 힘을 발휘할수 있고 또 이렇게 하는데서 운동핵심들의 역할이 막중한데요. 각계민중은 올해 투쟁에서 찾은 교훈을 디딤돌로 삼아 새해에는 반미운동에서 더 큰 결실을 이룩해야 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네, ≪반미로 점철된 자랑찬 투쟁의 한해≫ 이런 화제로 윤정원씨, 김현규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 드렸습니다.

민주애국세력의 총결집으로 자주적 통일의 새아침을 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월 1일 논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1세기 첫해, 격동의 2001년을 보내고 희망찬 새해 2002년을 맞는 한국의 전위투사들과 각계애국민중은 뜨거운 충정의 마음을 담아 민족의 태양이 빛나는 북녘을 우러러 새해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2002년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이 되는 의의깊은 해입니다.

한평생 민족의 복락과 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주석님의 유훈을 받들어 새세기에 조국통일위업을 이루는 건 이 땅 애국민중의 도리이고 의무라 하겠습니다.

하기에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발표 두 번째해를 맞는 지금 우리 민중의 가슴가슴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새해에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향도따라 통일운동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자주통일의 새아침을 열어나가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있습니다.

해마다 그러하지만 새해 7천만 겨레가 기원하는 건 오직 하나 통일된 민족으로 길이 복락하는 것입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을 통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는 없습니다.

민족의 이 숙원을 실현하는 길에는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민중이 폐부로 느꼈던 것처럼 반통일분열세력들의 책동은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출범후 첫날부터 대북강경일변도로 나오면서 한반도에서 조국통일을 반대하는 전쟁분위기를 연일 고취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이후 뜨겁게 달아오르던 민족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미국은 분명 우리 민족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남북관계의 급속한 진전과 화해를 달가와하지 않는 통일의 기본 장애물입니다.

외세에 의해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때에 이 땅 분열수구세력은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에 맞장구를 치면서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돌려세우려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어야 할 오늘 외세에 추종하면서 외세와 공조하는 건 통일을 진실로 바라는 자세가 아닙니다.

민족분단의 비극을 새세기에도 지속시키는 건 민족의 수치이고 참을수 없는 불행입니다.

반통일분열세력의 책동을 짓부수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이루려면 이 땅의 모든 통일애국세력이 굳게 뭉쳐야 합니다.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민중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소속의 차이를 초월해서 일치단결할 때에 반통일세력을 압도할 수 있는 강위력한 주체적 통일역량을 마련할수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통일애국세력이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민족공동의 기치입니다. 6.15공동선언을 지지찬동하는 모든 애국세력은 소속과 정파의 차이를 넘어 단결의 광장에 합류해야 합니다.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이남통일운동세력에서 이룩된 전례없는 성과물들은 통일애국세력이 서로 손을 잡고 단합하는 것이 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통일의 앞길은 비록 험난하지만 겨레는 가까운 앞날에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자신감과 낙관에 넘쳐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대진군의 진두에는 통일의 태양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서계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은 겨레에게 통일로 가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고 주의주장이 다른 각계각층의 온 민족을 드넓은 한품에 안아주시는 광폭정치의 거장이시고 민족대단결의 구심이십니다.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계시어 통일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신념을 갖고 그분의 통일방략을 받들어 통일위업을 완수하려는 겨레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조국통일은 역사의 소명이며 통일을 위한 투쟁은 최대의 애국입니다.

우리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은 새해, 민족통일대강인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각계애국민중과 함께 단결하여 내외의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을 짓부숴 버리고 기필코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각계애국민중은 삼천리강토위에 자주적인 연방통일조국의 새아침을 안아오기 위해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서 새해 2002년을 조국통일운동사에 길이 전할 영광찬 해로 빛내어 나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두사≫대망의 새해 2002년에 부쳐

구국전선 제464호, 주체91(2002)년 1월 1일

대망의 새해 주체91(2002)년이다.

새해를 맞이 하는 뜻깊은 이 아침 한민전의 전위투사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북녘 하늘을 우러러 옷깃을 여미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영생과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삼가 큰 절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는 우리 민중이 **김정일**장군님의 민족대단결사상과 현명한 선군영도가 낳은 고귀한 결실인 6.15남북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자주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온 자랑찬 한해였다.

더욱이 지난해 **김정일**장군님께서 역사적인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통해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시고 세계자주화위업을 촉진하는데 크게 공헌하시였으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국위를 세계만방에 떨치시어 시대의 창공높이 역사의 기념탑을 높이 세우신 것은 특기할 역사적 사변으로서 우리 이남민중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민족의 자주적 통일운동사에 또하나의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설계하는 이 시각 우리 민중의 가슴가슴은 시대의 걸출한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모신 대영광, 대행운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장군님의 통일경륜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몸바쳐 민족의 자주적 통일의 새날을 앞당겨 올 결의에 차넘치고 있다.

격변하는 현실은 이해에도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조국통일진군운동을 힘차게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 민족의 대단결은 곧 조국통일이다.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고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사람은 누구나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 일어나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시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이 해에도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올해를 자랑찬 위대한 장군님의 세기로 빛내이는 위대한 승리의 해로 장식하는 성스러운 투쟁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나갈 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은 7천만 우리 민족의 최대의 소원이며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에 우리 민족의 높은 존엄과 영예가 있다.

대망의 새해를 맞아 평양으로 달리는 한민전의 전위들과 각계민중의 뜨거운 마음을 한데 모아 온 세상에 자랑높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민족의 영원무궁한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위하여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영원한 청춘으로 젊어계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바이다.

새해정국과 민족민주운동의 진로

노선일 / 구국전선 제464호 주체91(2002)년 1월 1일

새 세기의 첫해를 보내고 뜻깊은 대망의 새해 2002년을 맞는 우리는 올해 정국을 진단하면서 민족민주운동의 진로를 조명해 본다.

새해 2002년은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주석님탄생 90돌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 해이다.

경사로운 새해에 전국민은 어버이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며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만고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체의 태양으로,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높이 모실 경모의 마음으로 가슴불태우며 태양절을 민족과 인류의 최대 축제로 빛내일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위대한 **김정일**세기로 영광빛날 새해는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발표 두돌이 되는 해이다.

전국민은 새해에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숭배열기를 더욱 드높여 6.15공동선언실천에서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갈 자신감에 넘쳐있다.

새해는 우리 민족사에 특기할 사변들로 아로새겨질 자랑찬 승리와 영광의 해이다.

새해에 이 땅에서는 민족민주세력과 친미보수세력간의 치열한 대결이 벌어지게 될 것이 예견된다. 바로 연말에 있게 될 대선이 올해 정국의 변수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파간의 대권싸움이 아니라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다.

이 대결에서 6.15공동선언지지세력이 승리하게 되면 사회의 민주화가 촉진되고 남북관계가 민족적 단합과 통일대로에 들어서게 되며 반대로 우익보수세력이 집권하면 사회는 더욱 반동보수화되고 남북관계는 대결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만다.

그러므로 새해 민족민주운동 앞에 나선 기본목표는 모든 합법적 투쟁공간을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이 이 목표를 실현해야 사상과 이념의 자유도 보장될 수 있고 반민주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도 실현할 수 있다.

더욱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담보할 수 있으며 민족대단결에 기초한 연방제통일도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대선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세력과 이에 도전하는 반통일, 반민주보수우익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장으로 된다.

민주에 살고 통일에 살려는 이 땅의 전국민은 대선을 친미우익보수세력을 매장하는 정국전환의 역사적 관결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새해에 민족민주운동은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국민기본권쟁취투쟁과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파쇼악법들과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기 위한 민주화운동을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사상과 이념의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 통일논의와 애국적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노동대중을 울리는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근로파견제를 철폐하고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노동3권보장을 위한 대중투쟁을 과감히 전개해야 한다.

또한 농민이익을 우선시하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한다.

새해 민족민주운동의 기본 타격목표는 친미보수수구세력을 타도매장하는 것이다.

친미보수세력은 저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해 구시대의 반민주적, 반통일적 행태만을 일삼고 있다.

사회민주화의 걸림돌인 이들을 제거함이 없이는 참민주정권도, 민족자주도, 조국통일을 위한 6.15공동선언의 성공적 이행도 기대할 수 없다.

전국민은 친미반동보수세력의 온갖 책동을 단호히 짓부숴 버려야 한다.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민족민주운동은 미군철수투쟁, 반미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반미자주화투쟁은 민족민주운동의 변함없는 목표이다.

오늘 우리 민중의 반미자주화운동은 본연의 궤도를 달리고 있다.

우리는 북침전쟁반대, 미군기지철수, 미군기지 아파트건설반대, 미군유지비증가반대 등 반미투쟁을 늦출 수 없다.

오늘날 한반도에서 인위적인 긴장상태를 조성시키고 6.15공동선언실천을 가로막고 있는 주되는 장애물도 미국이고 이 땅의 자주적, 민주적 발전을 저애하며 친미정권을 조작해온 것도 미국이다.

미국은 이 땅을 50여년동안이나 식민지로 강점하고 우리 민중과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만을 강요하는 화근이며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민족민주운동은 주한미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여 끝장을 내야 한다.

한국사회의 민주화운동은 조국통일운동과 밀접히 결부시켜야 한다.

≪국보법≫철폐투쟁, 양심수석방운동 등 통일운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한다.

민족민주운동의 모든 투쟁은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데로 지향시켜 새해에 조국통일운동에서 새로운 결정적 전환을 이룩해야 한다.

새해 민족민주운동의 승리는 일치단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합은 공동선언실현의 위력한 힘이며 사회민주화와 자주화, 조국통일의 근본담보이다.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연대공동투쟁으로 연합하고 단결하여 올해를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민족사에 찬란히 아로새겨야 할 것이다.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위대한 승리로 영원불멸할 21세기 첫해가 저물고 찬란한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 역사적인 주체 91년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주체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탄신 90돌과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탄신 60돌이 되는 참으로 경사스러운 해, 민족사와 세계사에 축하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역사적인 해입니다.

한국의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뜻깊은 새해를 맞이하며 21세기의 태양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께 동지들과 민중들의 다함 없는 경모와 열화 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가장 열렬한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영도와 전략으로 주체조선의 권위가 만천하에 시위되고 조국통일을 위한 비약적 국면이 창출되었던 위대한 승리의 한해였으며 온 겨레와 전 인류가 장군님의 위대성에 완전히 매혹되어 한없이 숭앙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해였습니다.

특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여일간의 러시아연방공식방문을 성사시키시어 조러간의 정치군사적 유대와 국제적인 반미반제공동전선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시는 한편 주체조선의 위엄을 만방에 과시하시고 통일강성대국의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시는 불멸의 대위업을 이룩하시었습니다.

한여름의 불볕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러시아5만리대장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헌신과 풍모를 우러르며 조선의 전체 민중은 오매불망 장군님의 건강과 귀환만을 고대하였으며 장군님의 노고에 혁신과 창조의 위훈으로 보답하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와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을 심장으로 받아 안은 조선민중은 혁명적 군인정신과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결합하는 새로운 사고와 작풍으로 낙원의 봉화, 나남의 봉화를 타오르게 하면서 사회주의강성대국, 통일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대고조를 이룩하는 세계적인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아울러 6.15공동선언 한돌맞이 금강산대토론회가 48년연석회의의 역사적 전통을 계승하며 민족자주, 조국통일, 화해협력의 구호를 들고 뜻깊게 성사된데 이어 마침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준공하는 8.15통일대축전이 통일의 성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최됨으로써 남북해외의 민족통일주체역량이 비상히 강화되며 조국통일운동도 전환적 국면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만한 제국주의국가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조선과의 수교를 앞다투어 요청하고 있으며 장군님의 위대한 풍모에 탄복한 진보적 인류들은 장군님을 우리 시대의 유일한 국제적 수령으로, 찬란한 21세기의 태양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있습니다.

실로 백두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정치와 통일방략이 구현되어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하는 기적과 조미공동코뮈니케, 6.15공동선언이 천명되는 위업이 없었다면 오늘의 위대한 전변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장군님의 위대성이자 조국과 민족의 위대성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 권위야말로 우리 민족의 최대영광이고 조선혁명의 무궁한 동력이며 모든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이남민중은 민족의 태양이시고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절대적 권위에 무한한 긍지와 힘을 느끼며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애국성전에 총분기할 결의를 날로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 조러모스크바선언으로 열어주신 전례 없이 유리한 국면이야말로 통일혁명의 승리를 확정짓는 위대한 사변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찬양하는 애국민중들은 반미자주투쟁, 통일민주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권위를 절대화하는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주체의 진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있는 우리 청년전사들은 장군님의 위대성선전을 중심으로 하는 올해의 투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상전, 속도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새세기 들어 근본적으로 변화된 혁명정세, 통일정세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신축적으로 세련되게 구사함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통일전략이 이남변혁운동, 조국통일운동에 차질 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남의 청년주체주의자대오를 대대적으로 육성하고 그 역할을 백방으로 제고함으로써 민족민주전선과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며 6.15공동선언실현과 반미자주투쟁에서 비약적 국면을 창출할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영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건강과 안녕을 바라는 온 민족과 전 인류의 마음은 세계적인 대경사를 맞이하는 올해 들어 더욱더 절절해지며 끝이 없습니다.

우리 청년전사들은 동지들과 애국민중의 다함 없는 흠모의 마음을 담아 삼가 21세기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만수무강을 열렬히 축원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향도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
통일여명 편집국 6.15주간 편집부 인터넷구국의소리 편집인
주체 91(2002)년 1월 1일
서울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정론 - 통일여명 기자 황정해 (편집국 보도 30호)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백두산영마루의 붉은 여명이 금강산만물상을 비추고 한라산백록담을 물들이며 밝아온다.

여명의 신이 창조한다는 저 북극의 오로라도 그 어떤 영상을 만들어낸다는 컴퓨터그래픽도 이 지구상의 모든 빛과 미도 견줄 수 없는 지극한 아름다움을 발산하며 통일의 여명이 밝아온다.

20세기 저주스런 온갖 낡은 잔재를 잠재우고 21세기 자주와 창조의 영광찬 시대를 일깨우며 통일혁명의 붉은 여명이 찬란히 밝아온다.

1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조국통일위업을 계승하여 우리 대에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이다.≫**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한생은 조국과 민족을 위한 헌신과 사랑의 한생, 통일조국을 향한 신념과 의지의 한생이시였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최대선물로서 통일을 이룩하시려는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한평생 어느 하루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근심하시지 않은 날이 없으시였다.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심려하시고 헌신하신 위대한 주석님의 숭고한 사상과 의지는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장에 그대로 살아남아 역사적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조국통일3대헌장.

이는 바로 민족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사상이며 조국통일유훈이다.

남북이 합의하고 내외가 공인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공명정대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그리고 7천만겨레를 조국통일운동으로 부르는 웅대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이는 조국통일을 위한 근본원칙과 근본목표, 근본방도를 백과전서적으로 완벽하게 밝힌 말 그대로 조국통일의 3대헌장, 조국통일의 3대기둥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밝혀주시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식화해주신 이 3대헌장, 3대기둥만 확고히 틀어쥐면 반드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진리를 체험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

주체 90년 8월 15일, 드디어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준공되었다.

통일된 조국을 아아한 높이에서 떠받들며 머지않아 다가올 조국통일의 대사변을 상징하고 있는 불멸의 대기념탑.

전세계 1억명 이상의 진보적 인류가 지지서명을 하고 남북해외의 뜨거운 통일염원과 고귀한 정성을 하나로 모아 만들어진 조국통일의 상징, 통일조국의 만년재보가 바로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다.

이 기념탑을 세우기까지 그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새우신 밤은 얼마이며 바치신 노고와 희생은 얼마이던가.

위대한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선군영도, 통일투쟁이 없었다면 이처럼 남북해외가 모두 모여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완공을 성대히 기념할 수는 절대로 없었을 것이다.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준공되는 그 순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에 계시지 않으시었다.

우리의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머나먼 이국땅 러시아에 계시었다.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한여름에 불볕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역사에 유례 없는 20여일간의 러시아대장정을 전개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오직 조국통일을 위하여, 온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 5만리대장정에 오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우러르며 7천만겨레의 심장, 진보적 인류의 심장은 격동적으로 높뛰었다.

장군님께서는 러시아방문과 조러모스크바선언으로 통일의 최대장애물인 미제의 대북고립압살책동을 주동적으로 혁파하시며 국제적인 반미반제전선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위해 유리한 국면을 창출하시었다.

사회주의가 시련을 겪은 후 그 누가 붉은광장의 레닌묘소에 경의를 표했고 무명열사묘에 화환을 진정하였던가.

하기에 온 세계가 우리의 장군님을 우러르며 과히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최고의 정치원로이시라고 높이 찬양하는 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이다.

전세계 진보적 인류는 벅찬 감격과 만감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조선의 통일이자 제국주의의 종말이며 국제사회주의의 재생이다.

통일의 여명은 붉은광장의 레닌묘소를 숭엄하게 감싸며 그렇게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2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제국주의자들에게 평화를 구걸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주의나라들이 연쇄적으로 붕괴되고 조선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포위망 속에 들었던 지난 90년대, 설상가상으로 조선은 국상을 당하며 피눈물바다에 잠기고 전례 없는 백년만의 큰물피해, 가뭄피해까지 당하게 되었던 그 대국난의 시기.

미제침략세력이 언제 조선을 침략할 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그 순간, 조선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던가.

이제는 조선도 끝이구나, 통일은 꿈이란 말인가, 온 겨레가 가슴을 치며 눈물과 탄식의 나날을 보내던 그 시절,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신념의 깃발, 혁명과 통일의 기치를 높이 드시며 ≪고난의 행군≫을 단행하시었다.

사상최강의 선군영도.

군이자 곧 당이고 인민이며 국가라는 혁명적 신념으로 우리의 장군님께서는 군을 믿고 군에 의거하여 혁명과 통일 투쟁을 향도하시었다.

주체 85년에 2만 5천리, 주체 86년에 3만리, 주체 87년에 4만리.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3년 기간만 해도 3천리 강산을 수십회나 오고갈 수 있는 머나먼 전선시찰길을 걸으시었던 것이다.

한발만 헛디디면 천길벼랑으로 떨어지는 철령의 아흔아홉굽이에 울려퍼지던 동지애의 노래, 비바람 몰아치던 섬방어대와 눈보라 휘몰아치던 최전연부대의 시찰, 백두산 천출명장의 위대한 무비의 담력을 보여주던 판문점 방문.

실로 고난의 행군 노정에 우리의 장군님께서 바치신 노고와 희생은 필설로는 감히 담을 수 없는 참으로 간고하면서도 위대하며 거룩한 것이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로 조선은 살아났다.

조선의 군대와 전체민중의 심장에는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이 꽉 들어찼으며 조선은 이 세상 그 어떤 대적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정치사상의 강국, 군사의 강국으로 전변되었다.

그리고 광명성 1호, 백두산 1호 발사.

온 겨레와 전 인류는 백두의 천출명장의 위대한 진면목을 인공위성의 발사를 통해서 충격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체조선은 전세계 강대국 중에서도 강대국들만 소유한다는 인공위성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백프로, 천프로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단방에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던 것이다.

그것도 인류역사상 최대의 시련으로 손꼽히는 고난의 행군 과정에 이룩하였으니 이는 20세기의 기적, 역사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통일강성대국의 장쾌한 신호탄, 인공위성 광명성 1호는 우주발사체 백두산 1호의 추진력을 받으며 그렇게 우주로 발사되었던 것이다.

백악관과 펜타곤이 발칵 뒤집어졌다.

조선이 망할 것이라고 예견하며 세웠던 모든 전략이 파탄되었고 이제는 대조선 고립압살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취약성을 꿰뚫어보신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방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대륙간탄도미사일보유를 시위하시었으며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을 근저에서 허물어버리시었다.

미국은 이제 조선에 평화를 구걸하지 않으면 안되는 초라한 신세로 전락하였다.

미국은 주체 88년 9월 전국방장관 페리를 조선에 방북시킨 후 페리보고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며 5027작전계획을 사실상 폐기하고 대조선적대정책을 평화공존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편 백악관이 대조선적대정책을 폐기하니 청와대도 대북적대정책을 전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이 조선에 무릎을 꿇게되자 역사적인 남북최고위급회담의 개최가 일정에 오르게 된 것이다.

주체 89년 10월 12일, 백악관.

전세계는 또하나의 놀라운 정경을 충격적으로 바라보았다.

조선의 공화국창건55돌경축행사가 열리던 그 시각, 위대한 장군님의 특사, 조선인민군의 총정치국장이 군복을 입고 백악관에 당당히 입성한 것이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장군님의 특사와 계면쩍어 하는 클린턴대통령의 초라한 모습은 바로 90년대 조미대결전의 승자와 패자의 단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클린턴이 보낸 국무장관에게 광명성 1호가 발사되는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명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금 조선의 승리를 확인하시었다.

전세계는 철의 마녀가 조선의 어린아이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며 어색한 춤을 추던 희한한 장면을 웃으며 지켜보았다.

미국은 조선과의 대결에서 철저히 패배하였다.

조선은 미국과의 총포성 없는 대결전을 천출명장의 선군혁명영도와 전체민중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승리하였다.

역사적인 조미공동코뮈니케, 미국의 대조선항복문서는 이렇게 서명되고 발표되었던 것이다.

통일의 여명은 저 멀리 백악관을 뒤덮으며 그렇게 밝아오고 있는 것이다.

3

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지켜 우리 대에 조국통일

의 역사적 위업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체 89년 6월 15일 평양.

전세계 수십억 인류는 숨을 죽이고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을 지켜보았다.

사상 처음으로 마주 앉은 남북의 두 수뇌분의 상봉에 뒤이은 조국통일선언으로 온 겨레와 진보적 인류는 얼마나 감격하고 흥분하였던가.

통일은 완료형이라며, 다 됐다며 심장으로 외치던 고 문익환목사의 사자후가 생생히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그 뒤로 남북간의 자주적 교류가 봇물터지듯 전개되었고 남북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이 연일 금강산에서, 평양에서 역사적인 회담을 진행하였다.

남북이산가족의 눈물어린 상봉이 잇따르고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가 연속적으로 전개되었다.

남북해외 7천만 겨레의 심장은 하나의 맥박, 통일의 맥박으로 굽이치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6.15공동선언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조국통일3대헌장의 구현이다.

6.15공동선언은 21세기 조국통일의 이정표, 조국통일대강이다.

6.15공동선언으로 이 땅에 우리 민족끼리 단결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민족자주의 정신, 민족대단결의 정신이 차넘치게 되었다.

이제는 미국놈들의 ≪남침위협설≫이 ≪미국위협설≫로 전환되었으며 미국놈들이 이남민중의 뇌리 속에 심어놓은 대북공포심과 대북적대감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있다.

친미예속세력이 반통일세력과 통일지향세력으로, 반민주세력과 개혁세력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분리되었다.

반민주반통일세력의 존립기반이자 최대무기인 국가보안법이 사실상 사문화되어 마지막 잔명을 몰아쉬게 되었다.

민족민주세력과 민족주의세력은 이제 민족자주, 평화통일, 민족화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점차 단결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는 올해초 6.15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연대를 출범시켰으며 광범한 통일지향세력을 모두 결집시키며 8.15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거족적으로 치루어 내었다.

지난 6월 15일, 6.15공동선언 한돌을 맞이하면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해외 3자가 모두 모여 금강산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주체 37년 남북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를 주관하신지 50여년만에 그 자주노선, 통일노선의 사상과 전통을 계승하며 부활한 것이다.

마침내 8월 15일에는 평양에서 7천만겨레의 대표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역사적인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준공할 수 있었다.

온 민족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통일유훈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통일의지가 아로새겨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격동에 휩싸인 숭엄한 감정으로 우러러보았다.

7천만겨레는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통하여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우리대에 실현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드팀 없는 강철의 신념과 의지를 심장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승리적 정세는 바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통일 사상과 전략의 귀결이다.

조선 앞에 미국은 무릎을 꿇고 조미적대관계를 종식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제국주의국가들마저 앞다투어 조선과의 외교관계수립을 청원하고 있다.

이남 민중 속에 뿌리 깊은 친미반북의식이 반미연북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친미예속적 반통일세력은 결정적으로 고립약화되며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 모든 승리는 바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탁월한 선군혁명영도의 결과이며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의 성과이다.

또한 이는 위대한 주석님의 조국통일유훈과 이를 실현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단심과 통일의지의 고귀한 결실이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주석님과 장군님을 따라 민족자주원칙, 민족대단결사상, 평화통일방법으로 오직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 없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선군영도와 통일전략을 따라 승리만을 거듭할 것이다.

우리는 확신한다. 부시정권의 대북적대정책이란 마지막 허장성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반통일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치고 있다는 것을, 이남의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6.15공동선언은 기필코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짐한다.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고 6.15공동선언을 실현시켜 민족통일기구를 수립할 것을, 수년내로 전체민중을 반미구국성전에 분기시켜 반드시 미군을 철거시킬 것을, 기어이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조미공동코뮈니케와 조러모스크바선언이야말로 통일혁명승리의 담보이며 6.15공동선언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야말로 통일혁명의 상징, 바로 통일의 여명이다.

통일의 여명은 조국강산을 붉게 물들이며 그렇게 밝아오고 있다.

이제는 그 어떤 세력도 통일혁명의 대하를 되돌릴 수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영도, 통일전략을 따라 역사의 대하는 통일의 바다로 거침 없이 나아간다.

백두영장 **김정일**장군님의 손길 따라 백두산여명, 통일의 붉은 여명이 밝아온다.

우리는 머지 않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통일광장에 높이 모시는 영광의 그날을 보게 될 것이다.

주체 90년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선전투쟁 총화

통일여명 편집국 총화 (편집국 보도 32호)

≪우리는 출판물을 가리켜 대중의 교양자, 선전자, 조직자라고도 표현한다. 혁명적 출판물은 또한 수령과 당, 대중을 하나의 유대로 이어주는 훌륭한 수단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김일성**주석)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인민들속에 깊이있게 선전하는 것을 주선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김정일**장군)

통일여명 편집국은 주체 90년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10대 선전투쟁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며 올한해를 뜻깊게 총화합니다.

1. 피디에프총서 ≪21세기 태양≫ 발간

지난 11월 말에 발표된 피디에프 총서 ≪21세기 태양≫는 통일여명 편집국과 6.15주간 편집부가 올한해 선전투쟁에서 가장 긍지 높이 총화하는 선전사업입니다. ≪21세기 태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 풍모를 ≪대학시절≫, ≪선군영도≫, ≪천출명장≫, ≪통일의구성≫, ≪정치원로≫ 등 10권으로 나누어 입체적으로 다양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피디에프총서들이 운동가들은 물론이고 일반대중들도 두 분의 위대성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체득하는데서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 ≪인터넷구국의소리≫ 한돌

지난해 10월 22일 처음으로 인터넷에 발표된 ≪인터넷구국의소리≫는 올해로 뜻깊은 한돌을 넘기었으며 이제는 많은 민족민주운동가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만큼 정상적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구국의소리≫은 한국민족민주운동사상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중적으로 발표된 ≪구국의소리방송≫ 녹취채록물로서 전위당의 노선과 정책을 제때 정확히 전파하는데서나 공안파쇼당국의 방해전파를 무력화시키는 불패의 배포체계를 개척하는데서나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월간 ≪통일여명≫ 한돌

지난해 12월 7일 인터넷잡지를 표방하며 발간된 월간 ≪통일여명≫이 최근 그 한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피디에프잡지 ≪6.15주간≫과 함께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대외기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경애하는 백두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주체의 사상론과 혁명적 붓대중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불굴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한글파일의 하이퍼텍스트기능을 십분 활용하여 인터넷상의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였습니다. 월간 ≪통일여명≫은 총 12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총 7,514페이지, 21,900킬로바이트입니다.

4. 피디에프잡지 ≪6.15주간≫ 창간

피디에프잡지 ≪6.15주간≫은 항일시기 ≪3.1월간≫의 모범을 구현하여 오늘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의 위대성을 선전하며 6.15공동선언실현투쟁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6월 20일 창간되었습니다. ≪6.15주간≫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6.15공동선언실현에 복무할 뿐만 아니라 피디에프잡지라는 새로운 형식의 주간지로서 국내 운동권을 넘어 일반적으로도 인터넷잡지의 새 영역을 개척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6.15주간≫은 총 27호로 1,463페이지, 109,345킬로바이트입니다.

5. 주체사상학습교재의 복원 및 전산화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은 지난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거의다 파괴된 주체사상학습교재들을 대부분 복원하였으며 나아가 전산화함으로써 향후에는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만년재보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해 말부터 장시간의 간고한 입력 및 편집 사업을 통해 복원하고 전산화한 주체사상관련서적, 진보적 사상서적은 무려 158권, 39,961페이지, 96,383킬로바이트에 달합니다. 우리들은 이 자료들을 단순히 복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동가들의 학습에 편리하도록 하이퍼텍스트를 이용하여 보기 쉽게 편집하였습니다.

6. ≪통일여명≫의 각종 백서 44권과 ≪6.15주간≫의 각종 피디에프 자료집 28권 발간

≪통일여명≫ 편집국은 올한해 운동대오와 정세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여러 종류, 내용의 백서를 발간하여 통신상에 공개하였습니다. 통일여명백서는 ≪국가미사일방어체계≫로 시작하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장군≫, ≪조미공동코뮈니케≫, ≪6.15공동선언≫, ≪조러모스크바선언≫ 등 총 44권, 27,297페이지, 48,244킬로바이트로서 매우 방대한 분량입니다. 한편 ≪6.15주간≫편집부도 정세에 맞게 ≪통일혁명당≫, ≪5만리장정≫, ≪백두여장군≫ 등의 각종 피디에프자료집을 발간하였습니다. ≪6.15주간≫ 편집부가 발간한 피디에프자료집은 총 28권, 2,039페이지, 120,700킬로바이트로서 역시 대단한 양입니다.

7. 자민투위 대변인 활동과 하반기 집중선전투쟁 전개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는 하반기의 긴박한 정세의 요구를 반영하여 대변인 제도를 두며 시기에 맞는 다양한 성명, 담화, 논평을 발표하며 활발한 선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통일여명≫ 편집국과 ≪6.15주간≫ 편집부는 자민투위 대변인의 활동과 밀접히 연계하며 하반기에 대대적인 선전투쟁을 집중전개함으로써 인터넷선전투쟁에서 새로운 활력으로 되었습니다.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이 8월 15일 이후 발표한 보도는 자민투위 대변인 보도가 16호,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32호, ≪6.15주간≫ 편집부 보도 3호로서 총 51호입니다.

8.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전파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는 올한해 선전투쟁에서 6.15공동선언과 조미공동코뮈니케 이후 새롭게 조성된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정립하고 이를 운동대오에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비판노트≫,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등의 논문들을 발표하는 한편 ≪2001년 상반기 주요논문집≫, ≪통일전선 관련 주요논문집≫ 등 관련 논문집을 여러차례 발간하고 각종 백서와 기관지를 통한 선전으로 이를 풍부심화하는 투쟁을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9. 주체의 명곡 파일 60곡 공개

≪통일여명≫ 편집국은 운동가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체의 명곡 파일 60곡을 엄선하여 지난 12월 24일과 12월 31일에 공개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배포한 주체사상시디에 수록되어 있는 명곡파일들을 개선하고 보완한 것입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조선의 별≫, ≪일심단결은 우리의 모습≫ 등 들으면 들을수록 새로운 주체의 명곡들을 통하여 우리 운동가들은 통일혁명의 승리를 확신하는 한편 투쟁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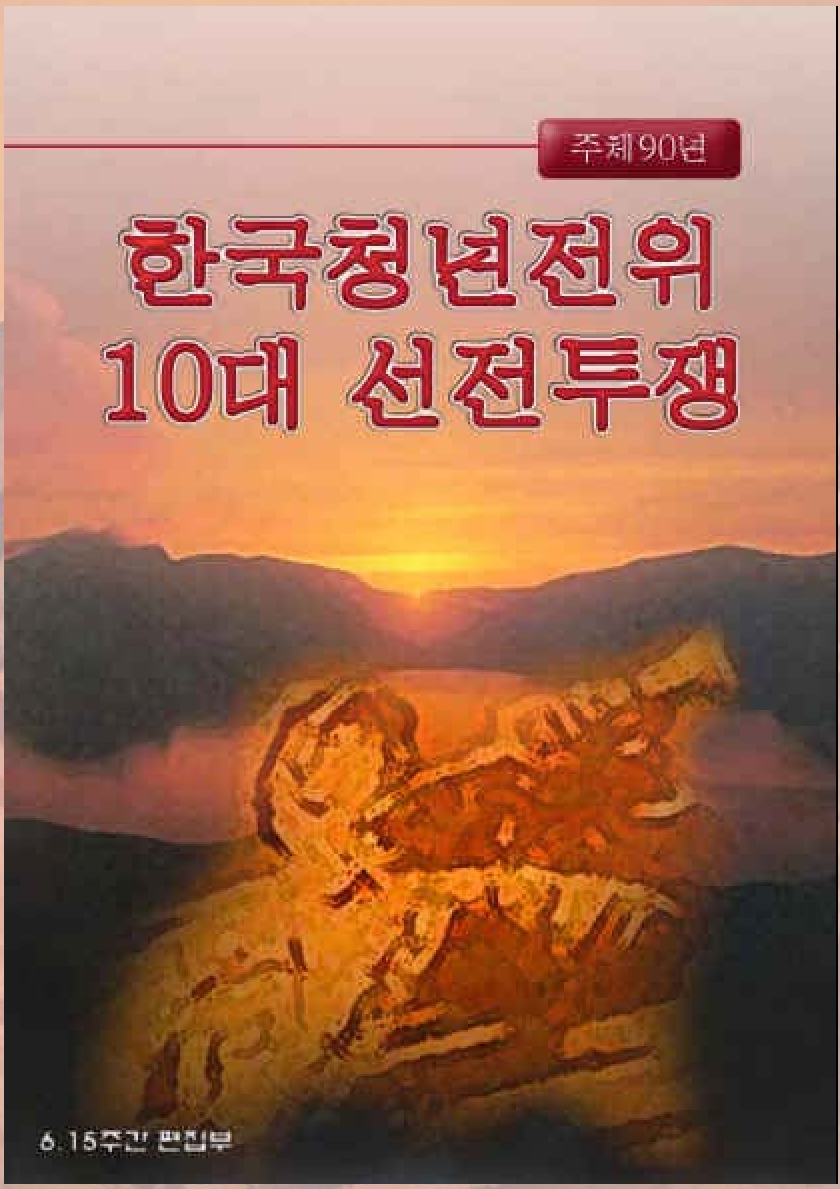
10. 주체사상 시디 1만여개 배포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은 입력사업, 기관지사업, 선전사업을 주체사상시디로 종합하며 이를 운동대오에 배포하는 사업으로 총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이 올한해 배포한 주체사상시디는 수회에 걸쳐서 1만개가 넘습니다. 특히 올해 8.15통일대축전과 송년한마당에서 삼엄한 경계를 뚫고 전개한 배포투쟁은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주체사상 시디는 ≪조선중앙통신≫, ≪인터넷구국전선≫, ≪백두청년회≫ 사이트를 비롯하여 주체사상학습자료가 총체적이며 입체적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매번 배포할 때마다 그 자료와 체계가 개선되어 최근 배포한 주체사상시디의 용량은 700메가에 달하는 것입니다.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선전투쟁에서 3대 원칙은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쥔다는 것이고 종자론을 기본으로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며 속도전을 전개한다는 것이며 그 귀중한 성과물은 운동가동지들에게 최우선적으로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은 다음해에도 이러한 원칙을 생명처럼 견지할 것이며 그 어떠한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절대로 굴하지 않고 투쟁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31일
서울



서부총련 임시의장 조국통일투쟁 선봉에 나설 것 호소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2월 30~31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서울서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인 항공대학교 총학생회장 이재희씨가 최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공동선언을 이행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며 그를 실천하는 길이 곧 자신들이 조국통일의 주인으로 되는 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기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보이면서 6.15공동선언이행을 파탄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데 대해 폭로하고 이러한 정세는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반미투쟁과 공동선언이행을 생활의 첫자리에 놓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부총련이 시대의 요구와 조국과 겨레에 대한 사랑을 심장에 새기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최선봉에 서자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은 6.15공동선언을 착실히 이행해 통일의 문을 열려는 우리 민중의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고 통일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서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진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조국통일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최대의 민족적 과제입니다. 반세기가 넘는 민족의 분열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가로막고 민족공동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세상에서 가장 슬기롭고 근면하며 창조적 능력이 뛰어난 자랑높은 민족입니다. 만일 민족이 분열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겨레는 자기의 우수한 지혜와 재능을 하나로 합쳐 막강한 국력을 가진 자주독립국가를 건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의 분열로 남과 북은 힘을 합칠수 없었고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걷게 됐습니다.

국토양단으로 인해 우리 겨레가 당한 불행과 고통은 이루다 형언할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면 자라나는 새 세대들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겪게 될 것이고 남북사이의 민족적 공통성마저 사라지고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라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만큼 조국통일은 이제 더이상 미룰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난을 무릅쓰고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 민족분열의 비극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현시기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기본은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남북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자주선언, 민족대단결선언, 통일지향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 서부총련 임시의장이 조국통일투쟁에서 선봉에 설 것을 호소한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청년학생들은 서부총련 임시의장의 호소에 따라 6.15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투쟁에 청춘의 기백을 남김없이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학생들은 남북관계를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세우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는 미국과 이회창을 반대하는데 투쟁의 예봉을 돌려야 합니다. 또한 청년학생들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각계층 민중과 연대해 광범위한 실천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 대표 3명 방북불허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을 위해 오늘 금강산으로 향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 남측 대표단 중 3명이 정부당국에 의해 방북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오전 6시 30분,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 실무회담을 위해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 집결한 남측 대표단은 어제(29일) 한충목(통일연대) 집행위원장, 백만호(한국노총) 통일부장, 정선(통일연대) 간사 등 3명이 당국으로부터 방북 불허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대표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경 당국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대표단은 긴급 논의를 거쳐 항의의 표시로 이승환(민화협) 사무처장 역시 방북하지 않기로 결정해 모두 8명의 대표단이 실무회담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8.15 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통일연대 대표로 각서를 쓴 당사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이며, 백만호 통일부장은 평양행사 당시 3대헌장 기념탑에서 열린 개폐막식에 노동계 인사들이 참관한 것이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한 당국은 통일연대측 인사들의 대북 접촉을 전면 불허할 수는 없어 한상렬(통일연대) 대표의 방북은 허가하되 정선 간사는 불허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로써 이번 실무회담 남측 대표단은 통일연대측의 한상렬 목사, 종단의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양산 스님, 양덕창(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부 차장, 민화협의 조성우 집행위원장, 정현곤 연수국장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시민단체 대표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이김현숙 대표, 환경운동연합 최열 대표 등 8명이 참석하게 되었다.

대표단은 30일 속초에서 설봉호 편으로 금강산으로 떠나 31일과 새해 1월 1일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대표단과 실무회담을 갖고 1일 속초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이번 회담은 지난 19일 남측 준비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족고유의 명절인 설(구정)을 맞이해서 오는 2월에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를 갖자고 제안하고 실무회담을 12월 31일 금강산에서 가질 것을 제안한데 대해 북측이 승낙하고 초청장을 보내옴으로써 성사되었다.

이번 실무 대표단에 대한 당국의 선별적 방북 불허는 내년 구정에 예정되어 있는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등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과정에서 또다시 논란거리로 등장할 전망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30

통일연대 실무대표단 방북불허에 대한 성명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통일연대 실무대표단의 방북을 불허한 통일부를 규탄한다

12월 29일 통일부는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위한 실무회담을 위해 방북신청한 통일연대 대표단중 한충목 상임집행위원장과, 정선 총무부장 그리고 백만호 한국노총 통일부장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이번 실무회담의 통일연대 대표단 중 한상렬 상임대표를 제외한 전원을 불허시킨 것이다.

방북을 불허한 이유는 8.15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에 대한 통일연대측의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8·15민족통일대축전에 논란으로 인하여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에 의해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해임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기에 통일부가 이번 방북허가과정에서 좀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 금강산장관급회담 결렬이후 교착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 때에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적극 지원해야 할 통일부가 자의적인 정치적 잣대를 들고 나와 난관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아는 것처럼 8.15민족통일대축전에 대한 논란은 6.15공동선언을 파탄시키고 대결과 반목의 시대로 되돌리려는 보수언론과 수구세력들의 흠집내기와 트집잡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생긴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연대는 진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열망하는 온 겨레와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지혜롭고 성숙한 자세로 민간통일운동을 벌여 나갈 것을 밝혀왔다.

그런데도 통일부가 8.15 통일대축전에 대한 책임을 통일연대측에 떠 넘기며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여기에 더 높은 벽을 치려고 한다면 이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수 없다.

이번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는 9.11테러사건이후 또다시 막히고 있는 남북관계를 뚫음으로써 2002년 새해를 6.15공동선언을 이행해 나가는 통일의 해로 만들고자하는 온겨레의 염원을 반영하고 있다. 또 이 행사는 2002년에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가 더크고 넓게 활짝 꽃을 피우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하기에 통일연대는 통일부측의 통일연대에 대한 부당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성사를 위해 한상렬 상임대표님과 다른 7분의 대표단 출발을 연기없이 진행하였다. 우리는 이번 회담이 2002년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열어가는 커가란 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우리는 통일의 길에 넘어야 할 벽이 많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온겨레의 통일열망은 결코 꺾을 수 없다. 통일연대는 어떠한 난관과 장애가 앞을 막아 나선다해도 6.15공동선언의 이행의 길을 흔들림없이 갈 것이며, 더욱더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국민들과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통해 민간통일운동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다할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대화와 교류에 제동을 걸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통일부가 만약 수구세력의 눈치를 살피며 6.15공동선언에 역행한다면 준엄한 역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1년 12월 30일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위한 통일연대

금강산에서 설맞이 실무회담 열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준비위)≫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강산호텔에서 북측 민화협과 실무회담을 갖고 오는 구정(2월 12일)을 전후해 ≪통일을 염원하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가칭)≫를 가질 것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설맞이에 대한 남북간의 의지를 확인했으며, 설을 앞둔 2월 초순경에 편리한 장소에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또한 인원, 규모, 내용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 교환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회담에서 행사의 명칭, 장소, 행사구성, 참여자 규모 그리고 최종적인 행사일정 등 행사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자가 내부 협의를 진행한 후, 1월 중순경에 다시 실무회담을 갖기로 했다.

한편, 북측은 이번 실무접촉 남측 대표단의 일원 중 3명에 대해 남측 당국이 방북을 불허한 사실에 대해서는, 현장에 와서야 확인하고 섭섭한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북측은 언론에 의해 남북 민간교류의 순수한 뜻이 훼손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무접촉에 대해 남측 변진흥 사무총장은 ≪이번 회담이 잘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남측 대표단은 이번 실무접촉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갖는 한편 2002년을 여는 첫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음은 이번 실무접촉에 참여한 남북측의 대표단 명단이다.

남측 : 조성우(민화협 집행위원장), 양산(대한 불교조계종 사회부장),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변진흥(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한상렬(통일연대 상임대표), 이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상임대표), 양덕창(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총무국 차장), 정현곤(민화협 홍보연수국장)

북측 : 허혁필(민화협 부회장). 류완철(민화협 사무소 부소장), 리경철(민화협 사무소 과장), 이용철(민화협 사무소 협력과장), 한일선(종교인협의회 사무국장), 서재용(종교인협의회 사무국 과장), 리창덕(범민련 북측본부 사무국 과장)

금강산 =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2-01-01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남북의 합의를 환영하며

반통일세력은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에 난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지난해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달성하겠다는 결심과 결의로 7천만 겨레는 뜨거운 한 해를 보내며 긍지높이 총화하고 있다. 6.15 민족통일대토론회와 8.15 민족통일대축전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해외 7천만 겨레가 합법적으로 만나서 조국의 민족자주, 대단결 의지를 높이 과시하였다. 비록 하반기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남측의 반통일세력의 준동으로 공동선언 이행의 국면은 시련과 난관의 시기를 맞이하였으나 공동선언 이행으로 조국통일을 기어이 실현하겠다는 7천만 겨레의 의지는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바로 이것이 현재 준비되고 있는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이다.

지난해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진행된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남북의 실무대표단은 2월초에 설맞이 행사를 연다는 데 대해 큰 틀의 합의로 다시금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는 지난 해 미국의 9.11 본토 습격사건과 아프카니스탄 전쟁 이후 더욱 강도높아진 대북강경정책과 새전쟁도발책동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며 공동선언 이행의 엄중한 난관을 7천만 겨레가 민족자주와 대단결의 의지로 돌파하겠다는 결심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남측의 반통일세력이 미국의 우심한 책동에 같이하며 공동선언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에 7천만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장이 될 것이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는 바로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으로 새로운 조국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2002년을 맞이하고 7천만 겨레가 민족자주, 대단결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새해의 결의를 다지는 장이 될 것이다. 하기에 7천만 겨레 모두 다 이번 금강산에서 진행된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 실무회담을 가슴 뜨겁게 바라보고 큰 틀의 합의를 기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의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음을 알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회담을 성사하고 민족적 합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통일부의 반통일적 행태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해 8.15 민족통일대축전이 7천만 겨레의 민족통일의 대화합의 장으로, 축제의 장으로 빛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북단의 광란적 행태니, 민족통일대축전 개, 폐막식 행사에 참관으로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민족통일대축전 이후에 7인을 구속하더니 이번에는 심지어 통일연대 소속 3인의 실무회담자의 방북을 불허하였다. 이는 7천만 겨레의 조국통일 염원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조국의 통일을 위해 공직으로 임명된 통일부 장관이라는 자가 6차 장관급회담을 결렬로 이끈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성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금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에 흠집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국한되는 일이 아닐 것이기에 더욱 엄중한 것이다.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7천만 겨레가 거족적으로 성사할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는데 이는 향후에 방북단을 선별심사하면서 범민련, 한총련에 대한 탄압의 강도수를 높일 것이 불을 보듯 분명한 상황이 될 것이기에 이는 더욱 7천만 겨레에게 엄중한 도전행위로 될 것이다. 통일부는 원래 통일을 위한 부서임만큼 그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실무회담 방북 불허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그리고 이후에 방북단 방북에 있어서 개폐막식 참가 운운하며, 8.15 민족통일대축전 광란을 이야기한다면 7천만 겨레의 민족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총련 백만청춘은 언제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심장에 새기고 공동선언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당면하여 ≪6.15 공동선언 이행, 50일 행군≫을 미국과 반통일세력을 심판하는 장으로,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공동선언에 합의하는 모든 이들과 더욱 광범위하게 연대와 연합을 실현하면서 조국통일의 든든한 초석을 마련할 것이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7천만 겨레의 거족적인 만남을 실현하는데 한총련 백만청춘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약 이를 방행하는 세력이 있다면 결단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미국과 남측의 반통일세력은 7천만 겨레의 공동선언 이행의 의지를 꺽을 수도 없을 것이며, 결코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이 부여해준 조국통일의 선봉부대로서 한총련 백만청춘은 쉼없이 6.15 공동선언 이행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 ≪2002 설맞이 민족공동행사≫를 7천만 겨레의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과시하는 장으로, 공동선언 이행의 봉화를 지펴올리는 장으로 우리 모두 다 만들어나가자. 2002년 조국통일의, 공동선언 이행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진군하자.

2002년 1월 3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금강산 사업, ≪정부 결단 필요한 때≫

금강산사랑연대(준), 정책 토론회 개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 정부는 지금 정경분리를 어설프게 적용하지 말아야 하며 전략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오후 1시 30분 경실련 통일협회 강당에서 ≪금강산을 사랑하는 범국민연대(준)≫<금강산사랑연대(준)≫의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이종석(세종연구소 북한연구위원) 박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위기의 금강산 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참여한 이종석 박사는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원칙의 근본적인 취지는 ≪당국자간 대화의 단속(斷續)이 경협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사실상 경협을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사태를 방지하자는 데 있다≫며 금강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정경분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군부의 개방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지난 6월 현대아산과 합의한 사항을 즉각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현대 아산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영리사업이라는 인식하에 보다 편안한 금강산 관광이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시민사회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희석시키는 것이고 또한 금강산 사업의 국민기업화를 위한 시민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국민기업 창설을 목표로 범국민적으로 주주운동을 전개하고, 여기서 모은 돈과 현대아산의 기존 출자분, 그리고 정부의 신규 출자분 등을 합해 국민기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종석 박사는 말했다.

그리고 이 경우 기업운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주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대아산의 기존 투자금액은 합리적 수준에서 일정 비율로 감자하여 출자 전환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 아산 김고중 부사장은 현실적 대안중 하나라며, 그러나 기업운영을 정부가 책임지고 주도해나가는 건 심도있는 협의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사장은 이어 현대 아산이 사업 책임과 실무진행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밝힌 뒤, 하지만 의견 수렴 후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근식(아태평화재단 책임연구위원) 박사도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는 이종석 연구위원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국민 기업화≫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김근식 박사는 시민사회는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나 현대아산에게 모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서동만(상지대) 교수는 현재 논의의 주체가 협소하다고 지적하며 민화협, 종교, 그간 대북 지원사업을 해온 단체까지 폭을 넓혀 보다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외 이장희(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규철(시민사회아카데미) 원장, 윤경로(경실련대의원회) 의장, 최병철(성균관 민족통일유림협의회)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강산 관광사업이 갖는 근본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 사업의 주체인 정부, 현대 아산,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며 위기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로를 모색하는 데 있어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이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7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은 폐기해야

김성림 / 구국전선 제464호, 주체91(2002)년 1월 1일



얼마전에 진행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이른바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그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기지 4천여만 평을 반환하는 대신 경기도 평택, 오산, 의정부 그리고 경상북도 포항 등지의 75만평의 땅을 새로 제공받게 된다 한다.

이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외의 정당한 요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며 도전이다.

주한미군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이며 민족적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는 침략과 전쟁의 화근이다.

주한미군의 무분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난관에 부닥치고 남북대화의 분위기도 흐려지며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대결과 긴장상태는 날로 격화되고 있다.

주한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이룩할 수 없기에 우리 민중은 주한미군철수와 주한미군기지반환을 요구해 힘차게 투쟁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우리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대신 오히려 무력을 증강하고 있으며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다.

최근 미국이 ≪반테러≫를 운운하며 이 땅에 새로운 침략무력을 끌어들이고 정부당국에 주한미군 유지비를 또다시 대폭 올릴 것을 강요한 것은 바로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명백히 하건대 이번에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모의발표한 것은 기만적인 ≪기지반환≫책동으로 높아가는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을 누잦히고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북침공격전략에 따른 주한미군무력의 개편과 재배치를 다그치려는 용납못할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번에 미군이 반환을 결정한 기지들중 용산기지와 매향리사격장 등 가장 문제로 되는 기지들은 다 빠지고 장기간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실용가치를 상실한 것들이며 적지 않은 기지들은 미군측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땅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처럼 가치가 없거나 쓸모가 없게 된 기지들을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넘겨주면서 저들의 무력재편성에 필요한 새로운 기지용부지를 빼앗아내려 하고 있다.

제반 사실은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이라는 것이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여 우리 민족이 그처럼 바라는 평화와 조국통일을 가로 막으려는 것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하기에 지금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개정 국민행동을 비롯한 3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를 내오고 미군기지가 새로 들어설 의정부와 평택, 포항 지역 주민들과 연대해 미군기지신설확장반대운동에 나서고 있고 각계민중이 미군기지 이전이 아닌 완전반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고 있는 것이다.

각계민중은 기만적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폐기하고 전지역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고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내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전동록씨 문제 시민들 분노, 모금운동 호응 커



지난 수요일부터 전개된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54) 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다.

파주에서 주한미군부대 주변에 설치된 고압선에 사지가 절단된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우선 이번 사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는 미군 측과 정부를 규탄하는 집중투쟁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집중투쟁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치료비 마련을 위한 지하철 모금운동 같은 경우 시민들은 자주권의 문제라며 분노를 참지 못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동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하루에 두 번씩 지하철 모금운동을 전개하며 전동록씨 문제를 유인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현재까지 3일 동안 약 3백여 만원 정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에서 유인물을 받아본 한 시민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 이건 자존심의 문제≫ 라며 분노를 표시하는가 하면 초등학생까지 모금운동에 동참해 주변사람들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전동록씨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60만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공동대책위는 현재 토요일 오후 3시 용산에서 대규모 규탄집회를 가지는 것을 시작으로 이 문제를 계속 공론화 시키기로 하고 법적 대응을 비롯한 다양한 대응방법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16일 건설현장 인부였던 전동록(54)씨는 경기 파주시 조리면 뇌조리 캠프하우즈 미 제2사단 공병대대 후문 옆 대우제판 카메라 조립식 공장 증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미군부대 22,8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되어 사지가 절단된 채 병원에 입원해 있다.

특히 공장 증축 전에 미군 측에 고압선 처리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미군 측은 마음대로 하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동록씨는 4도의 중화상으로 양팔과 양다리가 절단된 채 왼쪽 귀마저 들리지 않는 채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약 7천여 만원이 넘는 치료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주한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경기민중연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른 참가단체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전동록 대책위 홈페이지 http://kndic.com/antiusarmy



서영욱 2001-12-28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용산미군기지 앞 대규모 반미집회 열려

≪2002년 반미 투쟁의 깃발 높이 세워≫



주말 오후, 용산 미군기지는 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2천여 명의 ≪주한 미군 철거!≫ 외침이 메아리쳤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운동본부(준)는 29일 오후 3시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제2차 시민대회≫를 개최하고 주한미군과 국방부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추국화(반미여성회) 씨가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영구주둔의 음모인 용산 미군기지 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주한미군과 이에 대한 허용의사를 보이고 있는 정부와 국방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또한 미군의 과실로 고압선에 중상을 입은 전동록씨의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권영길(민주노동당) 공동대표는 여는말을 통해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통일의 그날까지, 그리고 미군이 이 땅에서 물러날 때까지 힘차게 투쟁하자≫라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이어 정치연설에 나선 허영구(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 땅의 민중들은 미국에 대한 전면적인 투쟁을 이 자리에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2002년을 뜨겁게 달궈나가자≫고 주장했다.

정종성(서총련) 임시의장도 학생들을 대표해서 규탄연설을 했다.

한편, 문화단체 ≪천명≫은 전동록씨 사건을 형상화한 공연을 펼쳐 한때 집회장이 숙연해 지기도 했다.

미8군사령부 정문 앞에서 본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김종일(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수많은 깃발을 앞세우고 ≪주한미군 철거≫를 외치며 52번 게이트까지 행진했다.

52번 게이트에 다다른 참가자들은 이승헌(민주노동당) 자주통일국장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가졌다.

정리집회에서는 이호승(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장, 김광일(다함께 경희대모임) 대표, 이덕우(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최규엽(민주노동당 자통위원장) 공동집행위원장의 규탄연설이 있었다.

특히 이호승 회장은 ≪철거민에게 김대중 정권은 단 한 평의 주거권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덕우 인권위원장은 경찰들의 폭력적인 행태에 대해 경고하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이날 집회는 오후 5시 10분경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며 올해 투쟁을 정리하고 내년 반미 투쟁에 대한 결의를 다지면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집회는 경찰이 과잉 저지를 해 참가자들의 분노를 사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이정우(전동록 대책위) 집행위원장이 앞니 2개가 부러지기도 했다.

또한 주한미군들은 집회와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내내 미군기지 안에서 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한편 4일 동안의 농성을 마친 이정우(전동록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농성기간 동안 전개한 지하철에서의 시민 선전전을 통해 첫날(26일)은 60여만원, 27일은 157만원, 28일은 275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며 처음엔 시민반응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으나 시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내 일처럼 대하고 미군의 오만함에 분노를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투쟁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일간의 농성과 오늘 대규모 반미 집회가 갖는 의미에 대해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우리의 투쟁 열기가 얼마나 거센지를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으며 1월초부터 투쟁을 만들기 위한 준비가 오늘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본격적인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용산 주민과 철거민, 노동자, 노점상이 결합하고 있다≫며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아파트 건립문제를 가시화 시켜내고 용산미군기지 반환, 그리고 빠른 시일내에 주한 미군 철거를 위한 투쟁으로 세부계획을 준비해 대중적 투쟁으로 만들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집회는 지난 26일부터 4일 동안 진행된 용산 미8군사령부 앞에서의 농성을 정리하고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의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로, 반미 투쟁이 학생, 노동자, 노점상, 철거민 등 각계각층의 투쟁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2-29

청년학생연대(준), 공동선언역행 한나라당 규탄성명

구국의 소리, 주체91(2002)년 12월 29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는 최근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에 역행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으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언급하고 이 모든 악결과는 통일을 가로막아 나서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의 방해책동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다 이회창이 미국의 비위를 발라맞추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방해해 나섰는가 하면 미국의 영구주둔과 미사일방어체제구축, 무기강매책동을 적극 주도해 나섰으며 상호주의니 철저한 검증이니 뭐니하는 등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망발들을 서슴없이 늘어놓은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성명은 호전분자로써의 이회창의 이러한 망동은 그의 애비때부터 이어져왔다면서 그의 애비가 일제의 군사적 강점시기 검사서기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선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반통일세력의 우두머리인 이회창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6.15남북공동선언을 한사코 막아나서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자는 것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은 6.15공동선언역행하는 반통일 보수세력 한나라당을 즉각 해산하고 민족의 수치, 반통일, 반민족, 사대매국의 대명사 이회창은 당장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민의를 반영한 정당한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폭로된 바와 같이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공동선언이 발표될 때부터 지금까지 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거는 반민족, 반통일적 행위만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자체를 시비해 나섰는가 하면 남북관계가 좋게 발전할 때에는 북에 끌려다닌다느니 너무 많이 퍼준다느니 뭐니하면서 북을 비난하고 여당을 공격하는데 앞장섰습니다.

6.15공동선언발표후 여러 측면에서 좋게 발전하던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마저 안고 있는 것은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동과 함께 이회창과 한나라당패거리들의 반민족, 반통일책동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준비위원회가 공동선언에 역행하는 한나라당을 즉각 해산하고 이회창을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강력히 요구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화근은 제때에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민족, 반통일집단 한나라당과 이회창을 그대로 두면 언제가도 공동선언을 제대로 이행할수 없다는 건 지난 시기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애국민중은 이회창을 하루속히 정계에서 제거하고 한나라당을 해체시키기 위한 투쟁을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내 학문과 사상은 불온하지 않다≫

[특별인터뷰] 법정싸움중인 강정구 동국대 교수



대학으로부터 최근 직위해제 처분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대학은 사립학교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하더군요. 그러나 이런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교수가 직위해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대 장상환 교수나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의 예가 그러하죠. 학문의 자유를 앞장서서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주체인 대학이 주체로서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대학의 이념과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은 만경대 방명록 서명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명록에 쓰신 내용의 순수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제가 방명록에 쓴 ≪만경대정신≫은 ≪민족정기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만경대를 어떤 장소로 바라보는가입니다. 당시 제가 연상한 것은 만경대학원이었어요. 만경대학원은 항일무장투쟁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자식들, 주로 고아들이죠.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킨 특수교육기관입니다. 학원의 설립목적은 민족을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들을 후대에까지 보상해줘 민족정기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 민족정기정신이 바로 만경대정신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만경대 하면 김일성의 생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래서 만경대정신을 주체사상과 연결짓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만경대정신은 역사적 고증을 통해 보면 적어도 6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셔먼호를 격퇴한 장소라는 점에선 반침략반외세민족주의로 볼 수 있고, 김구선생도 1948년 분단을 막기 위해 북한에 들러 그곳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남북협상정신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할진대 언론과 검찰이 방명록에 서명한 사람의 뜻은 들어보지도 않고 주체사상신봉주의로 몰아 세우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일반인이 그렇게 적었다면 의아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남북현대사를 평생 공부한 학자이며, 북한전문가입니다. 만경대에 관한 한 엄청나게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의 태도는 파시즘에 다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행동이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전략적으로 사고하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왜 학문하는 학자가 그런 전략적 사고까지 하면서 학문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유감스럽고 죄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학문하는 사람이 전략적 사고까지 하면서 학술논문을 발표해야 하고, 방명록도 그것에 맞춰 써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곧 역사적 실제나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민 정서를 생각해야 되고, 눈치를 봐야하는 형편에서 학문적 진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까. 운동가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학자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검찰은 선생님의 그간의 연구업적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검찰 공소장의 90%가 연구업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명록에 서명한 것만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무리인거죠. 검찰이 문제삼고 있는 것은 1993년 ≪역사비평≫ 여름호에 게재한 ≪미국과 한국전쟁≫ 논문이고, 다른 하나가 서울대에서 주체사상토론회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런데 둘 다 당시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논문이 왜 1993년에는 문제가 안되다가 2001년 8월에는 문제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검찰이 스스로 만경대 사건으로 그간의 연구내용을 문제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연구활동은 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이제까지 해온 연구작업은 한마디로 말하면 ≪냉전의 성역 허물기≫입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이런거예요. 한국전쟁, 주체사상, 주한미군, 미국의 대 한반도정책, 자주노선, 친일파 청산, 연방제 통일방안… 이 주제들을 보세요. 감옥소에 들어가 곰곰히 생각해보고, 검찰 공소장을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참 누구도 다루려 하지 않는 주제였구나 생각되더라구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족・민중・비판학문을 지향합니다. 민족학문을 지향한다는 학자가 국가보안법이나 냉전수구세력 때문에 연구를 기피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실 학문을 지향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계에 전하고 싶은 말씀도 많을 것 같은데요.

≪이 땅의 학문은 이 땅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지금 이 땅의 학문은 지적으로 과잉서구화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없고 서구의 학문 경향에 따라 춤을 추는 모습입니다. 아직 민족중심적이고 주체적인 학문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족학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배타적 민족주의는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이해와 결합시키는 학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안길찬 기자 2001년 12월 27일

김도형 남총련 의장 권한대행 연행 규탄성명

2002년 새해다. 너나없이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며 새 희망을 그려나가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옛말처럼 2002년의 새로움을 담기 위해 모든 태세를 달리하고 있다. 2002년은 자주통일의 해이다. 4천만 민중과 7천만 겨레는 6.15공동선언을 두손에 움켜쥐고, 이 땅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고자 하는 의지와 결의로 넘쳐 있다. 6.15시대인 새해 2002년에는 구태의연한 사고, 구시대적인 유물은 그 어느 곳에도 발붙일 자리가 없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2002년 세 번째 날인 오늘, 진즉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살아 남아 또 한번 횡포를 부렸다. 새해벽두부터 공안당국이 애국학생을 폭력연행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보안수사대는 오늘(3일) 오후 1시 순천대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10기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 의장 권한대행인 김도형 학우(2001년 전남대학교 부총학생회장)를 백주대낮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잡아갔다. 남총련은 남총련의 최고대표자인 김도형 학우를 연행한 공안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2002년에는 기필코 한총련 이적규정을 철회시키고 국가보안법을 끝장낼 것을 결의한다.

공안당국의 이번 폭거는 7천만 겨레가 그리도 염원하는 6.15공동선언 이행 · 자주통일 실현과는 인연이 먼 반통일 책동을 2002년에도 이어나가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들으라. 제아무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기 위해 발악을 해도, 6.15공동선언의 대로를 따라 역사는 정방향으로 흐른다.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과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성은 이제 더이상 말할 필요조차 없다. 이젠 그 누구도 이북을 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오직 공동선언 이행을 막아보려 안간힘을 쓰는 반통일세력들만이 이북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생명줄을 부여잡고 있을 뿐이다.

2002년은 자주통일의 시대다. 자주통일과 국가보안법은 결코 한 배를 탈 수 없다. 역사적 분기점이 될 2002년, 공안당국은 시대의 대세를 똑바로 보고 올바로 처신해야 할 것이다. 몸은 가둘 수 있어도 자주통일조국을 안아오고자 하는 청년학생들의 의지까지 가둘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남총련 10만 학우는 언제나 6.15 남북공동선언을 두손에 틀어쥐고 공동선언 이행에 나설 것이며, 한총련의 자주통일진군을 막아나서는 행위와는 단호히 투쟁할 것이다. 당국은 지금 당장 김도형 남총련 의장 권한대행을 석방하고,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새조국 건설의 선봉 자주의 횃불
10기 광주전남지역총학생회연합(의장 최종은)

≪잡은 손 더욱 뜨겁게, 내딛는 걸음 더욱 힘차게≫

통일연대 민중연대 합동 송년회 열려



각계 시민사회 단체의 송년 행사가 한창인 가운데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합동 송년회가 지난 28일(금) 연세대 학생식당에서 ≪잡은 손 더욱 뜨겁게, 내딛는 걸음 더욱 힘차게≫라는 기치 아래 민족민주운동 원로, 통일연대, 민중연대 소속 대표 및 간부 등 약 2백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먼저 본 행사를 시작하기 전 사전마당에서는 ≪각 단체 간부들이 뽑은 내년 소망 베스트 5≫, ≪1월 31일까지 한 사람에게 이것만은 꼭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약속 어음 적기≫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은 본 행사는 2001년 통일연대와 민중연대가 걸어온 길을 담은 영상물 상연, 노래패 아름다운 청년의 문화공연, 각 단체 대표들의 발언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송년의 밤과 관련하여 통일연대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각 단체별로 따로 송년의 밤을 진행한 것과 달리 민중을 사랑하고 조국의 통일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송년의 밤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행사의 소감을 밝혔다. 또한 사회를 맡은 전국연합 한충목 집행위원장은 ≪이번 송년의 밤은 지나는 해 우리가 쏟은 땀과 정성을 역사의 갈피에 새기고, 밝아오는 새해 우리가 이룩할 단결과 투쟁 그리고 빛나는 승리를 다함께 모여 굳건히 다짐하는 자리이다.≫라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통일연대와 민중연대의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6.15 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 기독시민사회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교회선교연합,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 반미여성회, 사월혁명회, 서울 통일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양심수후원회, 원불교청년회 남북한삶운동본부, 615남북공동선언실현을위한 불교연대, 인천 통일연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기수송환대책위,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 전북통일연대, 제3세계신학자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 천주교 장기수 가족 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통일광장, 통일광장, 통일맞이늦봄문익환기념사업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쟁취 전국민중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사회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김성현 기자 2001년 12월 29일

당원 2만 육박, 당비 납부율 80.5%

수치로 본 민주노동당의 2001년

민주노동당의 당원 수는 12월 11일 현재 1만9286명이고, 12월 5일 현재 당비를 CMS(자동이체)로 납부하고 있는 당원의 비율은 80.5%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민주노동당의 기관지 ≪진보정치≫ 70호에 따르면 12월 현재 1만9000여 명의 당원 수는 지난해(1만4782명)보다 30.4%(4504명)나 증가한 수치다. 올 1월부터 11월까지 가입한 신입 당원은 5913명으로 집계됐다.

연말까지 당원 2만 명 돌파 가능해

신입당원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원 증가비율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 ≪진보정치≫는 ≪올 초 정기 당대회를 통해 광역시도지부-지구당으로의 조직으로 당원을 편재하는 과정에서 기구당별로 당원 명부상 등재만 돼 있는 이른바 ≪페이퍼 당원≫을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월별 당원 가입 추이를 보면 당원 가입자 수는 매월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1월에는 2044명이 가입함으로써 1월 가입자 수(129명)에 비해 17배 이상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연말까지 당원 수가 2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중정당 운영에서 당원 수와 함께 중요한 요소인 당비납부율은 80.5%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77%)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다.
또한 지역조직과 분회는 각각 80개와 299개로 나타났다. 지역조직의 경우 지난해 43개의 지부와 지부(준)에서 80곳의 지구당과 지구당(준)으로 분화가 이루어졌다. 분회의 경우는 지난해(157개)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 한해 동안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 17회를 비롯해 12월 19일 현재까지 성명서 78건, 논평 253건, 보도자료 112건을 발표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활동에 대한 언론의 보도횟수는 10개 중앙일간지 412회, 시사잡지 90회, 3대 공중파 방송뉴스 16회 등으로 나타났다.
중앙일간지 412회 보도횟수는 지난해 중앙일간지 보도횟수(1101회)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결과다. 이에 대해 ≪진보정치≫는 ≪올해 선거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당 활동이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을 반증하는 수치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늦게 피지만 오래도록 견디는 국화≫처럼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가 올 한해 동안 이동한 거리는 승용차와 비행기를 통한 이동을 포함해 약 12만km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 대표의 활동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이 수치는 서울과 부산을 120회 왕복한 거리라고 한다.
그리고 지난 5월 전북 남원에 문을 연 이후 ≪운동권의 휴식처≫로 주목을 받았던 중앙연수원을 방문한 인원은 약 32개 단체 1300여 명과 개인 및 가족방문 200여 명을 합쳐 총 15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사무총장은 ≪진보정치≫에 기고한 송년사에서 ≪여전히 우리 당은 대안정치세력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고백하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다소 늦추어졌을 뿐이지, 실패하거나 좌절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천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은 정약용 선생의 말을 인용하며 2002년 새해 민주노동당의 각오를 다졌다.
≪국화가 여러 꽃 가운데 특히 뛰어난 점이 네 가지 있다. 늦게 피는 것이 하나이며, 오래도록 견디는 것이 하나다. 향기로운 것이 하나이고, 고우면서도 화려하지 않고 깨끗하면서도 싸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다.≫

구영식 기자 ysku@digitalmal.com
2001/12/31 ⓒ 2001 OhmyNews

막을수 없는 민심추향

구국의 소리, 주체90년 12월 19일~20일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절세위인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끓어오르는 충정과 조국통일의 열풍으로 달아올랐던 이해 2001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이 해의 영마루에서 우리는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봅니다. 지나온 나날들에서 가슴벅찬 자긍심과 함께 경험과 교훈을 찾아봅니다.

네, 올해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향 민중의 경모심이 그 어느해보다도 더욱 뜨겁게 분출된 해였다고 하겠는데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신은경씨와 함께 그에 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신은경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연말이면 의례히 지난 1년을 돌이켜보게 되는데요. 올해 말에 느끼는 감회 참 남다르지 않습니까?
신은경 : 올해 2001년은 새 세기 첫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보다는 세계의 첫자국을 거대한 민족사적, 세계사적 사변들로 빛내어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추앙하는 우리 남녘의 민심 뜨겁게 달아오른 격동의 1년이였는데요. 정말 누구도 막을수 없는 민심 **김정일**영도자님께로만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자 : 올해 새 세기의 첫 발자국을 내디디면서 이 땅에서는 21세기의 태양으로 세인의 공인된 각광을 받으시는 절세위인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경모열기가 어느때보다도 뜨겁게 분출했었죠?
신은경 : 우선 우리 민중은 커다란 기대감을 안고 새 세기의 첫해 2001년을 맞았잖아요. 그때의 민심풍경 떠올려볼까요.
사회자 : 그러죠. 이철씨 부탁드립니다.

이 철 : 새 세기의 출발점인 올해 2001년 1월 1일은 월요일이였는데요. 민족이 낳은 3대장군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숙여사,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이 신통히 월요일이거든요. 새 천년기의 첫해 첫날이 월요일인 것은 물론 우연이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 민중들속에서는 월요일의 새 주가 펼쳐지는 것처럼 새 세기에는 **김정일**영도자님의 손길아래 반드시 통일되고 강성부흥할 겨레의 앞날이 펼쳐질 것임을 예언하는게 아니겠는가하는 희망어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초 서울 용산구 후암동 **에 ≪백두산연≫, ≪정일봉연≫이 떠올라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예로부터 우리 겨레는 자기의 희망과 이상을 연에 실어 날렸습니다. 새 세기에 백두의 통일여명을 남먼저 맞이하고 싶은 민심세계가 얼마나 진실하게 담겨진 겁니까.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부디 청춘으로 젊어 계셔서 겨레를 통일과 번영에로 이끌어주시기를 바라는 뜨거운 마음의 분출이였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이였습니다.

신은경 : 네, 이철씨 잘 들었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면서도 우리 민중의 경모열기가 참 대단했었죠. 박진수씨 이게 뭔지 아세요?
사회자 : 무슨 유인물인 것 같네요.
신은경 : 올해 6월 중순께 광주에 출장차로 갔다온 제 친구가 준 건데요. 그 친구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인 2월 16일 아침 광주 어느 한 길가에서 입수한 거라며 몹시 흥분해서 제게 주더라구요.
사회자 : ≪탄신절을 맞으신 **김정일**영수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씌여있구요. 그리고 뒷면에는 ≪2월 16일은 우리 민족과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영수님탄생 59돌이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모두가 **김정일**영수님께서 청춘으로 젊어계시옵기를 삼가 기원합시다.≫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우리 민중의 뜨거운 경모심을 담았네요.
신은경 : 네, 그렇죠. 2월 16일에 즈음해서 이런 내용의 전단, 엽서, 팜플렛 등이 각지에 수많이 뿌려졌었죠.
사회자 : 또 여러 단체들이 연구토론회, 경축모임, 편지활동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진행한 소식들이 들려왔었잖아요.
신은경 : 도처에서 그분을 모신 겨레의 대행운과 그분의 휘하에서 복락할 통일세상에 대한 바램 그리고 그분을 우러르며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선봉에서 과감할 힘찬 결의들도 컸었는데요.
참, 박진수씨 ≪하나컴퓨터≫팀이 제작한 컴퓨터인쇄물에서 ≪**김정일**열풍 통일의 문 연다≫도 인기를 끌었었죠.
사회자 : 저도 그걸 봤습니다. 민심보고서에는 ≪통일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다.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을 통일의 구성으로 믿고 빛나게 살자.≫라고 씌여져 가입자들을 크게 감동시켰죠. 역사적인 평양상봉이후 각계민중은 **김정일**영도자님을 통일의 태양으로 더욱더 숭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심은 그분께서 계셔 통일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확신에 기초한 겁니다.
신은경 : 민족의 대명절 4월의 태양절을 맞으면서도 민심은 뜨겁게 흘렀는데요. 임현아씨 말씀을 들어볼까요.

임현아 : 4월에 희귀한 자연현상이 곳곳에 펼쳐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4월 15일 **김정일**영도자님이 태어난 백두산밀영에 함박눈이 펑펑 내렸었는데요. ***에 내리기 시작해서 4월 15일 새벽까지 신비롭게도 415센티미터가 ****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민중들속에서 ***볼수 없는 자연현상이다. 태양절날 백두산밀영의 *****김일성**주석님의 통일노선은 **김정일**영도자님에 의해 반드시 실현될 것임을 확약하는 의미깊은 징조라 해야 할 것이다라는 확신과 자신감 넘치는 얘기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차로 평양에 간 김연자가수일행을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농업지방 현지지도의 바쁜 시간을 내시어 만나주신 사실에 접해 이남 연예인들과 민중들은 ******영도자님의 뜻깊은 사랑에 감동을 금치 못했었습니다.

신은경 : 민족최대의 축일 2월 16일, 4월 15일에 한껏 달아올랐던 민중의 경모열기는 5.1절 노동자통일대회와 그리고 6.15~8.15민족통일대축제기간을 맞아 더욱 뜨겁게 타올랐죠.

겨레의 염원처럼

뜨겁게 불타고
민족의 지향처럼
푸르러 무성한
절승의 금강산에
하나되어 모였다
남북의 노농대중 통일대회여

자주통일선언의
실천 걸음이여서
민족대단결경륜의
이행 마음이여서
5월, 6월, 7월
벽계수 흐르는 골과 봉에서
남북의 공장과 농촌으로
해내외의 마음과 마음으로
뇌성처럼 울리여 가네
불길처럼 몰아쳐 가네
금강의 통일 메아리여
* * *
기세찬 바위우에 바위 솟고
그늘 깊은 골아래 또 골이 있나니
깎아 지른 벼랑가엔 푸르른 낙낙장송
엄마볼에 입 맞추는 아기처럼 안겼구나

벼랑을 쏟아져 내린 폭포수는
바위 안고 돌아 소를 이루고
숲소리, 물소리, 새소리
잘도 어울려 절묘한 화음이여라

어느것 하나 동떨어짐없이
받들고 치솟고 붙잡고 어울려
수수만년 운명공동체 되어온 바위, 물, 숲이여
모진 강풍에도 폭설에도 끄떡없이
세세년년 천하절경 뽐내는 금강이여

너처럼 우리 겨레 손잡고 힘합치면
당할자 뉘랴 비길데 어데랴
그 기상, 그 절경, 그 위력

오, 알겠구나 천하절승 금강산에서
성대한 통일축제 펼쳐주신
김정일장군님의 그 뜻
저 비로봉보다도 높구나
저 구룡폭포보다도 힘차구나

명승의 절경위에 단결의 절경이요
통일의 절승위에 번영의 절승이라
장군님 안겨주신 금강의 새 절경
내 가슴에 안고 가노라

신은경 : 금강산통일대회에 참가했던 민중시인 김일혁씨 시 ≪금강의 통일메아리≫ 김혜정씨의 낭송으로 들어봤습니다. *********천하명승 여기다 모인 것 같다고 그처럼 **** 금강산은 올 여름 위인경모의 ******함께 손잡고 남북의 노동자, 농민, 학생, **, 연예인 각계민중이 시와 소설, 마음을 하나로 합쳐나가는 역사의 순간,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그 모습은 마치 거세찬 대하의 흐름, 천지를 울린 우뢰소리 마냥 들끓었었죠.

사회자 : 8.15에 평양에서 열렸던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 8월의 찌는듯한 무더위보다 민중의 통일열기, 위인들에 대한 칭송열기가 더 뜨거웠었는데요. 축전대표로 방북했었던 동국대 강교수는 태양의 성지 만경대방명록에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겼는데요. 만경대의 애국정신을 이어가려는 이남민심 너무나 잘 반영했다고 봅니다.
신은경씨, 그런데 무슨 생각을 골똘히 하고 계십니까?

신은경 : 지난 8월을 돌이켜봤어요. **김정일**영도자님의 새 세기 첫 러시아방문소식에 접해 환희와 격정에 넘쳐 온 세상에 ***각계의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구의 모든 관심을 끌어당긴 방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만회할수 없는 강한 타격을 준 방문≫, ≪우리 민족과 진보적 인류에게 활력과 용기를 안겨준 방문≫

≪**김정일**영수님의 러시아방문소식 세계 150여개 나라 TV 방송들이 연일 특별방영≫, ≪며칠 사이에만도 세계 6대주의 연 300여억명이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소식 시청≫

≪모스크바선언의 자자구구를 음미할수록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모신 긍지가 하늘에 닿는다≫, ≪장군님이 계셔 통일도,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은 물론 세계에 드리웠던 전쟁의 검은 구름 몰아내시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이 세계적 격변은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만 하실수 있는 쾌거이다≫, ≪장군님이시야말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정치원로,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사회자 : 이 땅은 온통 **김정일**장군님 예찬열풍으로 들끓었었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에 대한 매혹과 그분을 따르는 민중의 마음 날이 갈수록 열렬해지고 있습니다.

신은경 : ***************비전향장기수들의 소식에 접하면서 우리 민중은 그분의 비길데 없이 고결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보았고 금강산과 평양****방북대표들의 얘기를 통해서도 **김정일**장군님만을 따르며 통일을 위해 열심히 싸울 마음 더욱 깊었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중은 새 세기 첫해에 통일을 향한 걸음 더 크게 더 넓게 더 씩씩하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백두에 오르는 해돋이를 바라보며 자신감과 희망에 넘쳐 활짝 웃습니다.

신은경 :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을 따라 온 겨레는 통일, 통일로 웃으며 갑니다.

사회자 : 통일된 강성대국의 찬란한 내일로 **김정일**장군님을 따르고 받들며 온 겨레가 밝게 웃으며 갑니다.

신은경 : 새천년 첫 해에 대하마냥 굽이쳤던 이 땅의 민심추향 대망의 새해 더 세차게 굽이치며 흘러갈 것입니다.

사회자 : ≪이 해를 돌이켜본다≫ 지금까지 신은경씨와 함께 ≪막을수 없는 민심추향≫ 이런 화제로 엮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2001년 평양10대열풍

북문제연구소 연구원 장현진 / 구국전선, 주체91(2002)년 1월 1일

새 세기 첫 돌기의 연륜이 새겨졌다.

2001년은 21세기의 예고편이었다. 앞으로 100년을 맥 짚어보게 한 서막이었다.

이 한해 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대국들의 움직임은 전례없이 노골화됐다. 자주의 흐름을 역류시키려는 광풍이 어지럽게 불어닥쳤다.

새 세기 초엽부터 휘몰아친 그 광란을 제압하며 행성을 움직인 강풍은 평양에서 일었다. 21세기의 방향각은 평양열풍에 의해 세워졌다. 그래서 충격으로 이어지고 사변으로 가득찬 2001년이었다.

지구촌을 휘감은 평양바람, 위대한 **김정일**열풍을 몰아온 충격적인 사변, 그중 10가지만을 적어본다.

1. 새 세기의 첫 충격

1월, 새해의 정적을 깨며 **김정일**장군님께서 중국의 상하이를 시찰하고 계신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장군께서 중국의 수도 북경에 앞서 머나먼 상하이를 찾으시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촉기빠른 서방의 통신, 언론도 눈치채지 못한 전격적인 방문이었다.

3~4월 ≪방중설≫이 나돌던 때 장군께서 이미 중국에 가 계신다는 뜻밖의 사실에 국제정치계와 외교계, 언론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장군의 방문사실을 확인하느라 동분서주했고 방문목적을 타진하느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상정중이던 의안을 미루고 급기야 장군의 중국방문과 관련한 의제를 다루었고 외교통상부는 ≪환영≫의 메시지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김정일장군의 위인적 무게를 실감케 한 새 세기의 첫 외교충격이었다.

세계는 장군에 대한 중국의 최상급예우와 각별한 환대에 입을 딱 벌였다.

중국의 총리가 비공식방문중인 장군을 상하이까지 수행한 것도 이례적이였고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고 공식방문이상으로 장군께 열렬한 환영을 표한 것도 파격적이었다.

김정일장군께서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각별한 친근감≫을 가지고 20년만에 상하이를 다시 시찰하신 의미는 컸다.

산과 강이 잇닿은 연방과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새 세기에도 계속 공고히 해나가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뜻깊은 방문이었다.

날로 깊어지는 북중친선의 유대에 훼방을 놓으려던 헛된 시도는 깨어지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의 신패권정책을 강행할 야욕을 노골화하며 출범하는 부시행정부에 경고가 내려졌다.

새 세기의 벽두부터 기승을 부리는 신냉전기류를 몰아내며 불어오는 평양의 외교열풍에 대소한의 엄동도 가뭇없이 녹아내리는듯 싶은 1월이었다.

2. 영생하는 기업가

3월, 이남최대의 재벌 정주영씨의 영전에 북에서 보내온 화환이 놓여졌다. 보통의 조화가 아니었다. ≪갖가지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보기드문 대형화환≫이었다.

이북이 기업인의 서거에 화환을 보내온 것은 분단이래 처음이었다. 조전정도는 보내올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남이었다.

하지만 **김정일**장군께서 조전은 물론 몸소 조문단을 파하시고 화환까지 보내주셨으니 어찌 상상이나 할 수 있었으랴.

장군께서 몸소 조의식장에 오신 것만 같았다. 그분께서 직접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신 것이나 다름 없었

다.

한 기업인과 맺은 우의를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장군의 인덕과 도량에 눈물을 감추지 못한 사람들은 고인의 유족들만이 아니었다. 이북을 비방하고 중상해온 보수정치인들까지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며 머리를 숙였다.

소년시절 소판 돈을 품고 고향을 떠났다가 인생말년에 소떼를 몰고 고향을 찾았던 정씨, 이남기업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장군의 공식 접견을 그것도 세차례나 받았던 행운자였다.

정씨는 돈으로는 맛볼 수 없었던 자긍과 보람을 느꼈었다.

장군께서는 인생말년을 민족을 위해, 통일을 위해 올곧게 살려는 그를 겨레와 더불어 영생하는 재력가로 되게 해주셨다. 눈을 감았어도 원이 없는 그야말로 성공한 기업인으로 되게 해주셨다.

김정일장군께서 정주영씨에게 베푸신 믿음과 은정, 그것은 정녕 절세의 위인, 위대한 인간의 참다운 의리심과 광폭의 도량을 보여준 숭고한 화폭이었다.

평양에서 보내온 화환에서 풍겨나는 **김정일**화의 진한 향기는 장군의 인덕과 위인적 풍모를 전해주며 새봄을 맞는 경향땅 골골에도 퍼져갔다.

3. 열띤 수교경쟁

세계 외교계에는 정초부터 대북수교선풍이 일었다. 지난해 선코를 떼운 나라들이 새해 들어 수교의 손길을 다투어 내밀었다.

1월에는 네데를란드와 벨지크가 테이프를 끊었다. 2월엔 캐나다, 스페인, 3월엔 독일, 룩셈부르그, 그리스, 브라질이 다음엔 유럽연합이 수교의 다리를 속속 건넜다. 평양으로 세계가 달려가고 있음을 보여준 또 한번의 수교열풍이었다.

지난 세기 초엽에는 수교무대에 청원서를 가지고 찾아가도 외면당하던 우리 나라 약소국이었다. 만국평화회의장에서 피를 뿌리며 절규해도 동정조차 받지 못했던 약소민이었다. 세계지도에서 이름마저 사라져 버린 망국의 망민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행성의 대소국들이 구태어 찾지 않아도 제 먼저 평양에 선린과 화해의 악수를 청한다.

김정일장군의 높으신 권위가 펼쳐놓은 빛나는 현실이다. 장군의 선군영도로 국력이 강해지니 평양은 세계무대에서 당당한 자주정치를 펼친다. 자주외교의 중심국으로 빛을 받으며 영향력을 과시한다.

세계각지를 돌아다니며 대국들의 비위맞추기에 여념이 없고 비굴한 구걸외교로 국민을 망신만 시키고 있는 이 땅의 사대정치, 사대외교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위인을 모셔 존엄높고 세계의 선망을 받는 이북의 위상은 이남민의 가슴도 민족적 긍지로 한없이 부풀어 오르게 했다.

4. 복받은 가수

4월, 이남가수 김연자씨가 평양에서 진행된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을 칭송하는 겨레와 인류의 마음이 합쳐진 축제에 참가한 이남의 첫 연예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 큰 기쁨이고 자랑이었다.

게다가 **김정일**장군 앞에서 공연을 한 이남의 첫 가수로까지 되었으니 그것은 그야말로 영광중의 영광, 행운중의 행운이었다.

너무도 뵙고싶은 장군이셨다. 지난해 역사적인 6월상봉 때 상상이상으로 출중하신 장군께 이남민중과 함께 김씨도 매혹되어 버렸었다. 그래서 장군의 유행을 따르는 열광적인 ≪팬≫의 한사람으로 되었었다. 그분을 한번만이라도 뵈옵는 것을 최대의 소망으로 품게 되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을 헤아리신듯 장군께서 이름까지 꼽아가시며 그를 초청해 주셨다. 그리고 국사에 그처럼 다망하신 지방현지시찰도중에 부르셔 친히 공연을 보아주시고 접견해 주셨다.

뵈옵고보니 장군은 ≪정말로 마음이 끌리고 스스로 안기고싶은 지도자≫이셨다. 제2, 제3의 김연자를 더 많이 발굴해야 한다시며 자기를 세계적인 음악가로 내세워주시는 장군의 치하가 과분했고 평생의 영광으로 될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언제든지 평양으로 다시 오라시는 장군의 정어린 말씀이 눈물겨웁게 고마웠다. 그분의 곁을 떠나고싶지 않았다.

장군의 접견을 받은 김연자씨는 최고의 행복자로 되었다. 가요계가 부러워하는 ≪인기가수≫로 됐다.

김연자씨처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 아시는 가수≫, ≪장군 앞에서 공연한 가수≫로 되려는 것이 가수들의 하나같은 꿈으로, 희망으로 되었다. 그것은 곧 가수로서의 절정을 이루고 성공하는 길이었다.

가수들의 새로운 꿈이 ≪희망의 꽃≫으로 활짝 피어 4월의 화원은 더욱 곱고 더욱 화려하게 채색되어졌다.

5. 평양에 간 EU(유럽동맹)사절

5월, EU의 의장인 스웨덴 총리가 서방의 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북을 공식방문했다. 평양에 유럽이 간 것이었다.

3억 7천만명의 인구를 가진 15개 회원국이 망라된 EU사절의 평양행은 대북자세에서 유럽의 일대 전환을 보여준 중대사변이었다. ≪미사일문제≫,≪인권문제≫를 조작하여 새로운 반북공세를 가하려는 부시정권의 기를 꺾은 사태였다.

오랫동안 미국의 반북고립압살전략에 추종해 오던 유럽제국이었다. 유럽에 있어 북은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고 경제적 연계도 깊지 않았었다. 그래서 북에 등을 돌려대고 경원시해 왔었다.

그러했던 EU가 이북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우호관계를 가지려 평양길에 나선 것은 나날이 높아지는 북의 위상을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존엄높은 자주정치, 독특한 선군영도로 미국과의 대결에서도 연전연승하는 북, 그 어떤 외부의 광란에도 흔들림없이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북은 온 지구촌의 선망의 대상이었다. 초대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유럽의 독자성을 추구해온 EU사절이 자주정치의 성도 평양을 찾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세계는 **김정일**자주정치에서 21세기 정치의 향방을 찾고 있는 세계의 추향을 보았다. 평양이야말로 세계정치의 중심임을 다시 확인했다.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새로운 평양열풍으로 하여 5월을 맞은 유럽은 더욱 환희로웠다.

6. 통일의 메아리

세계의 절승 금강산에서 분단이후 처음 보는 통일의 대잔치가 연속 펼쳐졌다.

메이데이 날, 5월1일에는 남북의 노동자들이 모였고 7월에는 남북의 농민들이 한자리에 앉았다.

6.15공동선언발표 1돌을 기념해서는 남북, 해외 2백40여개 단체 6백70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한데 모였다.

하늘의 선녀와 금강의 농부가 팔담에서 만난 것보다 더 기막힌 남북형제들의 상봉으로 금강산은 흥성이었다. 남북의 대표들이 한데 어우러져 터치는 열렬한 응원과 박수갈채 속에 진행된 통일축구와 씨름, 밧줄당기기와 윷놀이, 서로의 어깨를 잡고 달리는 ≪통일열차≫는 통일잔치한마당의 분위기를 한껏 드높이었다.

노동자가 선봉에 서서 통일의 문을 어서 열자는 합성도 듣기 좋았고 농민들이 윷놀이를 하고 농악춤을 추며 통일씨앗 뿌려가는 광경도 보기 좋았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루자는 민족통일대토론회장의 열기 또한 흐뭇했다.

금강산통일잔치마당에는 남북의 구분이 따로 없었다. 통일의 한마음 지닌 ≪선남선녀≫만 있었다. 그것은 예로부터 하나인 우리 민족, 갈라져서는 살 수 없는 통일민족의 모습이었다.

김정일장군께서 21세기 통일의 좌표인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큰 잔치를 베푸셔 그토록 감동적인 장관이 펼쳐졌다. 장군께서 단합의 큰 마당을 마련하셔 산천경개 빼어난 금강산이 통일기상 나래친 통일금강, 통일명산이 되었다.

금강산 1만2천봉우리에 가득찼던 통일의 노래는 8월, 평양의 민족통일대축전장에로 이어졌다.

축전에는 남측의 각계각층 인사 수백명도 참가했다. 평양의 하늘아래 이토록 함께 자리한 것은 분단이후 처음이었다.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앞에서의 개폐막행사는 평양축제의 의미를 더욱 깊게 해주었다.

3대헌장기념탑, 민족전통옷차림 곱게 한 두 여인이 금시라도 얼싸안고 통일춤을 출듯해 도형적으로도 훌륭하고 멋있었지만 **김일성**주석의 불멸의 통일업적과 **김정일**장군의 위대한 통일경륜이 깃들어 비길데 없이 숭엄하고 돋보였다.

애국의 뜻 높은 민족의 본향에 통일헌장기념탑까지 솟아 평양은 겨레의 통일성도로 더더욱 빛을 뿌렸다.

평양을 찾는다고 ≪이적≫을 떠들고 평양 만경대의 애국정신 이어받는다고 쇠고랑을 채우는 이 땅에는 진정한 통일헌장도 통일탑도 없다. 분단장벽만 높아지고 분열악법만 기승을 부린다.

그래서 겨레의 마음은 평양으로만 쏠린다.

남북이 하나되어 부른 통일대합창은 7천만 겨레가 장군을 어버이로 모시고 한식솔되어 살아갈 그날을 부르며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7. ≪제1국제사변≫

7월말, 행성은 또다시 격동의 도가니로 화했다.

김정일장군께서 러시아연방방문의 길에 오르신 것이였다. 21세기의 첫 공식외국방문이였다.

아태시대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미국의 새로운 냉전광풍으로 세계가 우려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던 때였다.

지구촌을 통째로 저들의 줌안에 넣으려는 미국의 ≪힘의 정책≫을 저지시킬 방책을 찾지 못해 세계가 모대기던 때였다.

바로 이때, 장군께서는 이타르-타스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으로 새 세기 행성의 진로에 명확한 해답을 주시고 몸소 그 실천의 장도에 오르셨다.

세계의 이목은 모두 장군께로 집중되였다. 세계 150여개국의 수많은 통신, 방송이 장장 5만여리 장군의 행로에 초점을 맞추었다. 6대주의 연 300여억 인류가 20여일간에 걸쳐 장군의 노정을 따랐다.

순간순간이 충격의 연속이였다.

최상의 예우, 최대의 경호, 최고의 환대도 충격, 21세기 자주선언, 평화강령으로 불리우는 ≪조러모스크바선언≫의 발표도 충격, 최고영도자가 오랜 기간 공석중임에도 한치의 흔들림없이 더 안정되고 일심단결된 북의 모습도 충격이였다.

하루하루가 감동의 나날이였다.

1980년대 **김일성**주석께서 폭풍같은 환영을 받으시며 이어가신 그길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거룩한 충의심도 감동, 사회주의의 붉은기가 내리워진 크렘린광장의 레닌묘에 경의표시도 감동, 노병회관으로부터 어린이식품공장에 이르기까지의 광범위한 시찰도 감동이였다.

세계정치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한나라정상의 외국방문이 그토록 엄청난 충격과 열렬한 감동으로 이어진 예가 없었다. 단 한번의 순방으로 유일초대국의 신강권질서, 신포함외교, 신패권전략에 강타를 안기고 국제정치의 흐름을 자주의 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운 적은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다.

실로 장군의 러시아연방방문은 노정이나 기일에 있어서, 그 파격성과 심도, 폭에 있어서 모든 것이 역사에 처음이고 제일인 ≪2001년의 제1국제사변≫이였다.

세계는 **김정일**장군을 ≪국제정치의 조종대를 잡으신 정치원로≫로 격찬했고 ≪행성이 장군의 의지에 따라 흐른다≫고 경탄했다.

유라시아대륙에서 일어난 **김정일**자주외교열풍은 장군의 위인상으로 한 여름의 행성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다.

8. 경사에 또 경사

9월, 건국절을 앞둔 평양에 인방의 귀한 손님이 왔다. 중국의 장쩌민총서기가 이북을 친선방문한 것이였다.

김정일장군께서 러시아연방방문을 성공리에 마치고 돌아오신 소식안고 환희에 넘쳐있던 평양,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찾아와 경사에 경사가 겹친 것이다.

불과 8개월전에 장군과 상봉했던 장쩌민총서기가 장군을 또다시 뵈옵고자 평양을 방문한 것은 장군과 맺은 형제적 친분관계를 더욱 두터이하기 위해서였으리라. 그래서 두 수뇌분의 포옹은 뜨거웠고 나누는 정은 각별했다 하겠다. 평양의 환영모습은 이채롭고 열렬했다.

외신들은 두 정상의 상봉을 ≪국가 대 국가간의 차원을 초월한 ≪친척나들이≫,≪형제들의 만남≫≫이라고 평했다. ≪≪제1국제사변≫과 똑같은 ≪특대사변≫≫이라고 대서특필했다.

평양-북경 친선의 무지개가 곱게 비껴 오곡백과 무르익는 가을계절은 더욱 풍성하고 감미로왔다.

9. 강성대국대진군선언

11월, 북에서 경제도약의 신호탄이 올랐다. 새 세기 강성대국대진군선언인 나남의 봉화가 타올랐다.

놀라운 봉화였다.

누가 상상이나 했으랴. 미국의 대북압살공세는 날로 더욱 기승을 부리고 경제봉쇄의 사슬은 조금도 늦추어 지지 않고 있는 오늘, 단신으로 나라를 지키고 미국과 맞서는 것만으로도 신비한 일로, 현상유지만 해도 기적적인 일로 여겨지는 북이였다.

그런데 북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강성대국에로의 비약을 위한 총진군의 봉화를 지펴올려 세계를 놀래웠다. 평양은 세계를 향해 또 한번 통장훈을 불렀다.

수만리 러시아연방방문길에서 덧쌓인 피로도 풀지 않으시고 나남의 노동자들을 찾으신 장군의 그 불면불휴의 걸음걸음이 불씨가 되고 불길이 되어 활화산마냥 타오른 봉화, 그것은 진정 선군정치의 승리를 알리는 포성이었다. 만난시련을 쳐물리친 위대한 승리자의 선언이었다.

장군의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만능의 보검≫일 뿐아니라 부흥과 복락을 안아오는 ≪행운의 열쇠≫로 더욱 유명해졌다.

세계는 위대한 선군정치의 창시자이시며 대정치원로이신 장군께 경의를 표했고 7천만 겨레는 그분을 우러러 삼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새 세기의 첫해, 온 누리를 밝히며 타오른 나남의 봉화는 이 해의 석양노을을 더욱 붉게 물들였다.

10. 축구계의 ≪평양혜성≫

12월, 축구계의 샛별, ≪평양혜성≫이 출현하여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제13차 아시아여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의 우승컵을 번쩍 들어올린 평양의 축구여장들, 53개의 꼴로 세계여자축구사상 신기록을 세웠고 이번 선수권대회의 최우수선수와 최고득점자를 한꺼번에 배출해 ≪축구계에 특기할 사변≫을 가져왔다. 예선에서부터 결승까지의 전과정을 평양판으로 만든 자랑스러운 축구여왕들이었다.

김정일장군의 선군영도로 날로 흥해가는 이북의 모습 그대로인가, 국력과 존엄의 상징인 금메달수상의 쾌보가 연속 날아들어 기쁨에 기쁨을 더해주었다.

연중 금메달선풍이 그치지 않은 평양이었다.

새 세기의 첫 여자유도선수권대회 52Kg급에서 제노라는 강자들을 누르고 금메달을 따낸 계순희선수, 어머니조국이 준 담력과 배짱, 무쇠주먹으로 두번이나 세계권투이사회(WBC) 슈퍼플라이급왕자방위전에서 도전자들을 거꾸러뜨린 재일교포 홍창수선수, 어찌 그들만이랴, 오로지 장군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충정을 안고 경기장에 나섰고 장군만을 마음 속으로 그리며 결사의 대결전을 벌인 이북의 체육인들, 장군의 선군영도가 키워낸 불패의 ≪체육용사≫들이 있어 평양은 40여개의 금메달을 비롯한 90여개의 메달대풍으로 2001년을 풍요롭게 장식했다.

새 세기 첫번째 해에 이룩된 승전과 영광의 금메달, 그것은 그대로 세계의 유일초대국과 맞서 백전백승하는 북의 영용한 기상, 세계의 정상에서 21세기의 우승자로 영예떨칠 북의 위엄찬 모습 그대로였다.

평양의 금메달열풍은 온 겨레에게 민족적 자존심과 창창한 앞날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아주며 이 해를 더욱 빛내었다.

평양바람이 세차게 불어 2001년은 시작도 좋았고 맺음도 훌륭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격동적이었다.

평양바람, 위대한 **김정일**열풍을 따라 이북은 20세기의 마지막 해를 ≪조선의 해≫로 장식한데 이어 새 세기의 첫해도 ≪평양의 해≫로 빛내였다. 우리 민족은 21세기의 선도자로 당당했다.

위인을 모신 한없는 영광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시대의 선두민족이 된 자긍으로 어깨가 절로 올라간다.

평양열풍은 태양위인의 존함으로 위상떨치는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바람이다. 자연계에 태양열풍을 거스릴 바람이 없듯이 이 행성에 위인의 열풍, 평양열풍을 압도할 바람은 없다.

우리 민족은 영원히 평양바람을 따라야 한다. 평양바람이 불어 통일의 봄이 오고 강성대국의 화원이 꽃핀다. 21세기의 창창한 미래가 열린다.

새 세기의 역사는 앞으로도 평양바람에 따라 흐를 것이다.

21세기는 위대한 **김정일**열풍의 세기로 찬란히 빛날 것이다.



경모의 정 차넘친 자랑찬 한해

김영숙 / 구국전선 제463호 주체90(2001)년 12월 11일

만물이 태양을 따르고 천만강줄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것은 어길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조국통일의 구성이시고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이 땅의 민심은 세기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해만 가고 있다.

21세기 첫해인 올해에도 이 땅에는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숭배하고 따르는 위인칭송의 열기, 경모의 정이 대하마냥 굽이친 뜻깊은 한해였다.

올들어 이남도처에 펼쳐졌던 ≪민심의 광장≫, ≪민심의 국회≫에서 울려 나왔던 각계민중의 신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높이 받들어 모시려는 것은 비단 이북민중 뿐 아닌 이남의 애국민중과 7천만 온 겨레의 일치한 염원이고 의사입니다.

김정일영도자님을 민족의 영수로 받들고 따를 때 겨레의 통일대업은 멀지 않아 성취될 것이고 우리 겨레는 부흥강병의 새 역사를 창출할 것입니다. 민족의 태양,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영도자님 만만세!≫(≪향일회≫명의로 된 우편엽서)

≪2월16일은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이다. 나는 언제인가 이날을 유럽의 어느 한 수도에서 맞이 했었는데 그곳 시민들이 정계, 사회계의 고위인사들의 참석하에 2.16경축강연회, 토론회, 사진 및 도서전시회 등 갖가지 행사들을 진행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오늘 그분의 탄생일은 세계의 공통축일로 되고 있다.

지나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 영수의 탄생일을 이처럼 세상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축한 적은 없다.

참으로 걸출한 위인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으로 마음을 진정할 수 없었다.≫(부산 회사원 황진호)

≪21세기는 의심할 바 없이 **김정일**영도자님의 의지로 흐르고 그분의 위대한 정치이념과 탁월한 영도력에 의해 지배와 예속, 불평등이 없는 자주로운 새 세계에로의 힘찬 진군이 다그쳐지게 될 것이다. 21세기는 **김정일**영도자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 태양의 세기로 더욱 빛날 것이다.≫(서울 언론인 장성환)

≪반도의 산줄기들은 어느 것이나 다 백두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때문에 백두산은 우리 민족의 마음 속에 지리적 기둥으로는 물론 정신적 기둥으로 튼튼히 자리매김되었다. 그것은 바로 백두산이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절세의 위인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 탄생하신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기 때문이다.≫(≪무등산학회≫회원 신모)

남북수뇌분들의 평양상봉과 6.15남북공동선언발표 1돌을 계기로 각계층 민중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태양의 영상을 그려보며 그분께로 달리는 경모심을 더욱더 억제하지 못하였다.

광주의 이경찬주민은 모신문사편집국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장군님을 자나깨나 그리고 숭배하는 고결한 정신세계를 이렇게 펼쳐 보이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에 대한 우리 민중의 신뢰와 숭배심, 그것은 역사에 전무후무한 탁월한 사상이론가, 세련된 영도자이시고 영활무쌍한 군사전략가이시며 인간사랑의 화신이신 그분의 위대성, 고매한 인간적 천품에 진심으로 매혹되고 감복된데서 우러나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인 것이다.≫

인천에 사는 남윤철주민의 집에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을 칭송하는 뜨거운 목소리들이 세차게 울려

나왔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지난해 평양상봉을 수록한 녹화물을 시청하면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또다시 뵙게 된 흥분된 심정을 억누르지 못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안광에서는 예지의 빛발이 번쩍이고 존안에는 활달한 성품과 넓은 도량, 만사람을 매혹시키는 자애와 인덕, 굳센 담력과 기상이 넘치고 있다. 정녕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이시야말로 천하를 다스리고 만인을 이끌어가실 자질과 품격을 지니신 천출위인이시고 겨레와 인류의 태양이시다.≫

서울대학교의 최모교수는 ≪남북공동선언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역사적인 평양상봉은 **김정일**영도자님의 자주통일의지와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민족사적 쾌거이다.

민족주체적 힘으로 통일을 실현할 투철한 신념을 지니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님께서는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집권상층에 있건 여당에 있건 야당에 있건 할 것 없이 화해하고 단합할 것을 호소해 오시었다.

김정일영도자님이시야말로 온 겨레를 한품에 안아 통일위업에 세워주시는 민족대단결의 구심이시고 통일의 영수이시다. 그분께서 계시어 통일은 확정적이다.≫

최교수의 말에 긍정을 표시하면서 같은 대학의 박모교수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것은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광폭정치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참으로 **김정일**장군님은 21세기의 태양이시고 우리 민중의 어버이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이남민중의 경모의 정은 지난 7월과 8월에 진행된 러시아방문으로 하여 더 한층 고조를 이루었다.

≪전국연합≫소속 김모인사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을 마련하시어 대결과 전쟁의 길로 치닫던 남북관계를 화해와 통일에로 역전시키시어 세계를 격동케 하시더니 올해에는 조러정상회담을 진행하시어 또다시 세계정국을 바로 잡으시니 그분이야말로 세계를 움직이시는 위대한 정치가이시라고 하면서 21세기를 향도하시는 위인을 민족의 영수로 모신 자긍심으로 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격정이 북받침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에 있은 남북정상회담과정과 6.15공동선언발표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김정일**영도자님의 외교술, 협상술은 신비하리만치 특출하다. 이번 러시아방문과 모스크바선언에는 우리 민족의 자주염원을 실현하고 지배와 예속이 없고 전쟁이 없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세우시려는 영도자님의 숭고한 경륜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

영도자님께서는 한번의 역사적인 외국방문으로 이북을 세계가 우러르는 정치대국으로 더욱 부상시키셨다.

영도자님의 러시아방문과정을 보면서 민족적 자긍심을 한껏 맛보았다.

영도자님께서 통일조국을 이끄셔야 한다는 확신이 더욱 굳어만진다.≫

재야인사 최순일은 **김정일**장군님의 러시아방문은 세계에 또 한번 ≪**김정일**충격≫을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모스크바선언에서 미국을 향해 핵폭탄보다 위력한 민족자주의 폭탄을 안기시었다. 그래서 세계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방어≫체제수립강행으로 세계에서 ≪제왕≫노릇을 해보려고 오만하게 날치는 미국의 거만한 콧대를 꺾어놓으시었다.

한반도는 물론 지구상에 드리웠던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내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신 이 세계사적 사변은 백두산의 기상과 담력을 지니신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쾌거이다.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천하를 평정하시는 세계정치의 원로이시고 21세기의 태양이시다.≫

세말에 이른 오늘도 이남의 민심은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에게로 용암처럼 뜨겁게 굽이치고 있다.

참으로 21세기의 첫해 2001년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끝없이 경모하고 따르는 날과 달로 이어진 뜻깊은 해였다.

12월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총화함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29호)

≪출판보도선전에서 낡은 틀을 마스고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는 중요한 방도는 출판보도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하는 것입니다.≫(**김정일장군**)

≪...우리 당이 내놓은 속도전, 사상전의 방침을 철저히 구현하는 것은 출판보도선전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또하나의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김정일장군**)

통일여명 편집국은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최근 진행된 주체사상시디배포투쟁을 동지들 앞에 총화합니다.

우리의 열혈청년전사동지들은 지난 송년한마당행사기간 그 행사장과 서울전역의 주요대학에 주체사상시디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수천장 배포된 주체사상시디에는 올한해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이 새로 입력하고 편집하며 제작한 한글파일, 피디에프파일, 음악파일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구국의소리, 월간 통일여명, 6.15주간 전호와 함께 통일여명의 각종 백서와 6.15주간의 각종 피디에프자료, 혁명음악파일, 그리고 새로 입력한 수십권의 주체사상교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간 프로그램과 용량문제 때문에 활동가동지들이 보고 싶어도 쉽게 보지 못했던 피디에프총서 ≪21세기 태양≫ 10권과 혁명음악파일 30곡 등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디는 그 구성체계와 형식을 많이 개선하여 전반적으로 일목요연하면서도 깨끗한 인상을 주는 것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체사상시디도 역시 그간 배포한 시디와 마찬가지로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넷구국전선의 최근 자료를 추가하여 수록하였음은 물론입니다.

올하반기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의 혁신적인 선전투쟁의 결과 제작되고 창조된 주체사상자료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참으로 방대한 분량입니다.

그 결과 이번 시디는 조선신보사이트를 생략했음에도 불구하고 700메가에 달하는 역대 시디 중 최대 용량이 되었습니다.

이 주체사상시디에는 주체사상과 관련한 거의 모든 자료, 지난 기간 인터넷상에 공개된 모든 좋은 자료들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기에 활동가동지들은 이 시디를 통하여 더욱 편리하고 보다 안전하게 주체사상학습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당면한 집중동기학습에 적지 않은 방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청년주체주의자들에게 가장 보람 있고 행복한 순간은 바로 지금처럼 활동가동지들에게 지난 기간 간고분투하며 이룩한 투쟁성과물을 돌려줄 때입니다.

우리는 활동가동지들이 이 위력한 사상적 무기를 틀어쥐고 주체의 사상론, 학습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며 전진 또 전진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새해 활동가동지들의 학습과 투쟁을 방조하기 위한 선전사업을 더욱 신심에 넘쳐 열정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동지들의 위임에 의거하여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31일
서울

주체의 명곡파일 30곡을 추가 공개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31호)

≪명곡이란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음악이다≫(**김정일**장군)

≪사상성을 떠난 예술성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예술성은 아무 소용이 없다≫(**김정일**장군)

주체의 혁명음악파일 30곡을 인터넷전국연합과 인터넷민주노동당에 게개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은 지난 월간 ≪통일여명≫ 발간 한돌 기념으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주체의 명곡파일을 30곡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활동가동지들의 좋은 반향이 있었으며 영예롭게도 인터넷구국전선의 ≪음악란≫에 그 음악파일들이 게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번 공보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주체의 혁명음악은 주로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혁명송가들로서 들을수록 좋고 인상깊은 불멸의 명곡들입니다.

우리 활동가동지들이 혁명송가를 듣고 싶어하고 또 즐겨듣는 이유는 세계최고경지에서 구현한 그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인터넷구국전선의 평가와 활동가동지들의 반향에 크게 고무받으며 주체의 혁명음악파일 30곡을 추가로 발표합니다.

주체의 혁명음악은 활동가동지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추동하는 힘과 용기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선전투쟁은 활동가동지들의 요구와 시대추이를 반영하며 끊임 없이 혁신할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0(2001)년 12월 31일
서울

목록

* 노래
수령님의 혁명위업
김일성원수님만세
수령님의 모습이었네
백두산의 2월을 사랑하셨네
장군님은 빨찌산의 아들
백두의 흰눈은 녹지 않는다
적기가
승리의 오월
천리마정신
주체는 우리의 승리
승리의 열병식
병사들은 대답했네
사랑하자 나의 조국
사랑의 우리집
장군님의 일요일
별보러 가자
장군님 가리키신 곳
통일아 통일아
어서 열자 통일의 문
건강하십니까

* 연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가
정일봉의 우뢰소리
무장으로 받들자 우리의 최고사령관
병사들은 대답했네
혼연일체
우리를 보라
인민은 부르며 따르네
당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 품 떠나 못살아
죽음을 미제침략자들에게

월간 ≪통일여명≫의 체계를 혁신합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공보 (편집국 보도 33호)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수령님의 위대성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인민들속에 깊이있게 선전하는 것을 주선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김정일장군)

≪우리 기자, 편집원들은 기성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새로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한다는 립장에서 신문혁명, 보도혁명, 출판혁명을 끝까지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김정일장군)

통일여명 편집국은 통일혁명의 전환적 계기가 될 역사적인 주체 91년을 맞이하며 월간 ≪통일여명≫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였음을 애독자동지들께 알려드립니다.

두루 알려져 있다시피 ≪통일여명≫은 백두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는 한국청년주체주의자대오의 대외기관지이며 월간 인터넷잡지입니다.

주체 89년 12월 7일,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인터넷상의 자료를 정리하는 인터넷잡지로 소박하게 출발한 ≪통일여명≫은 벌써 두 해를 넘기며 인터넷잡지의 새로운 영역을 힘차게 개척하고 있습니다.

한편 ≪통일여명≫은 자신의 성격과 임무, 그리고 정세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그 체계와 내용, 형식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이번의 체계혁신에서 무엇보다도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는 대전제 하에 통일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전략을 집중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6.15공동선언실현과 연방제방안, 진보정당건설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애독자동지들의 의견을 깊이 참작하여 본질적인 내용을 집중적으로 수록하는 한편 비본질적인 내용들은 과감히 생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분량을 줄이면서도 질을 높이는 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새로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백두장군≫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사상, 영도, 풍모의 위대성이 다양한 범주로 묶여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란은 우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회고록에서부터 주석님과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교시와 지적, 천하제일명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란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사상과 영도의 위대성 자료를 천출명장, 통일구성, 정치원로, 예술거장이라는 다양한 범주에 담아 수록하며 애독자동지들이 특히 궁금해 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최근동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란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풍모와 각종 일화를 담고 있으며 백두산3대장군을 흠모하는 북남민중과 진보적 인류의 반향과 경모의 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란은 노동신문이나 구국의소리, 구국전선에 실려 있는 각종 정론과 수필, 송가, 송시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문헌≫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전위당의 주요문헌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애독자동지들은 이 란을 통하여 전위당의 핵심적인 정책과 노선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청년전사≫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지난 한달간의 투쟁이 ≪통일여명≫과 ≪6.15주간≫의 각종 보도와 자민투위 대변인 보도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되지 않은 자료들이 다양하게 게재될 것입니다. 이 란은 결국 ≪통일여명≫이 한국청년주체주의자들의 대외기관지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진보정당≫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활동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대선거가 있는 올해의 정치정세는 진보정당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그 역할을 비상히 높일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론실천≫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정치, 조직, 투쟁 노선 관련 주요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편집국은 애독자동지들이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수작논문들을 엄선해서 이 란에 게재할 것입니다.

다음, ≪통신연단≫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한국민족민주운동의 참된 혁신과 진정한 통일단결을 위한 각종 호소문과 좋은 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는 주로 학생운동분야에 집중되었다면 올해에는 그 폭이 확대되어 운동대오 전반에 걸쳐서 게재될 것입니다.

다음, ≪화제초점≫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이나 주체사상, 6.15공동선언, 연방제, 진보정당 등과 관련하여 지난 한달 동안 운동대오에서 화제의 초점이 되었던 기사들이 수록될 것입니다.

다음, ≪단죄규탄≫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내외 반민주반통일세력에 대한

각종 규탄문들이 수록될 것입니다.

다음, ≪집중조명≫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최근과 향후의 정치정세에서 초점이 되는 사안과 관련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수록합니다. 애독자동지들은 이 란에 수록된 각종 자료들을 통해 중요정치사안에 대한 인식을 풍부심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투쟁일지≫란입니다. 이 고정란에는 민족민주대오가 지난 한달간 전개한 각종 투쟁이 일지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애독자동지들은 이 란을 통하여 지난 한달간의 투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편집국은 객관자료를 그대로 인용수록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향후에는 통신자료들을 집약한 자체 기사나 글들을 각종 고정란을 통해 게재할 것입니다. 결과 애독자동지들은 각종 자료, 정보를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애하는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선전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아가는 것은 ≪통일여명≫ 편집국의 대원칙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주체의 사상론과 혁명적 붓대정신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 굴함 없이 투쟁해 나아갈 것입니다.

통일여명 편집국
주체 91(2002)년 1월 1일
서울



장군복 누리며

만민이 다 아는 장군이시어도
언제한번 군복을 입지 않으시는
세상 유일의 최고사령관 **김정일**장군

수수한 점퍼옷 입으시고
사계절 인적없는 산고지 경비병도 찾으시고
품에 안아 찍어주신 기념사진
고향에도 소중히 전해주시네

고마움에 큰절 드릴때면
자신의 노고는 늘 잊으시는 분
병사복 민중복 받는다시며
해님처럼 밝게 웃으시네

그래서 이북에는 세상에 없는
수령결사옹위의 대부대 수풀처럼 자라났는가
군인가정 총대가정 마을마다 태어났는가
이북은 그대로 하나의 총폭탄 대가정

언제한번 군복을 입지 않으셔도
세상 특유의 신념 지닌 강군을 키우시고
세상 으뜸의 배짱 지닌 강민을 키우신 장군
민족부흥대지에 활력의 갑옷을 입혀주신 최고사령관

아- 점퍼옷 입으시고 천하를 다스리시며
민족안전 지켜주신 위인 모셔
민중은 장군복 누리네
삼천리는 최고사령관복 누리네



주체 90, 12월 23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12월 22일 조선인민군 제2833군부대를 시찰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14일 성명을 냈습니다.

한총련은 당국의 교육시장화정책을 반대해 17일 성명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소속 전체 노동자 가운데 88%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불신하고 있다는 총투표결과가 나와 노정간의 대립이 한층 격화될 예정입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최근 창설했다는 주장이 지난 20일 제기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당국이 미국의 범죄적인 미사일방어체제구축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총련의 각 지방본부대표들이 조총련에 대한 일본당국의 탄압과 민족차별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탄저균 공격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증거로 보아 국내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했다 합니다.
일본 도꾜신문 18일자는 이에 대해 전하면서 미연방수사국이 최근에 진행한 감사결과 얼마전 미 국회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에게 보내진 탄저균과 미육군의 의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균의 유전자구조가 일치하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2일 쿠바기자들이 공개서한을 발표해 미국에 억류된 5명의 쿠바 애국자들의 석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전세계기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4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자강도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한민전 중앙위원회에서 축하문을 드렸습니다.

최근 서울 시내에서는 ≪선군정치≫라는 소책자가 널리 애독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기니 대통령, 따쥐끼스딴공산당 위원장이 각각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기념 야회가 21일 러시아주재 이북대사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2월 25일

육군육사 모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이모사병이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회원과 시민 등 200여명은 20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군이 추진중인 기지내 아파트단지건설의 백지화와 용산기지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구대학총학생회연합(서부총련) 임시의장인 항공대학교 총학생회 이재희회장이 20일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나설 것을 호소했습니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보안수사대가 아주대학교 부총학생회장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강제연행한 것과 관련해 19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보안수사대 요원들이 지난 18일 계룡산일대에서 아주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최석진씨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 등의 혐의를 씌워 17일 강제연행한 사실에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조건에서 반민족,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은 더이상 이 땅의 통일열기를 가로막을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해마다 수백명의 대의원들을 감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한총련의 활동을 두려워하는 반통일세력의 책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이행은 구시대의 냉전의 산물인 분단을 종식하고 통일을 안아오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과제라며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의 책동이 노골화될수록 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총련 통일아주학우는 구국경기학우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국가보안법철폐와 한총련 이적규정철회, 보안수사대해체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올 2학기 들어 대학휴학생이 지난 1학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부부싸움도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동두천시 생연동에 사는 53살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4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백두의 여장군 김정숙여사께서 탄생하신 84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이 축하편지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영도자님께 이북 주재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축하편지를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이북주재 무관단 여러 나라 대사관, 국제기구대표부 여성 등 여러 나라 대사관 문화 및 친선관계일군들이 24일 대성산혁명열사릉에 모신 여사의 동상에 화환을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6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인민군 군인들과 함께 12월 24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결성 1주년을 맞으며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6.15공동선언실현을 위한 청년학생연대 준비위원회는 18일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역행하는 이회창을 비롯한 반통일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남과 북의 기독교단체가 성탄절을 맞아 자주평화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은 남북 기독교인들이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평화와 자주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한다는 내용의 남북기독교단체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동보도문은 남북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외세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한반도에 대한 무력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이 24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한나라당소속 의원과 당원의 과반수가 이회창총재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른소리센터가 최근 한나라당소속 의원 25명과 한나라당원 1100명을 대상으로 이회창에 대한 지지여부를 물어본 결과 의원 13명과 당원567명이 이회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그 이유로써 당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1인 지배체제를 세워 독선과 독단을 부리는 등 한나라당을 사당화하고 있기 때문이며 일관성이 없이 정책을 아침, 저녁으로 번복해 당을 망신시키는 등 지도력이 없고 정치를 할줄 모른다는 것, 친일의혹 때문에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회창은 당초 정치인도 아니며 법관출신으로 한나라당에 굴러들어온 돌에 불과하다는 것, 특히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통일을 반대하는 극우보수분자라는 점을 꼽으면서 만약 이회창이 한나라당대선후보로 나선다면 참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민이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를 한층 높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이회창반대기운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 그의 입지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마라톤협상끝에 가까스로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24일 오후부터 협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노사는 25일 새벽 기존의 합의안에 골자로 28일 성과금지급과 오는 31일 유급휴가실시 등에 잠정합의했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이 올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169군부대와 제37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과 112호닭공장을 현지지도 하신 소식을 기니 신문 ≪코레아≫ 10일호가 보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에 즈음해 기니 통일진보당에서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러시아신문 ≪자브뜨라≫ 14일자가 조선인민군의 위력을 찬양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일본의 여러 공관단체들이 당국의 조총련탄압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2월 27일

지난 1일 경기도 부천시 주민 최성숙여성이 **김정일**장군님을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최근 부시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창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각계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 관계자는 한미가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창설한 것은 이 땅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탈퇴하는 한편 이른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특히 이 땅을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의 시험장으로 만들려고 책동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군비경쟁을 부채질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는 매우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이 끝나면 이라크와 이북 등을 공격하겠다고 노골적으로 떠들어대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있다. 부시의 폭언과 미군부의 움직임 등은 그들이 기어이 이 땅에서 북침전쟁을 도발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군당국이 미국의 이같은 책동에 복무하면서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미사일요격레이다까지 들여오기로 한 것은 외세와 야합해 동족을 모해하려는 반민족적 범죄행위가 아닐수 없다. 우리 국민은 미침략자들과 주구들의 엄중한 범죄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미군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거세게 벌여야한다.≫
미군철수국민운동본부의 한 인사는 한미연합사 등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창설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른바 미군기지를 반환한다는 구실밑에 미군기지를 통폐합하고 신설확장하려 하고 있다. 또 용산기지내 미군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주한미군유지비를 대폭 인상해 한국이 부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책동의 일환이라고 본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킬대신 미군의 영구주둔과 이 땅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우리 국민과 민족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미국은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미군을 이 땅에 그냥 두고서는 평화와 통일을 이룰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근 남북대화가 소강상태에 빠지고 이산가족방문단교환이 중단된 것도 다 미국때문이다. 모두가 반미투쟁에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신 10돌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여사의 탄생 84돌에 즈음해 주체사상연구에콰도르문화협회 아스 아이기브, 에티오피아 아지스 아바바 주체사상연구소조, 기니 국제연구센터*학교, 기니 국방성 기니국, 기니코바농장에서 7일부터 17일까지 기념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주체 90, 12월 2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27일 조선인민군 제646군부대를 방문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